dailylocal
전국 국내산 특산품 쇼핑몰
www.dailylocal.닷컴

문화매일

제1406호 2023 / 6 / 13 / Tues http://www.dailyculture.kr 대표전화 1899-9659

윤석열 대통령,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기념식 참석

강원도는 그동안 국가안보와 환경 이유로 불필요한 중층 규제 묶여..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을 통해 규제 대폭 완화

윤석열 대통령은 6. 9일 오전 강원대학교 백령아트센터에서 개최된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기념식'에 참석했다.

이날 기념식은 지난해 6월 제정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설치된 강원특별자치도의 공식적인 출범(6. 11.)을 널리 알리고 기념하기 위한 자리로서 김진태 강원도지사, 권혁열 강원도의회 의장, 국회의원, 강원도민 등 1,600여 명이 참석했다.

대통령은 축사를 통해 그동안 강원도는 국가안보와 환경을 이유로 해서 불필요한 중층 규제에 묶여 있었고, 강원도민들께서 많은 불편과 불이익을 감내해야만 했었는데, 특별자치도를 계기로 발전의 불필요한 걸림돌을 제거함으로써 첨단산업과 관광산업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통령은 강원특별자치도의 '미래산업 글로벌 도시' 비전이 실현되도록 e-모빌리티, 수소 등 첨단산업 육성을 적극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제주, 세종에 이어 3번째 출범하는 강원특별자치도는 지난해 6월 강원특별자치도법이 제정된 후 중앙정부와 강원도가 적극 협력해 산림, 환경, 농업, 군사 분야의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특별법 개정이라는 성과를 이뤄냈다.

강원특별자치도의 출범은 지방정부가 정책결정의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지역이 스스로의 발전전략과 성장동력을 찾아내고 중앙정부는 이를 뒷받침하는 현 정부의 지방시대 철학과 부합하는 제도적 성과라고 할 수 있다.

최광수/기자

김동연, 도의회 문체위 위원들 만나. 예술인 기회소득 등 논의

○ 김동연 지사, 12일 경기도의회 문체위 오찬 간담회 – 예술인기회소득 등 논의. 13일에는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들과의 만남 예정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들을 만나 예술인 기회소득 등 주요 도정을 논의했다.

김동연 지사는 12일 수원시 팔달구 도담소에서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의원 14명과 간담회를 가졌다. 참석의원은 이영봉 위원장을 비롯해 황대호, 김성수, 김철진, 박진영, 유종상, 이경혜, 조미자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8명과 강웅철, 윤성근, 윤충식, 이석균, 이한국, 최승용 의원 등 국민의힘 6명이다.

김 지사는 "문화, 예술, 체육 쪽은 워낙 개인적으로 관심이 많은 분야다. 문화예술 쪽에서는 우리 예술인들 사회적 가치에 대한 여러 가지 인정과 도움을 드리기 위해 예술인 기회소득도 심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잘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이영봉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은 "내일부터 정례회가 시작하는데 2022년도 집행에 대해 결산하는 회기"라며 "대화와 소통을 하면서 지역에 필요한 부분 등 의원들 얘기를 전체적으로 많이 들어봤으면 좋겠다"라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상임위별 소통을 위한 자리로, 13일에는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들과의 오찬 간담회가 예정됐다. 김 지사는 지난 3월 14일에는 기획재정위원회, 4월 26일에는 안정행정위원회 위원들을 만난 바 있다.

예술인 기회소득이란 도에 거주하는 예술활동증명유효자 중 개인소득이 중위소득 120% 이하인 예술인에게 연 15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경기도는 지난 3월 27일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완료하고, 지난 4월 26일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를 입법 예고했다.

도는 6월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가 경기도의회를 통과하면 신청자를 접수해 7~8월 중 1차 지급을 추진할 계획이다.

최만식/기자

경북도, 양수발전소 유치로 '경북 지역균형발전·에너지 대전환' 선도한다

원전과 재생에너지 공존의 필수 설비인 '친환경 전기 저장고'

경북도는 지난 1월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22~2036)』에 신규 양수발전소 1.75GW가 반영됨에 따라 영양과 봉화 2개소에 1.5GW, 건설비 3조원 규모의 양수발전소 유치에 총력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영양군은 한국수력원자력에서 일월면 일대에 1GW 2조원 규모, 봉화군은 한국중부발전에서 소천면 일대 0.5GW 1조원 규모로 산업통상자원부의 양수발전소 유치 공모신청을 준비 중이다.

6월 중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신규 양수발전소 사업자 선정 관련 공고를 하면 올 하반기 중 선정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양수발전소는 상.하부 댐으로 구성되며 특정시간대에 남는 잉여전력으로 하부 댐의 물을 양수해 상부 댐에 저장한 후 전력 공급이 부족한 시간에 전력을 공급하는 친환경 '전기 저장고'로 불린다.

이에 원전 및 재생에너지의 단점을 보완하는 필수 공존 설비로 급부상하고 있는 발전원이다.

한편, 올 초 한국수력원자력에서는 전국 양수발전 후보지를 사전조사하고 민간 입지선정위원회 평가를 거쳐 영양군을 최종 후보지로 선정했다.

한국중부발전에서도 봉화군과 양수발전소 조성 MOU를 체결하고 신규 양수발전소 공모신청을 준비 중이다.

이번 심사에 영양·봉화 양수발전소가 선정되면 경북에는 기존 청송.예천 2개소에 이어 12년 만에 3, 4번째 양수발전소를 유치하게 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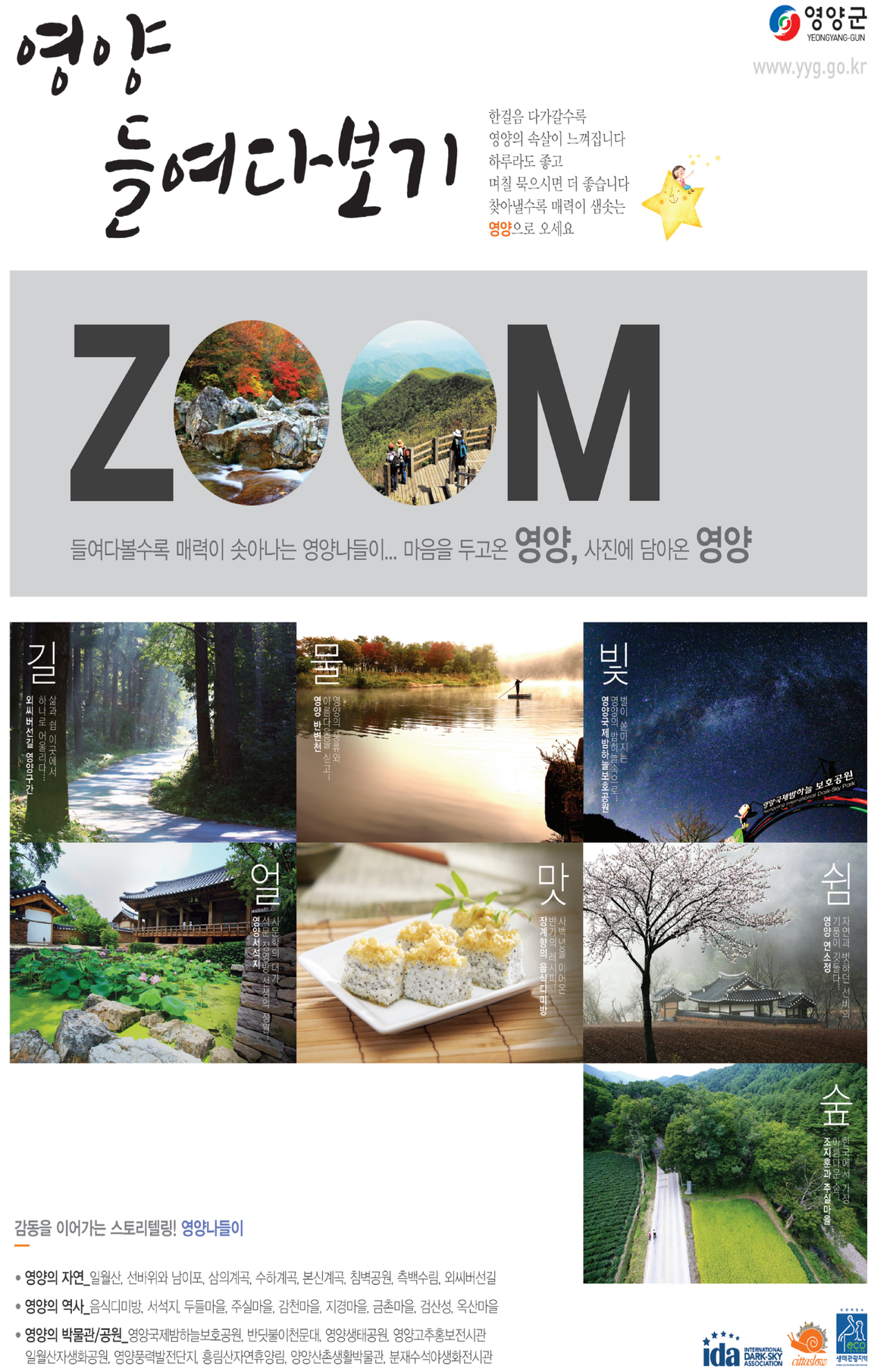
2개의 양수발전소가 유치되면 전국 양수발전소의 30%를 경북이 차지하는 양수발전소 1위 지역이 되고, 원전에 이어 대한민국 에너지대전환을 주도하는 지방시대를 펼쳐 나갈 계획이다.

경북도는 양수발전소가 유치되면 두 지역의 소득증대와 일자리 창출, 생활환경 개선, 관광자원화 등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또 농촌 인구감소와 농업용수 및 식수 부족, 산불진화 용수 확보 등 여러 가지 지역적 문제도 함께 해결해 지방 균형발전은 물론 새로운 지방시대를 여는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양수발전소 유치를 통해 주변 지역과 연계한 경북의 대표적인 복합관광지로 새롭게 개발하고, 연관 산업 육성 등으로 경북이 주도하는 확실한 지방시대를 열어갈 것"이라며 "전국 지자체에 지방소멸위기를 극복하고 지역사회에 새 희망을 주는 모범사례가 되도록 영양, 봉화 양수발전소 유치를 위해 중앙정부 건의와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윤근수/기자



전남도, 남도 우리술 품평회·국민평가단에 참여하세요

23일까지 시군 출품 신청…우리술·일반술 5개 부문 접수

전라남도는 우수한 전남 농산물로 만든 명품 남도 술을 발굴해 대외 인지도를 높이고 생산자 의욕을 고취하기 위한 2023 남도 우리술 품평회 참가 업체와 국민평가단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우리술과 일반술 부분으로 나눠 진행되는 남도 우리술 품평회는 주류제조면허가 있는 전남지역 주조장에서 국내 생산 농산물을 주원료로 현재 시판 중인 주류로 참가할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턴 수입 쌀 등을 사용한 막걸리도 일반술 부문을 통해 참가할 수 있다.

참가를 바라는 업체는 전남도 대표 누리집 '고시·공고'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주류제조장이 있는 시군 주류업무 담당부서에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오는 23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전남도가 주최하고 (사)전남전통주생산자협회 주관으로 열리는 남도 우리술 품평회는 우리술 부문에선 막걸리, 증류쥬(증류식소주·일반증류주), 약·청주, 기타(과실주·리큐르·기타주류) 4개, 일반술 부문에선 막걸리 1개 등 총 5개 부문에서 경쟁하게 된다.

서류심사를 거쳐 본선 진출이 확정된 제품은 오는 7월 11일 전문심사위원과 국민평가단의 심사를 받는다. 심사 과정은 투명성을 위해 유튜브를 통해 생방송으로 송출된다.

대상 1개, 분야별 최우수·우수 1개 등 총 11개 제품을 선정한다. 대상은 500만 원, 최우수상은 200만 원 등 총 1천500만 원의 마케팅 지원금이 주어지고, 오는 10월 23일부터 서울에서 열리는 '남도 우리술 큰잔치' 참가 및 각종 행사 건배주·만찬주 추천 등 혜택이 있다.

전남도는 또 남도 우리술 품평회 국민평가단도 모집한다. 만 19세 이상 우리술에 관심이 많은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참여 신청은 카카오톡 '2023 남도 우리술 품평회' 채널 추가 후 오는 23일 오후 5시까지 신청하면 된다.

강효석 전남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올해 품평회는 전문가와 소비자의 평가를 함께 하는 공개적 소통 장이 될 것"이라며 "전남의 청정 농산물로 만든 우수 전통주가 지역의 문화·관광자원으로 자리잡도록 우수 지역 업체의 많은 참여 바란다"고 말했다.

품평회 참가와 국민평가단 신청 등 기타 자세한 문의는 전남도 농식품유통과나 '2023 남도 우리술 품평회' 운영 사무국으로 하면 된다.

박종배/기자

경상북도의회 6월 12일 울릉도 안용복기념관에서 제1차 정례회 본회의 개회

경상북도의회는 6월 12일 제340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울릉군 현지 안용복기념관에서 배한철 의장을 비롯해 도의원 및 이철우 도지사, 임종식 교육감 및 집행부 공무원, 취재 기자단 등 1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했다.

이날 첫 일정으로 울릉자생식물원에서 울릉군의 현안사업인 울릉공항 건설공사, 울릉일주도로 건설공사 추진현황 등을 살펴보고 공사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이어 안용복기념관에서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울릉군 출신 남진복의원의 "울릉도 지역현안 관련"5분 자유발언 등 안건을 처리했다.

본회의 이후 13일(화) 오전까지 상임위원회별로 주요사업장을 방문하여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현지 의정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이번 정례회는 6월 12일 울릉군 현지 본회의를 시작으로 6월 20일은 도정질문을 실시하고, 2022회계연도 결산승인, 민생 조례안 등 37개의 안건을 심사하여 6월 26일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할 예정이다.

배한철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울릉도에서 본회의를 개최하는 것은 대한민국 지방시대의 개막과 함께 경북의 지방분권에 바탕한 균형발전을 현실화 시킬 역사적 출발선에 우뚝 서고자 하는 경상북도의 굳은 의지와 각오를 널리 알리고자 하는 의미있는 일이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웰니스 서울 정책 연구 포럼'현장방문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웰니스 서울 정책 연구 포럼'은 연구활동의 일환으로 6월 9일 강서구에 소재한 '대한한의사협회', '허준박물관', '서울식물원', '이대서울병원'을 방문했다.

대한한의사협회 회장은 웰니스 산업 관련 한의 난임치료 사업과 한의 치매 예방 및 관리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높은 만족도를 받고 있으나 국가가 난임치료에 체외수정과 인공수정만을 한정 지원하여 문제가 있고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공립한방병원 설립이 시급하다고 간담회에서 언급했다.

이어 방문한 허준박물관은 한의학의 대표적인 저서인 '동의보감'을 집필한 허준 선생님의 학문적 업적과 생애를 기리고자 2005년 설립된 대표적인 웰니스 관광 명소로, 대한민국 한의학의 중요 의서인 구급간이방(보물제1236-2호)와 신찬벽온방(보물제1087-2호) 등 다양한 전시물들을 시민들에게 보여주고 한의학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다.

세 번째로 연구단체는 서울식물원을 방문하여 열대와 지중해의 12개 도시 자생식물이 전시돼 있는 전시온실과 사색의 정원, 추억의 정원, 오늘의 정원, 바람의 정원 등 서울식물원 전반을 돌아보고 보타닉홀에서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서는 웰니스 산업 관련 서울식물원의 치유기능에 대해 집중 논의했고 식물원장은 소방공무원들에게 직업상 많이 발생하는 외상 후 스트레스(PTSD) 치료에도 프로그램 적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강사 등의 인건비 문제는 예산 지원 필요 여부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마지막 방문한 이대서울병원은 2019년 2월부터 진료를 시작한 1,014병상의 최신 대형 대학병원으로 기존의 병원들보다 시설과 진료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 치료는 기본이고 정서적 안정감과 치유까지 선사하고 있다고 관계자가 안내했다.

특히 '웰니스 건강진흥센터'는 기존의 건강검진과 차별하여 한국인에게 유전적으로 발병 가능한 암, 심혈관, 뇌혈관질환을 조기 발견하고 예방할 수 있는 'My WELLNESS Upgrade' 프로그램과 최고급 프리미엄 건강검진 프로그램인 'My WELLNESS PRIME'을 운영하고 있었다. 또한 알츠하이머병 치매를 미리 예측하고 조기에 발견하는 건강진단 프로그램으로 'My WELLNESS SUPERAGING'도 운영하고 있었다.

이날 연구단체 현장방문에는 남창진 부의장, 강석주 보건복지위원장, 김춘곤 연구단체 대표의원, 김경훈 의원, 김규남 의원, 윤영희 의원, 이민석 의원, 이봉준 의원, 이은림 의원, 최진혁 의원이 참석하여 성과있는 시간을 가졌다.

서울시의회 연구단체 '웰니스 서울 정책 연구 포럼'은 시의회로부터 2023년 2월 설립을 승인받고 5월 정책토론회를 개최한 후 6월 현장방문을 진행했다. 향후에는 ▲후반기 연구용역 추진 ▲전문가 초청세미나 ▲시장님과의 간담회 ▲2차 현장방문 ▲정책 간담회 등을 계획하고 있다.

최광수/기자

충남도의회, 공공시설·서비스 등 공공자원 개방 확대한다

김명숙 의원 대표발의 '공공개방자원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 예고

충남도의회가 다양한 공공자원 개방 및 공유서비스의 본격 시행을 위한 제도 기반 마련에 나섰다.

충남도의회는 김명숙 의원(청양·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공공개방자원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예고했다.

조례안에서 '공공자원'은 충청남도의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이 공공목적으로 설치하거나 사용하는 시설, 물품, 공간 등을 말하며, 공공자원 개방은 공공부문이 보유한 다양한 자원을 유휴시간이 발생하는 때에 국민에게 개방하는 것으로, 현재 대부분의 시·도에서는 단순 회의실 개방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조례안은 타 시·도와 달리 시설 개방에 국한하지 않고, 다양한 부문에서 공공자원을 지정하고 개방할 수 있도록 제안됐다.

구체적으로 ▲회의장·세미나장 등 기존의 시설물은 물론 ▲교육·강좌 등 무형의 자원까지 개방할 수 있도록 했으며 ▲도내 15개 시·군 및 충남교육청,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휴양림, 주차장 및 기타 다양한 물품까지 공유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조례를 대표발의한 김 의원은 "도민은 공공시설의 주인이면서도 그동안 공공시설을 충분히 사용하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도에서 우선적으로 다양한 분야의 공공자원 개방 및 공유서비스를 실시하도록 하고, 도교육청과 각 시·군의 참여를 독려해 도민이 유익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16일 열리는 제345회 기획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심사될 예정이다.

최정근/기자

경기도의회 김동영 의원, 남양주시 지역아동센터 관계자 간담회 실시

경기도의회 김동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4)은 지난 9일 경기도의회 남양주상담소에서 남양주시 지역아동센터 관계자, 남양주시 복지국 여성아동과 직원들과 함께 간담회를 했다.

이날, 지역민들의 구체적인 민원 내용 청취를 위해 남양주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손정자 시의원도 자리에 함께했다.

남양주시의 지역아동센터 센터장은 "지역아동센터의 인건비 체제 재정비와 돌봄 교사들의 근무시간 조정을 통해 지역아동센터의 애로 사항을 해소해주기를 요청한다."라고 하며 현재 지역아동센터의 인력지원 체계의 비효율성을 이야기했다.

이에 김동영 의원은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이용자들과 지역아동센터에서 일하는 근무자들을 위해, 경기도의회와 남양주시가 협의하여 합리적인 문제 해결 방안들 만들어보도록 노력하겠다."라고 하며 "특히 돌봄 교사 근무시간 조정 등의 건의 내용은 실현 가능한 방안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경기도와 소통을 통해 알아보겠다."라고 하며 간담회 참여자들을 격려했다.

경기도의회 의원들은 지역상담소를 주민의 입법·정책 관련 건의사항, 생활불편 등 을 수렴하고 관계 부서와 논의하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남양주상담소는 평일 10:00~18:00 운영된다.

최만식/기자

광양시의회, 제319회 정례회 개회

22일까지 11일간 일정, 2022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등 15건 안건심사

광양시의회는 12일 제319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하고 22일까지 11일간 의사일정을 시작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2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포함하여 조례안 12건, 일반안건 3건 등 총 15건의 안건을 처리한다.

13일부터 18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상정 안건을 심사하며, 19일부터 21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열리고 마지막 22일 제2차 본회의에서 각종 안건을 의결하고 정례회를 마무리한다.

의원발의 조례안은 광양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정구호 의원), 광양시 발달장애인 권리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문섭 의원), 광양시 한국수어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박문섭 의원), 광양시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송재천 의원), 광양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철수 의원), 광양시 청년농림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최대원 의원), 광양시 스마트 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서영배 의원) 등 7건이다.

서영배 의장은 "이번 정례회는 2022년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심사가 예정되어있다."며, "지난해 예산이 당초 계획한 대로 효율적으로 집행됐는지, 불필요한 지출이나 낭비는 없는지 꼼꼼하게 심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집행기관에서는 본격적인 여름 우기철에 대비하여 관내 공사장이나 취약지역에 대한 안전 점검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5분 자유발언에 나선 최대원 의원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에 계획에 따라 '수산물 선제적 안전 검사 시스템 구축', '인근 지자체 연대 강화', '원전수 안전성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 등 광양시만의 정책적 대응 및 방안 마련을 제안했다.

이승준/기자

전라남도의회 임형석 의원, '수소 차량 충전소 확대 구축' 요구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임형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양1)이 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라남도 2022년도 결산에서 동부지역본부의 수소 차량 보급에 따른 수소 차량 충전소의 구축 확대를 요구했다.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은 업무용 차량을 구입할 경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모두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구매해야 하며 이에 따라 동부지역본부는 전기차와 수소차의 구매를 지원하고 있다.

이 중 수소차는 2019년에 27대, 2020년 95대, 2021년 166대, 2022년 533대, 2023년 현재 635대를 보급하여 총 1,456대를 보급했다. 그러나 현재 전라남도에 운영 중인 수소 충전소는 5곳에 불과해 보급된 차량 대수에 비교하면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형석 의원은 "수소의 보관과 이송 등에 기술력과 투자비용이 소요되지만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친환경 자동차의 보급이 불가피 하기 때문에 수소차 충전소의 확대 운영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임 의원은 2022년 자치행정국 소관 결산에서 구입한 수소차를 충전하기 위해 도 본청에서 함평 휴게소까지 가는 비효율적인 행정에 대해 지적한 바 있다.

박종배/기자

문화매일 http://www.dailyculture.kr 대표전화:1899.9659

대표이사.발행인:최수진 .편집국장 :최재은. 부회장:박류석. 임석경 청소년책임보호자:최수진

(주)문화매일 등록번호 서울 아 50710 등록일 2013-07-12 제호 : 문화매일신문 | 등록번호 : 서울 가 50146 | 등록일 : 2009-04-20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

편집국:02.2612.2959
광고국:1899.9659

정 치 부:내선 (112) 문 화 부 :내선 (116)
사 회 부:내선 (113) 부동산부 :내선 (117)
경 제 부:내선 (114) 오피니언부 :내선 (118)
스포츠부:내선 (115) 지 방 부 :내선 (119)

서울본사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714 스카이벨리2차 708호

경기본사 : 경기 광명시 시청로 7 홍신 에이스텔 701호

사외(社外) 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새로운 한옥마을은 어디?` 서울시, 7월 21일까지 자치구 공모

지난 2월 '서울한옥4.0 재창조' 발표 후 첫 대상지 공모… 심사거쳐 9월 선정

올해 2월, 서울 시내 한옥 보전과 활성화를 위해 서울시가 '서울한옥4.0 재창조 추진계획'을 발표한 이후 북촌.은평과 같은 한옥마을 조성을 위한 새로운 대상지를 찾아 나선다.

서울시는 오는 7월 21일까지 새로운 한옥마을 사업대상지 선정을 위한 첫 자치구 공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시는 8월 중 공모심사위원회를 거쳐 9월 최종 대상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 2월 14일 한옥 개념을 확장하고 창의적인 한옥 건축을활성화 하기 위한 한옥정책 장기 종합계획을 내놓고 '새로운 한옥, 일상 속 한옥, 글로벌 한옥' 총 3개 분야 실천과제를 본격적으로 추진해 왔다.

특히 두 번째 과제로 제시된 '일상 속 한옥'에서 향후 10년 동안 서울 시내 곳곳에 새로운 주거문화를 경험케 하고 도시 매력을 끌어올려 줄 '한옥마을'을 10개소 이상 조성하겠다 밝힌 바 있다.

현재 서울에는 북촌, 익선, 인사동 등 '한옥주거지'와 은평과 같은 '신규 한옥마을' 등 총 12개소의 한옥밀집지역(한옥마을)이 있다.

공모는 새로운 개발지를 대상으로 하는 ▲신규택지조성형, 기존 주택지에 연계된 마을을 조성하는 ▲지구단위계획 수립(변경)형, 10호 이상 한옥을 건립하는 ▲한옥마을사업형, 유형에 따라 규모와 방식이 다르게 적용되므로 해당하는 유형에 맞춰 신청할 수 있다.

'신규택지조성형'은 1만m² 이상 규모로 훼손된 개발제한구역 등 정비가 필요한 지역에 공영개발 방식(도시개발사업)으로 한옥마을을 조성하게 되며 '한옥마을 지구단위계획 수립(변경)형'은 지구단위계획 등 수립 및 변경을 통해 5천m² 이상 기존 주택지를 개발하게 된다.

'한옥마을 사업형'은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호 이상의 한옥을 건축하여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방법으로 민간 등이 참여 할 수 있는 사업 단위로 개발하는 것을 말한다.

평가는 ▲대상지 선정 적정성 ▲사업계획 타당성 ▲사업추진계획 ▲사업 기대효과 등의 항목을 평가하며 기존에 한옥이 없는 지역일 경우, 가산점 등이 추가로 부여된다.

양호한 주거지 조성 및 지속적 관리가 가능한 규모.입지특성 등인지를 평가하는 '대상지 선정 적정성'과 실질적인 사업 실현 구상이 담기는 '사업추진계획'에 가장 큰 배점(각 30점)이 주어지며,

주변 지역과의 연계성 등을 고려한 통합적인 구상을 들여다보는 '사업계획의 타당성', '사업 기대효과' 등 항목에 각 20점 씩 부여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하게 된다.

시는 주변과 잘 어우러지는 한옥 경관과 양호한 주거지 조성이 가능한 지역 중에서 그동안 개발여건 등의 한계로 방치. 훼손돼 새로운 정비 대안이 필요한 대상지를 종합적으로 평가, 유형별로 균형 있게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6월 2일 25개 자치구 대상으로 한옥마을 대상지 선정을 위한 설명회를 진행했으며, 6월 23일까지 사전 질의 및 의향서 접수를 받은 뒤에 7월 21일까지 공모 신청받는다.

아울러 시는 한옥마을 조성을 희망하는 대상지 중 해결 방안이 필요한 곳은 사전검토, 전문가 컨설팅, 관련 부서 간의 협의 등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올해 새롭게 수립된 '서울한옥4.0 재창조'를 통해 편리하면서도 창의적인 한옥이 확산될 뿐만 아니라 서울 곳곳에서 자연과 어우러진 한옥마을을 만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서울 시민이 한옥의 가치에 공감하고, 원하는 누구나 한옥에 살거나 지을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광수/기자

미래 직업을 찾아라…영등포구, 진로 • 직업 체험 큰 인기

영등포구가 지역 내 모든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자유학기제와 연계한 '2023 진로·직업 체험'을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구는 문래창작촌과 양평동 일대에서 35개 진로·직업 체험처를 발굴하고 전문적인 진로 교육을 위한 컨소시엄을 구성, 다양한 직업 체험활동을 추진한다.

학생들은 클라이밍, 무용가, 드론 촬영 전문가, 심리상담사, 플로리스트, 아트디렉터, 펫푸드스타일리스트 등 직업인(진로 멘토)이 일하는 현장을 방문해 직업에 대한 실질적 정보를 얻고 자신의 진로를 탐색하는 시간을 갖는다.

진로·직업 체험은 학생들이 집결 장소에 모이면 진로 가이드가 영등포의 역사, 지형, 지역 특색 등을 학생들에게 설명하면서 시작된다.

이후 학생들은 수업 강사나 진로 가이드와 함께 진로·직업 체험처로 이동해 ▲클라이밍 ▲기초 무용 ▲연극 ▲도자기 공예 ▲미용 ▲금속공방 ▲목공 ▲바리스타 ▲플로리스트 ▲캘리그래피 ▲드론 ▲미술 ▲페이퍼플라워 등 다양한 체험활동을 진행한다.

진로·직업 체험은 4~8명 이내 소수 인원으로 운영되며, 학생들이 사전에 체험 분야를 선택한다.

구는 2019년부터 지역 내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문래창작촌의 지역 예술 자원을 활용, 예술가들의 작업 공방에서 원데이클래스 방식의 생생한 체험교육을 '진로 예술과 만남' 사업으로 운영한 바 있다.

진로·직업 체험에 참여한 한 학생은 "어렸을 때부터 헤어 디자이너가 되어 나만의 미용실을 운영하는 것이 꿈이었는데, 직접 머리도 잘라보고 염색도 해볼 수 있어 꿈에 더 가까이 다가간 것 같다"라며 "오늘 체험을 계기로 꿈을 이루는 날까지 열심히 노력해보겠다"라고 전했다.

차해엽 미래교육과장은 "진로·직업 체험은 학생들이 학교 밖 직업 현장에서 다양한 직업을 경험하고 자신의 진로를 현실적으로 탐색해보는 소중한 기회"라며 "앞으로도 지역 특화 자원을 적극 활용해 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학교·지역사회와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박황신/기자

성동구, 보행자 위한 성수동 카페거리 팝업 쉼터 펼친다

서울 성동구가 오는 16일부터 21일까지 6일간 성수동 카페거리(성수이로)에서 보행자를 위한 '이로운 도로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로운 도로 캠페인'은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주민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자동차 중심의 도로 공간을 일시적으로 보행자를 위한 환경으로 조성하는 프로그램이다. 성동구와 (재)티머니복지재단, ㈜소소도시가 협약을 맺고 ESG 사회공헌 협력사업으로 추진한다.

이번 캠페인은 서초구와 강남구에 이어 성동구에서 릴레이로 진행한다. 6일간의 캠페인 기간에는 성수동 카페거리(성수이로) 도로변 공영주차장의 일부를 쉼터로 조성한다. 길을 걷는 보행자가 쉴 수 있도록 의자, 테이블, 썬베드, 화분 등을 배치하여 공원에 온 것 같은 분위기를 연출할 예정이다.

행사 첫날인 16일에는 지역 양조장들이 모인 '성동양조연합'에서 '소소양조마켓'을 개최하여 로컬 술 문화도 즐길 수 있다. 더불어 오후 3시에는 감미로운 재즈공연도 펼쳐진다.

성동구는 이번 ESG 사회공헌 협력사업과 더불어 ESG 기반의 정책들을 선도적으로 추진해왔다. 특히 지난해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성동형 E+ESG 지표'를 개발, 총 82개 지표를 공공부문 정책에 활용하고 ESG 실천 사업을 지원하는 등 지속가능한 도시로 발돋움하고 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이번 캠페인에서 쾌적한 보행환경도 경험하고 독특한 지역 문화를 즐길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거리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성원/기자

금천구, 김경일 교수의 '100배 공부법' 특강 성공리에 마쳐

금천구, 청소년과 학부모를 위한 명사 초청 진로진학 특강 진행

금천구는 6월 10일 김경일 교수를 초청해 '공부 효과 100배 올리는 비법'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이번 강의는 지난 4월 이병훈 소장의 자기주도 학습 특강, 유성호 교수의 진로 특강에 이은 올해의 마지막 명사 초청 특강으로, 약 400명의 학생과 학부모들이 참여해 큰 호응을 얻었다.

김경일 교수는 강의에서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학습법 ▲ 공부 잘하는 아이, 공부 비법 ▲ 공부 효과와 메타인지 등 학생과 학부모들이 궁금해할 만한 학습법 관련 내용을 전했다.

김경일 교수는 tvN '어쩌다 어른'을 비롯해 '요즘책방', '책 읽어 드립니다' 등 다양한 방송활동과 함께 '십대를 위한 공부사전', '지혜의 심리학' 등을 저술한 대한민국 대표 인지심리학자로, 이번 특강을 통해 심리학을 바탕으로 한 효과적인 공부법을 전수해 좋은 반응을 얻었다.

특강에 참여한 학부모는 "공부에 집중하지 못하는 아이에게 학습 동기를 심어주는 방법을 알게 되어 많은 도움이 됐다"라고 말했다.

한편 금천구는 2024학년도 대입 수시 모집을 준비하는 학생과 학부모를 위해 6월 17일 성균관대학교 입시설명회를 포함한 계열별 수시설명회를, 7월 15일에는 17개 대학이 참여하는 수시박람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이번 특강을 통해 학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과 학부모님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진로 진학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교육지원과 또는 금천진로진학지원센터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박황신/기자

송파구, 위례~장지 잇는 '장지동길 신설도로' 개통식 8일 개최…위례신도시 주민숙원 해결!

서강석 송파구청장 "장지동길 개통으로 위례신도시와 송파서북부지역 연계성 확보될 것"

송파구가 위례신도시와 장지동 송파파인타운 1단지를 연결하는 왕복 4차선 지하차도인 '장지동길 신설도로' 개통식을 8일 개최했다. 이 도로는 8일 자정을 기준으로 개통했다.

구는 8일 오전, 장지동길 신설 도로 개설공사 종점(송파레이크파크 1차)에서 서강석 송파구청장, 서울주택도시공사 김헌동 사장, 위례동 지역 주민 등 총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통식을 개최했다.

개통식에서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장지동길 신설도로 개통으로 위례 지역 주민들의 장지동 진입이 10분 이상 단축되는 큰 교통혜택을 입게 됐다."며 "이 터널이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가져와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지동길 신설도로'는 위례택지개발사업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사업시행자인 SH공사가 2017년 8월 착공했다. 위례신도시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 결실을 맺어, 위례신도시(송파위례로)에서 장지동 송파파인타운(장지동 송이로)을 잇는 총 연장 475m 도로가 개설됐다.

이번에 개통하는 도로는 왕복 4차선 지하차도 구간이다. 구는 '장지동길 신설도로' 개통으로 위례신도시 서북부 방향의 이동성 향상과 동서측 교통수요 분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구에 따르면, '장지동길 신설도로' 이용 빈도는 하루 평균 약 11,500대 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위례지구 외부발생 교통량의 약 9.28%을 분담하는 수치다.

구와 SH공사는 공사과정과 도로이용 시 발생할 주민들의 불편해소에도 적극적으로 나섰다. 공사 중 인근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총 세 차례의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주민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했다.

또한, 방음터널을 설치해 도로 개통에 따른 소음피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했다. 터널형 방음벽은 장지동길 시작점과 끝나는 지점 약 254m 구간에 설치했다.

구와 SH공사는 개통 전인 5월, 공용개시 합동점검에 나서고 교통처리 계획을 사전에 수립하는 등 도로이용 시 안전도 챙겼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장지동길 신설도로 개통으로 서울외곽순환 고속도로로 단절된 위례신도시와 송파서북부지역의 연계성이 확보됐다."며, "오랜 공사기간동안 불편을 인내하고 협조해주신 주민분들께 특히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이흥수/기자

강남구, 2023 강남 창업가거리 축제 START TRACK WEEK 개최

14일~16일 강남구, 아산나눔재단, 포스코, 한국엔젤투자협회 등 4개 창업기관 협력 축제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구가 14일부터 16일까지 역삼로 창업가 거리(역삼초사거리~구역삼세무서사거리)에서 '2023 강남 창업가 거리 축제 START TRACK WEEK'를 개최한다.

구는 역삼로 창업가 거리 일대 활성화 및 스타트업의 성장·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아산나눔재단, ㈜포스코, (사)한국엔젤투자협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2021년부터 강남 창업가거리 축제(START TRACK WEEK)를 개최하고 있다. 올해 축제는 지난해 10월 개관한 강남 취·창업허브센터를 중심으로 아산나눔재단의 '마루', 포스코의 '체인지업그라운드', 한국엔젤투자협회 '팁스타운'에서 스타트업 IR피칭 및 네트워킹, 스타트트랙투어, 인생네컷 등 다채로운 행사를 개최한다.

14일 강남 취·창업허브센터에서 열리는 개막식을 시작으로 IT전문기업 ㈜이포넷의 이수정 대표가 창업스토리와 나눔의 기업가 정신에 대한 강연을 개최한다. 또 외부 스타트업에게 센터 입주 기업을 소개하는 '비즈 매칭데이'를 실시한다. 15일은 고등학생부터 전문직까지 다양한 출신의 스타트업 대표 4인이 패널로 참석하는 '창업인사이트'가 열린다. 아울러 센터 입주기업에서 제작한 우수 독립영화 8편을 상영하는 '독립영화관'을 운영한다. 16일에는 스타트업과 청년 구직자의 만남의 장 '2023 강남구 스타트업 채용행사'를 연다.

마루에서는 14일부터 16일까지 '마루 콜렉트 팝업스토어'를 운영한다. 14일에는 푸드 크리에이터 박민지의 퍼스널 브랜딩 노하우 강연, 15일은 작가 쿤스트호이테의 개인전 'Growing Ground 자라나는 땅' 도슨트 관람 및 아티스트 토크, 16일에는 '바다숲 향을 담은 나만의 인센스 오브제 클래스'를 개최한다.

포스코 체인지업그라운드에서는 14일에 포스텍기술지주와 서울대기술지주사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2023 PR-Day'를 개최한다. 이 행사는 정보교류 기회가 필요한 기업들의 네트워킹을 돕고 유망 스타트업의 혁신성과와 인사이트를 소개한다. 16일에는 포스코와 SBA서울경제진흥원, 서울상공회의소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POSCO Biz-Day를 진행한다. 포스코 보육기업 및 팁스타운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포스코 6개 그룹사에서 비즈매칭 상담을 진행하며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VC네트워킹도 진행한다.

팁스타운에서는 15일 스타트업 관계자들이 모두 참여할 수 있는 '2023 팁스서밋' 컨퍼런스를 개최한다. 이 행사에서는 생성형 AI를 주제로 한 인사이트 강연 및 패널토론, 네트워킹 파티를 만날 수 있다. 16일에는 팁스타운의 대표 투자유치 프로그램인 '2023 제2회 팁스밋업(바이오·헬스케어)'을 실시한다. 투자 동향 강연, 기업의 투자전략 공유, 팁스창업기업의 IR피칭과 전문위원의 피드백 등을 진행한다.

이 밖에 각 기관 앞에 '인생네컷, 포토존'을 설치해 누구나 역삼로 창업가거리에서 포토존을 즐길 수 있다. 또 각 기관의 설립 취지와 공간에 대해 소개하고 기관별 질의응답 및 사진 촬영 시간을 갖는 '스타트 트랙 투어'를 운영한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이번 행사가 스타트업에게는 세계적인 유니콘 기업으로 도약하고, 구직자에게는 희망 기업과 만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관내 창업 지원기관 간 협력을 강화해 세계적인 창업의 메카 강남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동희/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경강선 연장과 경기남부 3호선 연장 포함돼야”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국토교통부장관 간담회에서 용인시 5개 현안 요청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9일 화성시 전곡항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국토교통부장관과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와의 간담회에 참석해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지하철·도로망 확충 등 용인 주요 현안들의 조속한 해결, 시스템 반도체 국가산업단지의 성공적 조성을 강조하며 국토교통부의 지원을 요청했다.

이 시장은 "용인특례시에 반도체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과정이나 도로망 확충 등 다른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국토교통부 공직자들이 매우 적극적으로 도와주려고 하는 데 대해 감사하다"며 "용인 발전과 국가산단 성공을 위한 여러가지 건의사항에 대한 자료를 준비했으니 원 장관께서 잘 살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시장이 원 장관에게 요청한 내용은 ▲경강선 연장사업과 서울 3호선 연장(경기남부광역철도)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신규사업 반영 ▲옛 경찰대·법무연수원 부지 개발 사업에 따른 실질적인 교통개선 대책 수립 ▲GTX 용인역 연계 SRT 정차 ▲‘택시사업구역별 총량제 지침’ 개정 ▲과천 방음터널 화재사고로 인한 가연성소재(PMMA) 방음터널 교체명령 이행을 위한 국비 지원 등이다.

이 시장은 자료에서 "용인 이동·남사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이 성공적으로 가동되려면 교통인프라의 중요 역할을 할 경강선 광주~용인 연장사업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오른쪽)이 9일 화성시 전곡항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국토교통부장관과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왼쪽)에게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이 시장은 또 ”성남 고등·금토·판교·대장지구~용인 수지구~수원 광교·권선·망포지구~화성 진안·태안·동화·봉담지구까지 이미 120만 명에 가까운 인구가 살고 있고, 향후 경기남부에 23만 여 명이 추가로 유입될 전망“이라며 ”용서고속도로는 이미 포화상태인 만큼 교통난 해소를 위해 지하철 3호선 연장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해 달라”고 했다.

이 시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조기 실행과 수도권 국민들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서 제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은 애초 계획인 2026년 7월보다 1년 정도 앞당겨 조기에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이 시장은 철도망 확충과 함께 용인 남사·이동·원삼 등을 잇는 반도체고속도로 건설과 반도체 관련 인력들이 생활할 공간인 배후도시 조성도 건의했다.

이 시장은 ”용인 이동·남사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를 중심으로 동쪽 원삼면의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서쪽 삼성전자 기흥캠퍼스와 화성·평택캠퍼스를 유기적으로 연결해 세계 최대 반도체메가클러스터가 조성될 수 있도록 화성 양감~용인 남사·이동·원삼·백암~안성 일죽을 잇는 반도체고속도로를 신속하게 건설하고, 반도체산업 종사자와 가족에게 쾌적한 정주 여건을 제공하기 위한 배후도시를 만들 필요가 있는 만큼 국토교통부가 적극 검토하고 지원해 달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원삼면 용인반도체클러스터 개발로 교통량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국지도 57호선(원삼~마평) 4차로 확장 등 용인특례시가 국토교통부에 제출한 노선이 제6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했다.

이 시장은 “옛 경찰대·법무연수원 부지 개발과 관련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6000여 세대 입주 계획을 세워놓고 있지만 주변 지역 교통은 심각할 정도로 포화상태에 있다. 교통영향평가를 다시 실시해서 실질적인 교통개선대책이 마련되는 가운데 시민 친화적인 개발이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용인특례시가 GTX 용인역을 연계한 SRT 정차를 위해 사전타당성 조사용역을 한 결과 GTX역에 SRT 정차가 가능하다는 결과를 얻어 국가철도공단, 국토교통부와 협의중”이라며 “GTX역에 SRT 정차 관련 공사가 같이 이뤄질 수 있도록 용인시의 용역 결과에 대해 신속하게 검증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시장은 ”용인특례시는 서울 면적의 98%나 될 정도로 큰 도시인데도 택시 면허대수는 절대적으로 부족해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는다“며 ‘제5차 택시 사업구역별 총량제 지침’ 수립시 총량조정 방식과 기준을 개정해 달라고 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 12월 과천 방음터널 화재사고 후 PMMA 소재 방음터널로 교체하도록 한 국토교통부의 행정명령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사업비 부족분(200억원 중 80억원)을 국비로 지원해달라고 했다.

이날 간담회에 앞서 진행된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 제3차 정기회의에는 경기도내 시장·군수, 부단체장 등 31명이 참석해 ‘친환경 수소버스 보조금 시·군비 부담 완화, 외국인 계절근로자 체류기간 연장’ 등 27건의 안건을 심의하고 처리했다.

최만식/기자

화성소방서, 화성뱃놀이 축제 119안전체험마당 운영

화성소방서는 화성 뱃놀이 축제 기간에 맞춰 전곡항 일원에서 9일부터 11일까지 운영한 119안전체험장이 방문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온 가족이 함께 안전을 배워 습관화하고 체험행사와 안전교육을 결합해 즐기면서 소방안전의식을 키우기 위해 마련됐다.

119안전체험마당은 이동안전체험차량을 이용해 화재진압체험, 지진체험, 교통사고 체험, 피난대피 체험, 영상시청 등 5개 체험 프로그램과 심폐소생술 부스를 운영하고 홍보물품을 제공하며 행사장을 찾은 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또한 행사 동안 안전을 위해 소방차와 구급차를 배치하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는 등 축제의 안전 지킴이 역할도 수행했다.

이정식 화성소방서장은 “더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역 축제와 연계한 119안전체험마당을 준비했다.”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안전체험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소방안전문화 확산에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양시현/기자

시흥시, '2022년 기준 광업제조업조사'...관내 1,707개 업체 대상 실시

시흥시는 오는 6월 15일부터 7월 21일까지 한 달간 관내 종사자 10인 이상 광업제조업 사업체 1,707개를 대상으로 ‘2022년 기준 광업제조업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매년 통계청 주관으로 전국 지자체에서 동시에 실시한다. 조사는 지역에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광업 또는 제조업으로 분류된 사업체를 영위하고 있는 10인 이상의 관내 모든 사업체를 대상으로 진행한다.

조사 항목은 ▲조직 형태 ▲종사자 수 ▲연간 급여액 ▲연간 출하액 ▲수입액 ▲영업비용 등 총 13개 항목이다.

조사 방법은 시가 임명한 조사원이 직접 방문해 조사표를 작성하는 면접조사 방식으로 진행한다. 응답자 편의를 위해 비대면 조사(전화, 인터넷조사)를 병행한다. 인터넷조사는 이달 15일부터 7월 7일까지 통계청 경제통계통합조사 누리집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조사 결과는 종합 내검 등을 거쳐 내년 1월 통계청에서 최종 공표한다. 이는 정부 정책 수립 및 산업연구 분석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시 관계자는 “조사된 내용은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에 의거 비밀이 보호되며 통계 작성의 목적으로만 사용되므로, 관련 사업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신우용/기자

가장 떠나고 싶은 인천 여름 휴양지는?

인천광역시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인천관광 활성화를 위한 온라인 이벤트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6월 12일부터 6월 30일까지 총 3주간 인천투어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되며, 지역 제한 없이 인천투어 홈페이지 방문자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인천의 여름 휴가지 중 가장 떠나고 싶은 장소는’ 이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온라인 이벤트는 인천의 여러 관광지 중 2022년 하계 휴가철 인천투어 홈페이지에서 많은 검색량을 차지한 4곳 중 한 곳을 선택하는 것이다.

이벤트 참여자는 ▲호캉스부터 특별한 요트 체험까지 가능한 영종도 ▲도심에서 즐기는 완벽한 휴가지인 경인아라뱃길과 드림파크 ▲엑티비티와 쉼을 모두 즐길 수 있는 강화도 ▲한국의 세렝게티라 불리는 무의도 중 한 곳을 선택할 수 있다.

시는 이벤트 참가자 중 100여 명을 추첨해 ▲편의점 모바일 상품권 ▲ 커피 기프티콘 ▲피자 기프티콘 등 다양한 상품을 증정할 계획이다.

당첨자는 7월 6일에 인천투어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시되며, 당첨자에게는 개별적으로 문자를 발송할 예정이다.

김충진 시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이번 하계 휴가철 맞이 인천투어 온라인 이벤트를 통해 관광도시 인천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광도시 인천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종남/기자

오산시 대표축제 ‘야맥축제’ 성료

전국 유명 36개팀 브루어리 참여… 400여종 수제맥주 선보여

오산시의 대표 축제인 ‘제9회 야맥축제’가 역대 최대규모인 12만 명의 관광객이 방문하며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2016년 1회로 시작해 9회째를 맞이한 이번 축제는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 오색시장에서 진행됐다.

전국 36개 브루어리에서 생산한 400여 종의 수제 맥주와 전통시장 먹거리 등이 어우러져 맥주를 즐기는 시민들과 많은 애호가들의 발길을 사로잡았다.

올해는 자유로운 클럽 분위기의 EDM 파티, 버스킹 공연 등 다양한 문화·예술 공연이 펼쳐지며 관광객들의 큰 호응이 이어지기도 했다.

이번 축제를 준비한 시 관계자는 “야맥축제를 찾은 절반 이상이 관외 관광객으로 파악된다”며 “아이들을 동반한 가족은 물론 나홀로 수제 맥주족까지 다양한 관광객들이 야맥축제만의 독특한 정취와 분위기를 즐긴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특히, 이번 축제는 오색시장 상인회(회장 천정무)가 주도적으로 추진한 행사로서의 면모를 인정받아 중소벤처기업부가 벤치마킹하기도 했다.

조주현 중기부 차관, 이상창 경기지방중기청장 등 관계자들은 축제 첫날 직접 방문해 이권재 오산시장과 축제 현장인 오색시장 곳곳을 둘러보며, 중기부 직원들과 즉석 호프미팅을 갖기도 했다.

조주현 차관은 “상인 스스로가 경영 위기를 극복하고, 인근 골목상권과 공생하는 모습을 봤다”며, “전통시장과 지역 골목상권이 다함께 성장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치켜세웠다.

야맥축제는 해마다 참여하는 관광객이 늘어나고 있고, 규모도 커지고 있어 오산시 대표축제로 자리 잡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권재 시장은 “야맥축제가 국내를 대표하는 수제 맥주 축제로 거듭나 지역 상권 활성화의 우수한 사례가 되고 있다”며, “야맥축제를 통해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올 하반기 크리스마스마켓도 진행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야맥축제와 같은 차별화된 콘텐츠를 육성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천정무 오색시장 상인회장은 “오산오색시장이 9회째 야맥축제를 이어오면서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수제맥주 축제로 자리매김했다”며, “앞으로도 젊은이가 찾는 전통시장이 될 수 있도록 많이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양시현/기자

안성시, 2023년 화랑훈련 실시

“12일~16일 全 국가방위요소가 참여하는 통합방위훈련 실시”

안성시는 6월 12일부터 16일까지 ’2023년 화랑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화랑훈련은 군이 주도하여 후방지역의 통합방위절차 숙달 및 지역주민 안보의식 고취를 위해 민·관·군·경 전 국가방위요소가 참여하여 2년마다 실시되는 통합방위훈련이다.

시는 지난달 31일, 올해 화랑훈련의 성공적 실시를 위해 안성시 지역 안보 책임자 10명이 참여한 가운데 김보라 안성시장 주재로 ‘23년 2분기 통합방위협의회를 개최하여 훈련 참여기관 간 준비·협조사항을 공유했다.

훈련 1~2일차에는 대테러 및 대침투 상황을 시작으로 경기도 통합방위사태가 선포되며 3~4일차에는 전시전환 및 전면전이 진행된다. 훈련 4일차인 15일에는 국가방위요소인 육군 55사단 예하 2대대, 안성경찰서, 안성소방서가 참여하여 안성시 소재 중요시설인 신안성변전소에서 실제 방호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훈련에서 시는 임병주 부시장을 본부장으로 한 통합방위지원본부를 운영하여, 전시 상황에 대한 대응 훈련을 진행한다.

시 관계자는 “화랑훈련이 그간 코로나19등으로 4년 만에 재개되는 만큼 훈련기간 실제 병력과 장비가 이동할 수가 있어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할 수 있으니, 양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양시현/기자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광주중기제품박람회 성료

광주시는 8일부터 11일까지 4일간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광주하남상공회의소 주관으로 개최한 ‘제13회 광주중소기업제품박람회’가 성황리에 종료됐다고 밝혔다.

올해 박람회는 특히 기존의 개최장소였던 곤지암도자공원이 아닌 수도권 대형전시장에서 개최함으로써 광주 중소기업제품의 우수한 품질과 경쟁력 있는 가격, 쾌적한 전시 환경 등 박람회장을 찾은 관람객과 참가기업에도 큰 호응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박람회가 진행되는 4일간 주최측은 각종 체험이벤트 및 버스킹 공연 등 볼거리, 체험거리를 제공했으며, 가구를 비롯한 식품·생활·전기전자 분야의 광주시 제조 중소기업 제품의 우수성을 수도권 소비자에게 알리는 동시에 온라인 마켓플랫폼 등 국내 판로를 확장하는 기회가 됐다.

시 관계자는 “기업이 살아야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가 살 수 있다. 이번 박람회가 광주시 소재 중소기업에게 브랜드 인지도 향상과 더불어 국내 판로개척의 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강호/기자

광명시, 철도건설법 개정건의… 지자체장 협의 의무화 내용 담아

차량기지 이전 시 해당 지자체장과 협의 의무 규정 신설 내용으로 개정안 건의

광명시가 구로차량기지 광명 이전과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아 철도건설법 개정을 건의했다.

광명시는 국가철도망계획 수립 시 시.도지사와 협의하도록 한 현행 철도건설법 규정(제4조제3항)에 ‘차량기지를 이전할 때는 해당 지자체장과 협의해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한 개정안을 경기도에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

최근 정부가 구로차량기지 광명 이전을 추진하면서 광명시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아 반대에 부딪혀 결국 사업이 무산된 만큼 앞으로는 주민 생활과 밀접한 차량기지 이전 시에는 해당 지자체와 직접 협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게 광명시의 의견이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광명시민들은 철도망 구축 등 실질적인 혜택이 없이 오로지 기피시설을 막기 위해 밤잠을 설치고 가슴을 졸여야 했다”며 “다른 지역 시민들은 이와 같은 피해를 겪지 않았으면 한다”고 건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지역 발전과 삶의 질은 지역주민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차량기지 등 기피 시설 이전만이라도 지역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과정을 제도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구로차량기지 광명 이전 사업은 추진 과정에서 주민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아 수많은 민-민 갈등, 지역 간 갈등을 빚었다. 18년 동안 타당성 조사만 3차례 실시하다가 지난 5월 9일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지 못해 결국 무산됐다.

윤용민/기자

고양시, 공모사업으로 도서관 인문학·체험 프로그램 풍성

공모사업 다수 선정돼 예산절감…상반기 국비 1억5천만원 확보

고양특례시 도서관센터는 매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최하는 다양한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비지원을 확보하고 양질의 인문학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올해는 4개 사업에 7개 도서관이 선정돼 국비 약 8천9백만 원을 확보했고 경기도 등 공모사업 지원금 약 6천6백만 원을 지원받아 다양하고 질 높은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강연·탐방으로 가깝게 만나는 인문학, '길 위의 인문학'

'길 위의 인문학'은 한국도서관협회에서 주관, 지역 도서관을 거점으로 강연, 탐방(체험) 연계 프로그램을 지역주민에게 제공하는 사업이다. 올해 고양시에서는 화정, 삼송, 대화, 일산도서관이 선정돼 국비 약 4천4백만 원을 확보했다.

화정도서관은 '책 속에 핀 꽃 – 꽃으로 문학과 예술을 읽다'를 주제로 신화, 시, 소설, 그림 등 다양한 주제 속에 존재하는 꽃 이야기들을 펼쳐 놓을 예정이다. 인문학 강좌 외에도 박완서 작가의 생가를 방문하여 독자들과 함께 호흡하고자 했던 작가의 흔적을 느껴본다. 미국의 국민화가로 불리는 에드워드 호퍼의 '길 위에서' 전시회를 둘러 본다.

삼송도서관에서는 2021년부터 2022년까지 '나를 위한 글쓰기'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시민 호응과 만족도가 매우 높았던 프로그램으로, 올해는 '시 창작'으로 글쓰기 범위를 좁혀 '나를 바꾸는 시 이어쓰기'를 운영한다. 시 창작은 물론 시인과의 만남, 시집 서점 탐방, 시화 그리기까지 진행한다.

올해는 운영 3년째를 맞아 결과물의 완성도를 높이고, 내가 중심이 되는 글쓰기를 중심으로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성찰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대화도서관은 2016년부터 올해까지 8년 연속으로 '길 위의 인문학'사업에 선정됐다. 올해는 '인생의 사계 – 시작, 젊음, 중년, 황혼'을 총11회에 걸쳐 운영한다.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다소 무겁지만 한번쯤은 생각해 봤던 질문을 시작으로 건강과 중용, 죽음 등의 주제를 심도 있게 다룰 예정이다. 지나간 삶을 돌아보고, 현재를 바라보며, 미래를 준비 할 수 있는 길잡이가 될 프로그램 이다.

수준 높은 인문학 여행, 도서관 상주작가, 심화프로그램 운영 주엽어린이도서관은 올해도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주관하는 '2023년 도서관 상주작가 지원 사업' 공모에 선정돼 국비 약 1천8백만 원을 지원받는다. 이 사업은 작가가 도서관에 상주하면서 문학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하고, 도서관은 작가의 작품 집필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주엽어린이도서관은 '2022년 상주작가 지원사업' 최우수도서관상(장관상)을 수상하며, 지역주민들의 인문학적 호기심을 충족시켜 주었다. 올해도 김흥식 그림책작가를 상주작가로 선정, 오는 9월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작가와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할 계획이다.

행신도서관은 '도서관 지혜학교'공모에서 '러시아 문학에서 배우는 삶의 지혜', '조선왕조 오백년 회화사' 프로그램이 선정됐다. 도서관 지혜학교는 신중년 세대의 주체적인 인문 활동을 지원하는 심화 프로그램으로, 인문학을 통해 풍요로운 인생 2막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돕는다. 올해는 러시아 문학과 조선의 미술사를 심도 있게 들여다보며 삶의 지혜를 찾는데 집중한다.

'러시아 문학에서 배우는 삶의 지혜'는 러시아 대문호 도스토옙스키와 톨스토이의 대표작 중 장편 소설을 12회에 걸쳐 심도 있게 풀어낸다. '조선왕조 오백년 회화사'는 '조선미술관'의 저자 탁현규 작가가 하반기에 진행할 예정이다.

특성화 도서관 확대, 다양한 프로그램과 연구논문 발간

올해 '2023년 특화도서관 육성지원 사업'공모사업에는 화정도서관이 선정됐다. 꽃의 도시 고양을 대표하는 꽃 특성화 도서관으로, 은빛공원이 인접한 지리적 특성도 고려됐다.

초등학생부터 성인까지 대상의 폭을 넓히고, 원예치료, 꽃을 소재로 한 작품 완성, 원예실내장식(플랜테리어), 호수공원 탐방까지 다양한 주제로 꽃에 대해 깊이 있는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시는 그동안 꽃, 예술, 향토문화, 세계 그림책 특성화 도서관을 조성한 경험을 살려 고양시의 특징과 시민의 관심사를 반영한 특성화를 확대할 방침이다. 특성화 추진과정에서 시민특강, 벤치마킹, 토론회를 개최하고 전 과정을 기록한다. (사)공공도서관협의회 공모사업에 선정돼 연구논문 발간도 지원받는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시민들이 도서관을 통해서 책과 만나고 다채로운 지적 경험을 넓혀갈 수 있도록 수준 높은 강연, 체험 프로그램들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영기/기자

마을공동체 활동가 만난 김동연, "깨어있는 시민의 힘, 사회 변화 일으키는 '아래로부터의 반란'"

10일 경기도 마을공동체지원센터 '2023 경기마을주간 행사장 방문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마을공동체 활동가들을 만나 "마을공동체와 사회적기업 같은 깨어있는 시민의 힘이 우리 사회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 그것이 바로 '아래로부터의 반란'"이라며 응원했다.

김동연 지사는 경기도 마을공동체지원센터가 10일 오후 경기도 구청사 잔디마당에서 개최한 '2023 경기마을주간 행사 현장'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김 지사는 마을공동체 관계자들을 만나 "경기도가 기후환경에너지국, 사회적경제국, 축산동물복지국을 만들었더니 기후변화나 환경문제에 관심 있는 시민단체나 사회적 기업들이 전부 경기도로 오고 있다고 한다"라며 "좋은 현상이라고 본다.

경기도는 다른 어떤 광역지자체보다 비중이 크기 때문에 우리가 좋은 본을 보이면 중앙정부도 결국 따를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격려했다.

이날 행사는 경기도 전역에서 활동하는 마을공동체들이 한자리에 모여 마을활동가의 날을 통해 서로의 마음을 잇는 소통과 교류의 장이다.

이웃 주민들에게 공연과 재능기부를 해온 기타 동호회부터 다양한 가족들이 공감과 소통의 하모니를 만든 합창단, 숲속 마을 아빠들의 열정과 꿈이 담긴 밴드에 이르기까지 경기도 곳곳에서 공동체 활동을 펼쳐온 참가팀들이 평소 갈고닦은 실력을 선보였다.

지난 8일부터 시작된 '2023 경기마을주간 가자, 마을가는 대로!'는 이날 마을 뮤직페스티벌을 끝으로 막을 내렸다. 마을공동체 활동의 사회적 가치를 확산하고 지속가능한 활동을 지원하는 방법을 모색하기 위한 경기마을주간 행사에서는 마을 활동·마을 공동체 지원 관련 포럼과 강연, 마을활동 혁신사례 발표, 컨퍼런스, 전시 홍보와 체험 참여 프로그램 등이 다양하게 진행됐다.

2023 경기마을주간 행사의 자세한 정보는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흥수/기자

평택시, 제2회 반려동물 열린 문화교실 개최

펫티켓 문화 조성과 반려동물 행동교정 등 교육에 초점

평택시는 지난 10일 평택시청 앞 광장에서 반려동물을 동반한 시민 약 500명이 참여한 2023년 반려동물 열린 문화교실을 성황리에 마쳤다.

이번 행사는 평택시가 주최하고 (사)유기견없는도시에서 주관했으며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정착을 위해 매년 개최하고 있다.

올해 행사에서는 강성호 반려견 스쿨 대표의 특별 세미나를 비롯한 진료·미용 세미나와 이름표, 수제간식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시민과 반려동물이 함께 교감하고 즐길 수 있게 했다.

특히, 평택시 수의사회와 함께 진행된 1:1 행동상담 프로그램은 많은 시민이 참여하기 위해 줄을 서는 등 뜨거운 호응을 보였다.

시에서는 현재 반려견 놀이터 6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하반기에는 신장동에 반려견 놀이터 1개소를 신규 개장할 예정이며, 직영 동물보호센터 건립과 반려동물 테마공원 조성을 추진하는 등 반려동물 친화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동물복지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정장선 시장은 "반려견 두 마리를 기르고 있어 이러한 행사를 뜻깊게 생각하며, 앞으로 반려동물과 관련된 행사를 권역별로 다양하게 개최하여 많은 시민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양시현/기자

고양시, 2023 대한민국 독서대전, 작은도서관과 함께 '책과 질문 사이에' 운영

고양시가 '2023 대한민국 독서대전' 개최를 기념해 지역 내 작은도서관 28개소와 협력해 6월부터 9월까지 강연과 체험 프로그램인 '책과 질문 사이에'를 운영한다.

'책과 질문 사이에'는 고양시의 공립, 사립 작은도서관과 함께 진행한다. 프로그램은 작은도서관마다 각기 다른 강점과 개성을 살려 진행된다.

'책과 질문 사이에'는 '한 책 읽기 캠페인', '책과 질문 사이에 북큐레이션', '책과 질문 사이에 연계 강연 및 체험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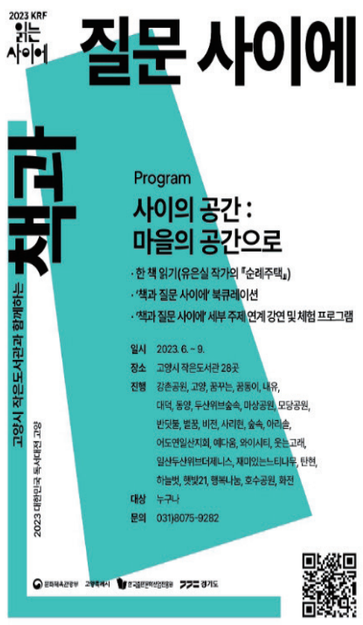
강촌작은도서관 등 28개 도서관은 전시 및 필사 등 '한 책 읽기' 캠페인을 펼친다. 함께 읽을 책은 고양시작은도서관협의회 회원의 투표로 유은실 작가의 '순례 주택'이 선정됐다. 책의 저자인 유은실 작가와의 만남도 9월 13일 수요일 오후 2시에 모당공원작은도서관에서 개최된다.

'책과 질문 사이에 북큐레이션'은 ▲행복한 하루의 시작을 기대하나요? ▲이대로 괜찮을까요? ▲당신은 이 책을 읽었다고 확실할 수 있나요? 등 6개 세부 질문을 던지는 도서 전시로 진행된다.

'책과 질문 사이에 연계 강연 및 체험 프로그램'으로는 사계절 종이꽃 만들기, 북아트, 동화 읽기와 독후활동, 팝업북 만들기, 썬캐쳐 만들기, 걷는 독서 인증, 호수공원 드로잉 등 24개의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지역공동체의 거점 역할을 수행하는 작은도서관이 2023 독서대전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시민들이 자연스럽게 독서대전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시립도서관뿐만 아니라 작은도서관, 지역서점, 출판사 등 고양시 책 문화 생태계 내 여러 주체와 함께 축제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한영기/기자



수원 일월수목원에 옮겨심은 멸종위기 희귀식물 '해오라비난초', 처음으로 개화

수원시 일월수목원에 식재한 희귀식물 '해오라비난초'가 지난 5일 처음으로 개화했다.

수원시는 칠보산에 자생하는 멸종위기식물 해오라비난초를 안정적으로 '현지외 보전1) '하기 위해 국립수목원과 협력해 일월수목원 주제정원 산림습원에 대체서식지를 조성한 바 있다.

해오라비난초는 산림청 선정 희귀식물로 국가적색목록에 위급(CR)으로 평분류된 멸종위기식물이다. 해오라비난초의 개화 시기는 7~8월인데, 일월수목원 산림습원에서는 조금 일찍 만나볼 수 있다.

수원시공원녹지사업소 관계자는 "일월수목원 대체서식지 조성으로 해오라비난초 보호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도가 높아지길 바란다"며 "해오라비난초 개화를 계기로 수목원의 고유 역할인 식물종 연구·보전 사업을 지속해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만식/기자

안양사이버과학축제에 모인 로봇들…축구도 춤·노래도 '척척'

20돌 맞은 과학축제에 4만1천여명 방문…국제과학문화교류관·열기구 등 행사

높이 2.4미터, 중량 60kg의 거대한 영국 엔터테이너 로봇인 '타이탄(TITAN)'이 무대에 등장하자 관객들의 탄성이 쏟아져 나왔다.

10~11일 안양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제20회 안양사이버과학축제에서는 로봇을 주제로 한 다양한 공연과 체험 및 전시가 진행됐다. 이틀 동안 열린 축제에는 관람객 총 4만1천여명이 방문해 성황을 이뤘다.

타이탄은 영어, 한국어 등 다양한 언어로 노래와 농담을 선보이고, 춤 실력을 뽐냈다. 관객석으로 성큼 다가가 기습적으로 눈물 물총을 발사하는 등 장난을 치며 분위기를 한껏 띄웠다.

이번 축제에서는 특히 경기도에서 처음으로 미국·영국·싱가포르·일본 등 4개국의 로봇팀이 참여한 국제과학문화교류관을 선보였다.

미국 로봇팀이 선보인 '강아지 로봇'은 액정으로 강아지의 표정을 나타낼 뿐 아니라 걷기, 엎드리기, 다리들기, 소변보기 등 실제 훈련된 강아지같은 모습을 보여주며 아이들의 사랑을 듬뿍 받았다.

미국 로봇대회인 로보게임즈(RoboGames)의 설립자인 데이비드 칼킨스(David Calkins)도 이번 축제에 직접 방문해 "참여한 학생들이 나이가 어린데도 불구하고 수준이 굉장히 높아 놀랐다"면서 "다양한 체험과 전시, 공연이 진행돼서 감명깊었다"고 말했다.

싱가포르의 코딩 축구 로봇, 일본의 글씨쓰기 로봇 등도 제각각 자신의 능력을 뽐내며 박수를 받았다.

안양사이버과학축제는 로봇대회 뿐 아니라 코딩대회, 과학탐구체험관, 정보화체험관 등 분야별 각종 체험과 전시가 열렸다. 한재권 한양대 로봇공학과 교수와 문경수 탐험가의 특별강연에도 많은 관객이 참석해 귀를 기울였다.

이날 행사장 앞에는 열기구를 탈 수 있는 체험도 열려 눈길을 끌었다. 이 밖에도 온 가족이 함께 퀴즈를 풀어보는 '퀴즈볼 스마트 퀴즈쇼', 조정래 마술사의 '사이버 매직쇼'등 다채로운 행사가 열렸다.

최대호 안양시장은"안양사이버과학축제는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기술을 선보이는 중요한 플랫폼"이라며 "청소년들에게 과학에 대한 흥미를 불어넣고 미래를 이끌 리더를 양성하여 스마트 과학도시 안양 만들기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만식/기자

대구에서 국가 평생교육 백년지대계 미리 본다

대구행복진흥원,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위원회 이배용 위원장 초청 특강

대구에서 국가 평생교육 백년지대계를 미리 엿볼 수 있는 특별한 강연이 열린다.

대구광역시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원장 정순천)은 오는 21일 대구시청 산격청사 대강당에서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위원회 이배용 위원장 초청 특강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가교육위원회는 대한민국 10년 단위 국가 교육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교육정책의 방향을 결정하는 대통령 직속 행정위원회로 △대학입시제도 개편 △지방대학 발전 △전인교육 △직업·평생교육 △미래과학인재양성 등 5개 특위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강연에 나선 이 위원장은 교육인이자 역사학자로 이화여자대학교 13대 총장, 한국대학교육협의회 15대 회장, 한국학중앙연구원 16대 원장 등을 거쳐 현재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직을 수행하고 있다.

평생교육 관계자 역량강화 사업의 일환으로 열리는 이번 강연은 '평생교육과 역사의식'이라는 주제로 평생교육기관 관계자 30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아울러 이날 참석하는 평생교육기관은 행복진흥원과 대구시의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협력 기관임을 인증하는 현판도 수여받게 된다.

지역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기관 및 관계자는 모두 참석이 가능하며 구글폼을 통해 무료로 신청할 수 있다.

행복진흥원 정순천 원장은 "이번 행사는 제5차 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2023~2027년) 중 핵심과제인 '평생학습을 위한 국가-지자체-민간 협력체계를 구축'을 위한 대구시와 행복진흥원의 실천적인 노력의 첫걸음이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윤근수/기자

남해대교 개통 50주년 기념행사 개최

"남해대교와 함께 한 50년, 함께 할 미래의 100년"

남해군은 남해대교 개통 50주년을 맞이해 오는 6월 22일 오전 10시 30분부터 남해대교 및 남해각 일원에서 남해대교 개통 50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남해대교는 1968년 5월에 공사를 시작하여 1973년 6월에 준공됐다. 남해군 설천면 노량리와 하동군 금남면 노량리를 연결하는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현수교다. 건립 당시에는 동양최대 규모를 자랑했다. 남해군이 관광도시로 부상하는 출발점이기도 했으며, 지난 50년 동안 남해군민의 사랑을 받아온 다리다.

개통 50주년 기념행사는 팝페라 등 식전 공연에 이어 '공군군악대의 행진곡과 함께하는 남해대교 걷기행사'로 장식된다.

'남해대교 걷기행사'는 다리를 한번 건너면 무병장수한다는 이야기로 인해 인산인해를 이루었던 개통 당시의 장면의 재현하기 위한 이벤트다.

다리걷기 행사는 안전을 위해 행사 전까지 사전접수를 한 신청자만 참여가 가능하다.

QR 마크를 통해 신청하거나 남해군청 관광개발팀으로 문의 신청하면 된다.

특히 설천면 노량상가번영회 주축으로 남해대교의 50주년 '생일'을 기념하는 '미역국 DAY'가 펼쳐지는 등 주민과 함께하는 행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노량상가번영회 식당들이 솔선수범하여 밑반찬으로써 미역국을 제공할 계획이다.

노량상가번영회 김원태 회장은 "우리 설천면은 남해대교와 50년 동안 같이 해왔다. 남해대교의 생일날을 영원히 국민들이 기억해 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행사를 준비했다. 많이 오셔서 남해대교의 생일을 축하해 주시고 아름다운 풍광을 즐기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중구 관광진흥과장은 "우리 남해인의 자랑이었던 남해대교가 개통된 지 50년을 맞아 단순히 행정에서 추진하는 기념행사가 아닌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관광객들이 편하게 즐길 수 있는 뜻깊은 자리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용준/기자

낭만이 흐르는 '영주 문화의 거리'…"함께 걸어요"

바닥정비, 조명설치 등 문화의 거리 5구간 정비사업 완료

영주시는 지난해 말 착공한 '문화의 거리 5구간 정비사업'을 6개월 만에 말끔히 단장을 마치고, 새로운 모습으로 손님맞이에 나섰다.

12일 시에 따르면 이번에 새롭게 탄생한 구간은 가장 유동 인구가 많은 5구간(파리바게트 영주점~랜드로바 구간)으로, 우선 노후 된 보도블록을 화강석 판석으로 새롭게 정비했다. 이와 함께 광섬유 조형물 및 바닥 설치, 석재를 활용한 휴게형 화단, 막구조 파고라, 야외 소무대 등 산뜻한 거리로 모습을 바꿨다.

또한 청단풍 황금사철나무를 심고 화단을 재정비해 시민들이 편안하게 휴식할 수 있는 휴게공간을 제공하고, 은은한 조명을 설치해 밤에도 아름다운 풍광을 즐길 수 있도록 꾸며 걷고 싶은 거리로 조성했다.

5구간은 특히 문화의 거리 조성 시부터 차 없는 거리로 운영되어 시민들의 많은 사랑을 받아온 곳으로, 이번 공사 시작에 앞서 상인연합회에서는 차량 통행 제한 해제와 일반 통행로 개설을 요청했으나 문화의 거리 상권 활성화 연구용역과 주민설명회를 통해 이해와 참여를 이끌어 차 없는 거리로 지속 운영하기로 뜻을 모았다.

영주1동은 영주의 중심 상권 지역으로 기능을 해왔으나 상권의 변화로 유동 인구가 점차 줄고 있는 상황으로, 문화의 거리 정비를 통해 중심 상권 회복은 물론 시민의 삶의 질을 높여 새로운 생기와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시는 이번 5구간 정비사업을 시작으로 문화의 거리 전체 구간을 대상으로 정비사업을 점진적으로 추진해 시민과 관광객이 찾아와 머물고 즐기면서 쇼핑할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상권을 창조해 나갈 계획이다.

이대희 문화의 거리 상인회장은 "2009년 이후 새로운 정비가 필요했던 문화의 거리가 아름다운 거리로 재탄생되어 기쁘다"며 "시민들과 관광객들이 휴식 공간과 문화공간을 이용하면서 거리 상권이 점차 활성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남서 영주시장은 "공사기간 동안 먼지와 소음 등의 불편함을 이해해 주신 시민들과 상인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라며 "아름다운 거리 조성을 통해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은 물론, 지역경제에도 새로운 바람을 불어 넣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영주시는 영주동 중심 상권 회복을 위한 정비사업 외에도 도시재생사업, 새뜰마을사업 추진 등 지역 주민들의 정주환경 개선과 상권 회복 사업을 정책적으로 추진해 대내외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윤근수/기자

문경시, 2023년 어울림한마당 행사 개최

한국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 문경지회에서 준비한 찾아가는 어울림한마당 행사가 6월 9일 오후 6시 가은읍 천변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그동안 어울림한마당 행사는 구도심을 활성화하고 상권을 살리기 위해 문화의 거리에서 다양한 문화예술 공연을 열어왔다. 그러나 이번 어울림한마당 행사는 문화행사를 접하기 어려운 읍·면 지역의 문화 향유 기회 제공을 위해 순회공연을 기획하여 직접 찾아가 행사를 진행한다.

가은읍에서 개최된 찾아가는 어울림한마당 행사는 라인댄스와 색소폰 등 가은읍에서 활동 중인 동아리의 식전공연을 시작으로 개회, 읍민 노래자랑(15팀) 순으로 진행됐다.

또, 공연장 밖에서는 새마을회에서 준비한 먹거리 부스 운영 등으로 풍성한 행사가 됐다.

박희업 한국예총 문경지회장은"오늘 고단했던 일은 잊고 모두 신나게 노래도 부르고 재밌는 공연도 보면서 즐겁게 화합하고 소통하는 행복한 하루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오늘처럼 주민 여러분이 참여하고 즐길 수 있도록 문화예술행사를 기획해 확대하도록 노력해보겠다."고 말했다.

신현국 문경시장은"즐거운 시간을 보내면서 쌓였던 일상의 스트레스를 날려 버리고 생활의 활력을 얻길 바란다."며 "주민 여러분이 한자리에 모여 흥겨움을 나누는 자리인 만큼 가은읍민의 소통과 화합에 소중한 밑거름이 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다음 찾아가는 어울림한마당 행사는 6월 13일 화요일 호계면민을 대상으로 호계면 보건지소 앞에서 개최할 예정이며, 6월에서 8월에 14개 읍·면·동을 찾아가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윤근수/기자

울진군, 농어촌버스 전기저상버스 운행

경상북도 군부 최초 전기저상버스 도입

울진군은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해 10일부터 경상북도 군부 최초로 '농어촌버스 전기저상버스'를 운행한다.

전기저상버스 운행에 앞서 9일 성공적인 운영을 위한 전기저상버스 시승행사에서 울진군수, 군의장 등 관계자들이 버스 승강장에서 직접 탑승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에 운행하는 전기저상버스는 차내 소음과 진동이 적어 편안한 승차감을 제공하고 기존 버스 대비 차체가 낮아 편리한 탑승이 가능하며, 디젤차량 대비 운영비 절감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울진군은 내년에도 예산 확보를 통해 전기저상버스를 추가 도입할 예정이며, 향후 농어촌 버스 전체를 전기저상버스로 교체 운영할 계획이다.

손병복 울진군수는 "친환경 전기저상버스 운행으로 어르신, 장애인 등 교통약자 이동권 증진에 크게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교통약자의 교통 편의를 위해 향후 전기 저상버스를 점진적으로 도입해 선진 대중교통 군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장문화/기자

국제회의 '제30회 국제내연기관협회(CIMAC) 세계총회' 부산에서 개최

6.12 10:00 개막식에서 부산시 이성권 경제부시장 2030부산세계박람회 지지 요청 예정

부산시는 내일(12일)부터 6월 16일까지 5일간 벡스코 오디토리움, 컨벤션홀에서 '2023 제30회 국제내연기관협회(CIMAC, Conseil International des Machines a Combustion) 총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제30회 국제내연기관협회 세계총회는 지난 2018년 부산시, 부산관광공사, 벡스코와 한국선박내연기관협회가 공동으로 노력하여 2022년 부산 개최 유치에 성공했으나, 그동안 코로나19 유행으로 연기되다가 올해 개최하게 됐다.

이번 총회는 12일 오전 10시 개막식을 시작으로 내연기관 및 관련 부품의 전시회와 최신기술 학술대회(학술발표, 패널토의 등)가 열리며, 전 세계 38개국 800명 이상의 내연기관 전문가가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부산을 비롯한 동남권은 세계 선박용 내연기관 시장에서 절대 우위에 있는 선박엔진 완성품 업체들과 부품 전문기업들이 다수 있어 이번 총회에 대한 기대가 크며, 한국 기업들과 경쟁하는 중국과 일본의 내연기관 관련 기업들이 다수 참여하여 치열한 기술 경쟁의 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전 세계적인 조선업의 활황 속에 한국 조선업계는 선박 배출가스와 선박 연료유 규제 등 엄격한 국제 규정의 변화에도 즉각 대응이 가능한 세계 1위의 친환경 선박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 선박용 엔진 산업 관련 기업과 연구자들이 우리 기술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제내연기관총회 안광헌 회장은 "코로나19 대유행으로 3년 주기의 예정된 개최에서 1년이 연기됐으나, 전 세계 내연기관 기업과 연구자들의 열망에 따라 부산에서 개최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이번 총회와 학술대회 개최가 부산 내연기관 관련 부품산업 육성과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부산시 이성권 경제부시장은 "한국선박내연기관협회의 노력으로 국제회의를 부산에 유치하고 개최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라며, "아울러 이번 총회에 유럽을 비롯한 세계적인 관련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만큼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홍보에 중요한 기회로 삼겠다"라고 밝혔다.

송종진/기자

영천시, 청소년참여기구 연합 워크숍 성황리 개최

영천시는 지난 10일부터 11일까지 1박 2일간 보현산별빛테마마을에서 지역을 대표하는 관내 청소년 47명이 참가한 가운데 '2023년 청소년참여기구 연합 워크숍'을 개최했다.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상담복지센터 3개 시설과 청소년참여·운영위원회로 구성된 청소년참여기구는 지역 청소년 정책 결정 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자문·평가해 청소년 시책의 실효성 제고 및 권익증진을 도모하는 지역 최고의 청소년활동 자치기구이다.

청소년참여기구는 5월 발대식을 시작으로 정기회의, 행사기획 및 운영, 교류활동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워크숍 첫날은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지역 인구소멸에 대응하는 청소년 맞춤형 인구교육, 컬러 테라피, 각종 사회적 이슈와 현안사항에 대한 분임토의 및 해결방안 모색 등 주도적인 청소년 활동에 필요한 역량강화 교육을 진행했다.

둘째 날 참가자들은 아침식사 사수 기상미션, 지역 체험명소인 보현산댐 짚와이어 체험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위원들 간 관계를 형성하고 친목을 다질 수 있는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최기문 영천시장은 "워크숍을 통해 지역 대표 청소년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함양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 됐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굴해 지역사회 내에 청소년 활동이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어 참여자들의 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한반식/기자

제18회 독도지키기 울릉도 전국 마라톤 대회 개최

제18회 독도지키기 울릉도 전국 마라톤 대회가 약 400여명의 선수들이 참여한 가운데 오는 6월 11일 울릉군에서 개최된다.

울릉로타리클럽과 세계일보에서 주최하는 독도지키기 울릉도 전국 마라톤 대회는 우리민족의 섬 독도를 지켜낸 독도의용수비대의 숭고한 애국심을 되새기고, 독도가 우리 영토임을 세계에 알리기 위하여 시작됐다.

대회코스는 모두 울릉문화예술체험장(구 장흥초)에서 출발하며, 울릉순환로를 시계방향으로 달려 섬을 일주하는 풀코스(42.195km)와 풀코스와는 반대방향으로 달려 각 반환점으로부터 되돌아오는 하프코스(21.0975km)를 비롯한 10km, 5km의 단축코스로 운영하여 진행된다.

또한 지난 8일 대회의 안전을 위하여 경찰 및 자원인력을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했으며, 참가자에 대해서는 대회 중 발생 가능한 사고를 대비하여 전원 보험에 가입했다.

남한권 울릉군수는 "울릉도를 찾은 선수들과 관광객들이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마음껏 즐기며, 기록을 떠나 한 분도 다치는 일 없이 끝까지 완주하시길 응원한다"며 많은 이들의 참여를 당부했다.

정헌종.조강제/기자

경북도 울릉군, 한동대 글로벌그린 캠퍼스 운영으로 지역 인재양성 나선다!

경북도↔울릉군↔한동대↔울릉고, 글로벌그린 U시티 협약체결

경북의 힘으로 새로운 대한민국

경북도는 12일 울릉군에서 한동대학교, 울릉고등학교와 함께 '글로벌그린 U시티 프로젝트'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 주요 내용은 △대학은 지역사회와 지역산업에 필요한 지역특화형 인재양성과 글로벌그린산업 기반 기업 및 기관 유치 지원 △고등학교는 대학과 연계한 현장실습 공동교육 및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운영 △지방정부(경북도, 울릉군)는 교육기반 구축 및 정주여건 향상 등 행정·재정적 지원을 총괄한다.

한동대는 학생 충원율 117.3%, 미국변호사 575명 배출 등 학생 만족도 1위, UN 인정 글로벌 협력대학으로 오늘 협약을 통해 글로벌그린 울릉캠퍼스 운영을 위해 경북도, 울릉군과 함께 협력해 나갈 방침이다.

한동대는 울릉 지역혁신학기제를 통해 매학기 본교 20명을 울릉도 현장학기를 운영해 지역학생과 공동으로 현장중심 문제해결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또 글로벌로테이션 프로그램으로 미국 테일러대, 킹스 칼리지 등 글로벌 교류 대학에 재학생 및 지역 초중고 학생 해외현장 교육도 실시한다.

학생·지역민·관광객을 대상으로 영어·그린·IT교육, 아동·여성·어르신 심리상담 등 지역민을 위한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운영할 계획이다.

앞으로 그린아일랜드 울릉도의 발전을 위해 글로벌그린 리딩기업, 국제기구 등과 협업을 통해 그린투어리즘, 그린컨퍼런스 등을 추진해 100만 관광시대를 열어나갈 계획이다.

한편, 경북도는 지금까지 4개 시군과 U시티 프로젝트 협약을 추진한 바 있다.

포항시는 이차전지(양극제)산업을 기반으로 포항공대·한동대와 협력하고, 구미시는 반도체산업을 기반으로 금오공대·구미대와 협력한다.

의성군은 세포배양산업을 기반으로 영남대와 협력하며, 봉화군은 바이오메디산업을 기반으로 대구가톨릭대학과 협력해 기업과 함께 인력양성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

경북도는 올해 10월까지 22개 시군별 U시티 프로젝트를 통해 지역전략산업을 기반으로 기업수요 맞춤형 일자리를 창출하고 시군-대학-기업이 함께 인력양성체계를 구축해 청년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클라인가르텐, 셰어하우스 등 주거조성과 의료·교육·문화·복지 등 정주 인프라를 마련할 방침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22개 시군에 U시티를 조성해 청년의, 청년을 위한, 청년 중심의 도시를 만들어 지역대학을 나와 지역기업에 취업해 대기업만큼 연봉을 받아 수도권같이 누리고 살 수 있는 지방 청년 정주시대를 실현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윤근수/기자

구미시, 호감이 전략을 이긴다…국제화 마인드 장착

구미국제친선협회, 상반기 국제화 역량강화교육 개최

구미국제친선협회는 9일 새마을운동테마공원 다목적홀에서 회원들의 국제화 마인드 함양교육으로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해 상반기'구미국제친선협회 국제화 역량강화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은 국제교류 및 인간관계에 있어서 호감의 중요성을 키워드로 진행했으며"호감이 전략을 이긴다"라는 주제로 데일카네기코리아 강희락 대구경북지사장의 특강이 진행됐다.

이번 교육에는 약 150여명의 구미국제친선협회 회원들이 참석했으며, 참여자들은 민간 국제교류 전문 단체로의 도약을 위한 새로운 방향과 지식을 얻을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평가했다.

조동현 회장은"그동안 많은 활동으로 노력해주신 회원들에게 감사를 드리며, 이번 모임을 통해 민간 국제교류 현장에서 수고하는 우리 회원분들의 역량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 더 큰 발전과 성장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김장호 구미시장은"그동안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다양한 활동으로 민간 국제교류에 선도적인 역할을 해 구미시가 글로벌 국제도시로 나아가는데 큰 역할을 해주고 있다"고 격려했다.

시는 현재 11개국 15개 도시와 자매·우호결연을 체결했으며, 특히 민선8기 들어 베트남 박닌시, 독일 볼프스부르크시, 프랑스 그르노블시 및 키르기즈스탄 비슈케크시와 우호결연 협의서를 체결하고 경제·문화·교육·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 협력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07년 3월 창립한 구미국제친선협회는 국제교류, 통역자원, 문화교류, 홈스테이, 체육교류, 환경교류, 다문화교류 분야에서 7개국 150여명의 회원으로 구성돼 해외 민간단체와의 교류협력, 국제행사 및 외국인 통역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민간 외교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나가고 있으며, 매년 회원들의 국제화 마인드 함양을 위해 국제화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김동현/기자

박형준 부산시장, 기예르모 끼르빠뜨릭 주한스페인대사 접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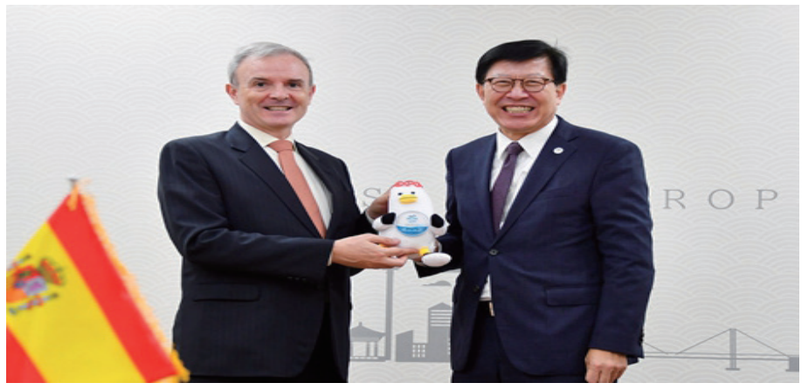
박형준 시장, 부산-바르셀로나 자매결연 40주년 행사 추진 등 스페인과의 우호관계 증진 당부

박형준 부산시장이 지난 9일 오후 시청 국제의전실에서 기예르모 끼르빠뜨릭(Guillermo Kirkpatrick) 주한스페인대사를 만나 부산시와 스페인 간 교류·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박 시장은 먼저 신규 부임인사 차 부산을 찾은 기예르모 끼르빠뜨릭 주한스페인대사에게 환영 인사를 전하며 "올해는 부산이 바르셀로나시와 자매결연을 맺은 지 40주년이 되는 해"라며, "40년 전 유럽 도시 중 최초로 스페인의 바르셀로나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한 부산은 스페인과 각별한 관계로, 자매결연 40주년을 맞이해 올해 부산시 대표단을 바르셀로나로 초대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끼르빠뜨릭 대사는 "따뜻한 환대에 감사하다. 작년 11월 스페인 총리가 방한해 한-스페인 정상 공동 언론발표를 하면서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더욱 긴밀해졌다"라며, "아울러, 바르셀로나 등 스페인 방문은 언제든지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에 박 시장은 "스페인은 세계 제2위 관광대국이자 유럽 내 산업경쟁력이 뛰어난 경제대국이라 앞으로 부산과의 관광 및 경제 분야 협력 잠재력이 매우 크다"라고 말했다.



끼르빠뜨릭 대사는 "부산은 세계박람회를 유치한 다른 도시들보다 세계박람회 개최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더 크다"라며, "올해 부산-바르셀로나 자매결연 40주년을 맞아 양 도시를 중심으로 우호관계가 더욱 증진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부산시는 스페인 제2의 도시이자 최대 항구도시 바르셀로나시와 1983년 10월 25일 자매결연을 체결한 이래 올해 40주년을 맞이했으며, 스마트시티.영화.문화.디지털.인적교류 분야 등에서 다양한 교류사업 추진하고 있다. 또한 부산은 2030년 등록박람회를, 스페인의 말라가는 2027년 인정박람회를 유치하고자 하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윤근수/기자

안동 문화도시 '100개의 예술실험' 두번째 프로젝트 '춤과 인접예술의 Hybridity Project' 공연 개최

안동시는 예비문화도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100개의 예술실험, '다가치 예술로(路) 안동'의 두 번째 프로젝트인 『춤과 인접예술의 Hybridity Project』공연을 오는 17일(토) 17시 모디684(구.안동역) 광장에서 개최한다.

'다가치 예술로(路) 안동'은 지역기반 예술가와 시민이 함께 실험적인 예술활동을 통해 도시의 변화를 추구하는 사업이다. 지난 4월, 사업에 참여할 프로젝트의 공모를 실시해 공간, 청년, 공동체 분야별 각 1개의 프로젝트(총 3개)를 최종 선정하고 오는 17일 공연을 진행한다.

이번 공연은 여러 분야의 예술가들이 협업하여 지역예술을 다양화하고, 시민의 공연 참여를 유도해 지역 내 문화예술을 활성화하기 위한 복합공연예술이다.

공연은 동화적 상상력을 자극하는 사자춤으로 시작하여 플라멩고 등 무용, 연극, 클래식 연주, 공간미술과 같은 인접 예술 분야가 뒤섞이며 다중적으로 진행된다.

또한, 관객과 공연자가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마당극 형식을 취하여, 시민과 예술가가 함께 만드는 공연이 될 예정이다.

공동체분야 프로젝트를 준비한 시 관계자는, "기존 공연장에서 벗어나 예술가들이 시민에게 다가가는 방식의 공연문화를 선보이고, 시민과 예술가들이 서로 공감할 수 있는 상호교류의 장을 마련할 예정이다"라며 "시민들이 다양한 예술활동을 향유하고 원도심이 활성화될 수 있는 문화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라고 의지를 전했다.

윤근수/기자

청송군, 풍성한 스포츠대회 유치·개최로 지역경제'활짝'

청송군이 최근 전국 규모의 체육대회를 연이어 유치·개최하며 대회 열기를 몰아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먼저 군은 지난 3월부터 '2023 전국 고등축구리그(경북, 대구권역)'를 유치해 청송군민운동장 및 진보생활체육공원에서 11월까지 경기를 진행하고 있다.

이어 4월에는 2023대한배드민턴협회장기 전국종별배드민턴 선수권대회가, 6월 들어서는 제32회 회장기 전국 중·고등학교 검도대회, 제28회 경상북도지사기 생활체육 탁구대회가 연이어 개최됐으며, 오는 6월 14일에는 제2회 청송군 파크골프협회장기 파크골프대회가, 6월 17일~18일에는 제13회 청송군수배 전국산악자전거대회가 열릴 예정이다.

특히 이들 대회가 열릴 때마다 선수, 가족, 대회 관계자 및 임원 등 많게는 1,000여 명이 청송을 방문해 숙식을 해결하며 지역 관광지도 찾고 있어, 청송의 도시브랜드 이미지를 높이는가 하면 지역 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는 등 일석이조의 효과를 보이고 있다.

또한 앞으로도 2023 청송사과 트레일런, 2023 청송사과배 전국테니스대회, 경북협회장배 생활체육 및 경북학생체육 탁구대회 등 각종 전국 및 도 단위 규모의 여러 체육대회가 개최되면 이러한 효과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청송은 각종 체육대회에 참가하는 선수단 맞이로 주말이 더 분주하다."며, "많은 체육인들이 청송에서 최고의 기량을 발휘하고,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시설물 점검 및 안전관리 등 대회 관련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예천군, "악성 민원 꼼짝마!"…웨어러블 캠 도입

예천군은 폭언·폭행 등 악성 민원에 대비하고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360도 촬영·녹음할 수 있는 목걸이형 카메라인 웨어러블 캠을 운영한다.

악성 민원으로 인해 공무원들의 정신·신체적 피해가 매년 증가하자 행정안전부가 '민원처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웨어러블 캠 도입을 의무화했으며 이에 군은 종합민원과 등 22개 부서에 35대를 보급했다.

해당 장비는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가 발생하거나 급박한 경우에 사용되며'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 지침에 따라 정당한 목적과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정보를 처리한다.

박태환 행정지원실장은 "웨어러블 캠 도입은 민원인과 공무원 사이에 위화감을 조성하려는 것이 아니라 민원업무 처리 중 발생할 수 있는 불미스러운 상황이나 사고를 예방하여 상호 배려하고 존중하는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것"이라며 "운영 기준을 명확히 해 사생활 침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 직원들이 안심할 수 있는 근무환경 조성은 물론 신뢰받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봉화군, 직장·공장새마을운동 봉화군협의회 재능기부 행사 개최

농기계 점검 및 이 • 미용 봉사 진행

직장·공장새마을운동 봉화군협의회는 11일 봉성면을 찾아 재능기부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날은 동양초등학교 앞 만남의광장에서 직·공새마을협의회 회원 20여명이 참여해 예초기 등 농기계 점검 및 수리봉사와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이·미용봉사를 진행했다.

이발로 머리를 새 단장하신 어르신은 "몸이 불편해 거동하기가 어려워 오랫동안 머리를 깎지 못해 불편했는데, 이렇게 깔끔하게 깎아주시니 너무 고맙다."며 재능기부 행사에 감사를 표했다.

김만수 직장·공장새마을운동 봉화군협의회장은 "어르신들이 이발을 하고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니 더욱더 보람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봉사활동으로 주민들과 함께하는 직·공새마을운동 봉화군협의회가 되겠다."라고 밝혔다.

정금자/기자

대한민국의 자존심 울릉도! 과거와 현재, 미래를 잇는 목소리 듣다

이철우 지사, 박정희 기념관 방문해 국토수호 결의와 지역발전 다짐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12일 울릉도를 찾아 민선8기 도정방향을 공유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다섯 번째 생생 간담회를 가졌다.

울릉군 농업인회관(농업기술센터)에서 열린 이번 간담회에는 이철우 지사를 비롯해 남한권 울릉군수, 공경식 울릉군의장, 남진복 경북도의원, 지역 기관.사회 단체장 등 100여명의 군민이 참석했다.

특히, 이 지사는 지난해 11월 북한 미사일 도발로 인해 불안해하는 군민들에게 울릉도·독도 지원 특별법의 필요성에 대해 깊이 공감하며 법 통과를 위해 경북의 힘을 모아 나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울릉도에서 만나는 박정희 1962(옛 군수관사)를 방문해 그 당시 정기선이 없던 절해고도에서 오늘날 울릉공항 신설과 일주도로 개통까지 있게 한 박정희 대통령의 발자취를 따라 과거와 현재, 희망찬 미래에 대해 울릉군 주요 관계자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해군 118전대를 방문해 국경을 수비하는 국군장병에게 위문품을 전달하고 도민을 대표해 그들의 변함없는 헌신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또 도동항 광장에서 오징어를 형상화한 황금빛 조형물 '오독이'제막식에 참석해 새로운 포토존이 경북관광의 핫플레이스가 되길 염원했다.

생생 간담회는 '지방이 살아야(生) 나라가 산다(生)'의 의미로 '현장에 답이 있다'는 이철우 도지사의 도정 철학을 반영한 '현장소통프로젝트'다. 생생버스를 타고 경북대전환과 지역의 재도약을 향한 경북의 힘을 충전하고자 현장행정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

한편, 앞으로 더욱 다양한 방식과 적극적인 자세로 도민과 격의 없이 소통하고 건의사항 중 즉시 조치가 가능한 사항은 신속하게 해결하고 중장기 계획이 필요한 사항은 해당 부서의 검토를 거쳐 도정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 7월 청송군 예정

이철우 도지사는 "울릉군은 영토주권의 상징인 독도를 품고 있는 대한민국의 자랑이다"라며, "박정희 대통령의 국토수호 결의와 지역발전 유지에 따라 경북의 힘으로 대한민국 지방시대를 주도하겠다"라고 밝혔다.

윤근수/기자

영양군, 2023년 성별영향평가 대상사업 대면컨설팅 실시

영양군(군수 오도창)은 내실 있는 성별영향평가사업 추진을 위해 9일(금) 군청 소회의실에서 「2023년 성별영향평가 대상사업 대면 컨설팅」을 실시했다.

이번 컨설팅은 신규·공약사업, 안전사업, 청년 및 일자리 관련 사업 등 대상사업 12건에 대하여 (재)경북여성정책개발원 성별영향평가센터 김성령 컨설턴트와 사업 담당자의 1:1 대면으로 진행됐으며, 성별영향평가서 작성 방법, 성 평등을 위한 개선과제 도출 등에 대해 컨설팅 했다.

성별영향평가는 법률, 계획, 사업 등 정부의 주요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해당 정책이 성별에 미치는 영향과 사회·경제적 격차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 평가하여 정책개선과 양성평등 실현에 기여하는 제도이다.

군은 이번 컨설팅을 바탕으로 주요 사업 시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성차별적 요인을 체계적으로 검토해 사업수혜의 성별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오도창 영양군수는"체계적인 성별영향평가를 통해 정책을 수립 · 시행하는 과정에서 양성 평등한 환경을 만들도록 하겠다"며 "앞으로도 군민의 삶과 밀접한 주요 정책에 대해 성인지 감수성을 제고하는데 노력하며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연말까지 대구 미래 50년을 위한 밑그림 완성, 구·군 적극 동참'강조

신공항건설과 후적지 개발을 위한 특수목적법인(SPC) 연말까지 설립

6월 9일 대구광역시청 산격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시장, 구청장·군수 정책회의에서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대구경북신공항건설 및 후적지 개발과 달빛고속철도 특별법 제정, 3대 특구 조성 등 대구 미래 50년을 향한 핵심 정책들이 올 연말까지 준비가 완료될 것"이라 말하며, "대구굴기의 큰 그림에 구·군이 적극 참여할 것"을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지난 5월 두바이,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해외출장 시 주요성과를 공유하면서, 대구경북신공항건설 및 후적지 개발사업은 세 차례에 걸친 사업설명회 등을 통해 특수목적법인(SPC)을 연내 설립하고 TK신공항은 공구별 동시 착공으로 최대 2년 정도 앞당긴 2028년 개항을 목표로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대구공항 후적지는 6월 중 마스터플랜을 완료하고 싱가포르 마리나베이 방식으로 금호강을 활용한 글로벌수변도시로 개발하여 금융·관광·첨단산업의 중심도시로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대구와 광주를 1시간대로 연결할 달빛고속철도는 TK신공항 개항 시기에 맞춰 개통할 수 있도록 7월 중 국회에서 특별법을 발의할 예정이며 연내 통과를 목표로 구·군이 함께 협력할 것을 주문했다. 특별법에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이 담겨 달빛고속도로를 조기 착공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대구광역시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경북도청 후적지(현 대구광역시 산격청사) 일대의 '도심융합특구', 국내 최초로 전면적인 네거티브 규제가 적용되는 '글로벌 혁신특구', 지방이전 기업에 세제감면 혜택과 규제 특례를 지원하는 '기회발전특구' 등 3대 특구 조성에도 구·군의 참여를 주문했다.

특히, '도심융합특구 조성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6월 중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정부에서 사회기반시설 건설과 각종 재정부담의 감면 등 지원 근거가 마련돼 '도심융합특구' 조성에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동성로 활성화 방안과 서대구역 역세권 개발, 신천·금호강 개발에 대한 추진계획을 공유하고, 구·군의 관심 사안인 신청사 이전 문제와 가창면 수성구 편입 등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신뢰받는 공직사회 조성을 위해 이달 말까지 대구광역시가 진행하는 공직자 복무점검에 각 구·군에서도 동참할 것을 요청했다.

윤근수/기자

안동시, 관광 벤치마킹 국내외 '광폭 행보'

권기창 시장, 관광 성공사례 분석해 지역관광 살릴 아이디어 착안해야

안동시가 지역 문화예술과 관광산업,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국내외 우수사례를 찾아 발품을 팔며 벤치마킹에 주력하고 있다.

시는 사계절 축제를 비롯해 댐 관광 자원화, 옛 안동역 및 폐선 부지 활용 등을 통해 체류형 관광도시로 전환을 이뤄 안동관광의 새로운 전기를 열어갈 계획이다.

최근, 권기창 시장은 주말을 이용해 관광 부서 관계자들과 함께 세계 3대 마임축제로 일컫는 춘천마임축제장에 방문해 국내외 관광객 유치와 킬러 콘텐츠 운영방식을 살펴보며 안동 사계절 축제 및 관광산업에 접목할 방안을 논의했다.

이곳에서, 육동한 춘천시장을 만나 호반의 도시라는 공통점을 토대로 양 도시의 대표 축제인 춘천마임축제와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의 발전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했다. 또한, 춘천의 '새벽시장'이 상권 활성화에 이바지하며 지역 소상공인의 호응을 얻은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기도 했다.

권 시장은 지난해 취임 이후부터 세종, 논산, 완주, 밀양, 제천, 원주, 영월, 광명 등 타 지역 관광 성공 사례를 분석해 활용 방안을 모색하며 차별성 있는 관광 경쟁력을 설계해 나가고 있다. 특히, 국내 대표 동굴관광자원인 광명동굴에서 안동 와룡터널, 안동 소주 등 지역 전통주의 활로 및 수익 창출 가능성을 찾고, 뉴트로 감성의 익선동 한옥거리, 한국의 브루클린이라 불리는 성수동 카페거리에서 MZ세대 핫플레이스로 자리매김한 비결을 살폈다. 이어, 광장시장, 노가리골목, 여의도 한강공원을 찾아 전통시장의 문화적 재생과 하천 활용 방안(요트 운영, 수상카페)을 다각도로 모색했다.

지붕없는 박물관이라 불리는 안동에 현대 미술과 박물관, 공방이 더해진 복합예술공간의 도입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해 원주 뮤지엄산, 영월 젊은달와이파크를 방문하고 월영교 일원에 추진하는 수상공연장, 댐 사면 미디어파사드 등에 시사점을 얻고자 밀양아리랑대축제 현장을 찾아 실경 멀티미디어쇼 밀양강 오딧세이 공연에 적용된 워터스크린, 음악분수, 레이저쇼 등을 면밀히 살폈다.

또한, 세종시의 환상형 도시구조를 형상화한 랜드마크 금강보행교(이응다리)의 특색있는 야간 조명을 탐방하고, 선샤인랜드에서 한국문화테마파크의 시대적 테마 콘셉트의 힌트를 얻고자 했다. 국내 최초로 개장한 로컬푸드 직매장인 완주군 용진농협 로컬푸드 직매장을 찾아 농특산물 판매 진작을 위한 노하우를 청취했다. 250년 역사의 아원고택에서는 복합문화공간화를 이룬 노하우와 현대식 편의시설 공간을 주목했다.

이외에도 각종 해외 출장 시 여유시간을 활용해 특색있는 관광지를 방문해 지역 사업에 도입하고자 했다. 일본 물의 도시 오사카에서 뱃놀이, 수상공연, 수상마켓 등을 답사하고 천년고도 교토시에서는 전통가옥'교마치야'의 매력을 들여다봤다. 태국 방콕에서는 담넉사두억 수상시장 및 매끌렁 위험한 기찻길에서 다양한 아이디어를 착안할 수 있었다.

권기창 안동시장은 "안동시 전 공무원이 국내외 성공 사례에서 지속적으로 배우고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며 성장하는 조직문화를 배양하길 바란다"라며 "독창적이고 특색있는 볼거리와 즐길거리로 천만 관광객이 찾는 체류형 관광도시를 조성해 안동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근수/기자

봉화군, 봉화읍 적덕2리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공모 선정

봉화군은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부가 공동 주관한 '2024년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공모에 '봉화읍 적덕2리 소지골마을'이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새뜰마을사업)은 성장혜택으로 부터 소외되고 낙후된 지역주민들의 기본적인 생활수준 보장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 인프라 확충과 함께 문화·복지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군은 사업에 선정된 적덕2리 일원에 총사업비 18억 원 정도를 들여 2024년부터 2027년까지 4년간 슬레이트 지붕 개량 및 노후주택 정비, 위험 보행 전용도로 개설, 혐오시설 정비, 노후담장 개선,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휴먼케어, 주민역량강화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박현국 봉화군수는 "이번 공모사업을 통해 적덕2리 일원에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등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한다."며 "생활·위생·안전 등 기반시설 정비와 주택정비사업 등 주민역량강화를 통해 주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마을을 만들어가고 앞으로도 취약지역 대상마을을 발굴해 주민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봉화군은 지난 3월에도 '2023년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공모'에 '춘양면 의양4리 운곡마을'이 선정된 바 있다.

윤근수/기자

2025 APEC 정상회의, 경주 만한 도시가 어딨능교?

9일 영천한의마을에서 열린 경북도와 23개 시 • 군 사진 • 영상 전담공무원 워크숍에서 경주유치 대대적 지지

경북도와 23개 시·군 사진·영상 담당 공무원들의 촬영분야 전문 역량강화 및 소통을 위한 '2023 도·시군 사진·영상 담당공무원 워크숍'이 지난 9일부터 1박2일간 영천 동의참누리원 영천한의마을에서 열렸다.

이번 워크숍은 사진·영상 기술습득을 통한 공무원들 간의 전문성 제고 및 홍보행정 역량을 극대화 하고, 도·시군 간 신속한 정보교류 및 상생협력의 홍보 파트너쉽 강화를 위함이다.

약 6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1일차에는 소니코리아 주현준 과장의 'UHD 방송장비 소개 및 전시', 제이솔루션의 김현우 이사의 '투명LED 관련 교육', 스트림비젼사의 '통합영상믹서, 콘텐츠 관리 송출 교육' 등 전문교육이 있었다.

2일차에는 영천한의마을을 찾아 유의기념관, 한방테마거리 등 여러 시설을 견학하고 마을유래 등 조성배경과 영천 한방산업과 관광연계 활성 등을 경험하면서 직무를 떠나 모처럼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다.

특히 경주시 권순길 경진회장과 권종원 직원은 워크숍 시간을 빌려 경주시와 경북도의 최대 숙원인 '2025 APEC 경주유치' 당위성을 피력하고 가장 한국적인 도시, APEC 준비된 도시, 경주가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를 당부했다.

경진회는 23개 시·군 사진·영상 전담 공무원들이 상호친목과 정보교환, 건전한 취미활동, 자기발전 등을 위해 2019. 12월에 구성하여 오고 있으며, 현재 경주시 홍보담당관 권순길 전문경력관이 회장을 맡아 조직발전과 구성원들의 화합을 도모하여 오고 있다.

윤타용/기자

구례군 '화엄, 천년을 세우다.' 제3회 지리산 대화엄사 요가대축제, 천년의 '희망'을 노래했다

제3회 지리산 대화엄사 요가대축제가 6월 10일 전국에서 모인 500여 요가인들과 자원봉사자 100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한불교조계종 19교구 지리산 대화엄사 각황전, 대웅전, 보제루 특설무대 앞마당에서 화려하고 성대하게 개최됐다.

'화엄, 천년을 세우다'를 주제로 펼쳐진 제3회 지리산 대화엄사 요가대축제는 2021년 첫 대회를 시작으로 올해 세 번째 요가대축제 무대를 올린 것이다. 이번 화엄사 요가대축제는 주제에서도 알 수 있듯이, 천년의 화엄성지 화엄사의 위용을 알림과 동시에, 지난달 5월 10일 고불식을 봉행하고 새로운 모습으로 대중을 맞이하게 될 각황전 앞 석등(국보12호)의 부분 해체 보수작업의 의미를 담고 있기도 하다. 더불어 지구촌이 하나이며 저마다 다른 모습의 개체를 상호 인정하고, 각자 서로 다름을 존중하자는 퍼포먼스로 각양각색의 양산으로 표현된 대화합의 하모니를 지리산 대화엄사 도량에서 펼쳤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인도대사관 인도문화원에서 준비한 인도 전통춤인 "까딱"을 선보여 요가 참가자와 일반인들의 이목을 집중시켰으며, 대한요가회 요가시범팀과 해금과 가야금 연주에 맞춘 시범은 전통 악기와 현대 요가의 콜라보로 프로 요가인들의 면모를 선보이는 시간이었다.

한편 특별 순서로 참가자 전원을 매료시킨 리듬체조 국가대표 손지인 선수의 리듬체조 시범 순서는 행사의 백미로 손꼽히기도 했다.

이날 행사를 마련한 주지 덕문스님은 "계절적으로도, 환경적으로도 부족함 없는 무대를 만들어 드리고 싶었습니다. 코로나 엔데믹으로 훨씬 편해진 조건에서 요가대축제를 준비하게 되어 한결 가벼운 마음이었습니다. 해마다 개최하는 요가축제이지만 해마다 다른 것들을 선사한다는 마음으로 행사를 치릅니다. 개인의 행복과 모두의 건강, 지구촌의 화합을 담는 행사이니 만큼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희망과 화합의 메시지를 전하고자 합니다."며 제3회 '화엄, 천년을 세우다.' 화엄사 요가대축제의 인사말에 가름했다.

한편 주한인도대사관 수린더 바가트(Surinder Bhagat) 부대사는 축사에서 "요가는 심신의 평온을 가져다주는 고대 인도의 수련법이자 인도의 문화유산이라고 했으며, 정신없이 흘러가는 현대사회에서 우리는 요가를 통해 부정적인 감정과 불안을 줄일 수 있고 건강한 신체를 얻을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자연 속에서 조화롭게 살아가는 방법을 터득할 수 있다 라고 했다."

그리고 "지리산 대화엄사 홍보대사 "마리엘 산드라 코르베(Mariel Sandra Korbe)"는 홍보대사의 첫 행사로 요가행사를 참여해서 " 너무 신났다. 사찰에 처음 와서 요가와 사찰음식을 경험해서 너무 좋았다 라고 말을 전했다.

제3회 지리산 대화엄사 요가대축제는 전라남도. 대한체육회, 구례군체육회, 한국불교문화사업단, 전라남도요가회가 주관했으며, 문화체육관광부, 구례군, 전라남도체육회, 주한인도대사관, 주한인도문화원, 불교리더스포럼, 대한요가회, UN세계요가의날 한국행사조직위원회가 후원하고 중흥건설, 진주한일병원, 신정종합건설, 프랑스와즈, TS샴푸, 구례약산수, 맑은소리 맑은나라 협찬을 했다.

김성현/기자

윤병태 나주시장, 다도 강정마을서 7번째 마을좌담회

저녁 시간 찾아가는 주민과의 대화 마을 현안, 애로사항 경청

윤병태 나주시장이 일과 이후 다도면 강정마을을 찾아 주민들의 생생한 현장 목소리를 경청했다.

전라남도 나주시는 지난 8일 오후 7시 다도면 암정리 강정마을회관에서 윤병태 시장과 주민 간 7번째 찾아가는 마을좌담회가 열렸다고 11일 밝혔다.

마을좌담회는 저녁 시간 마을회관, 경로당 등에서 격의 없는 대화 자리로 진행된다. 크고 작은 마을 현안, 건의 사항을 경청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민선 8기 소통 시책이다.

윤 시장은 해묵은 마을 현안, 생활 고충이 있지만 먼 거리, 거동 불편, 바쁜 생업 등으로 시청을 방문하지 못하고 오랜 기간 불편을 감내해왔던 주민들의 고충 해소를 위해 매달 1회 벽·오지 마을을 우선으로 방문하고 있다.

다도면 소재지 남쪽 방향으로 2km거리에 있는 강정마을은 다도 일봉암과 깃대봉 사이에 위치해 마을 전체가 산에 둘러싸여 있어 포근한 느낌을 준다. 지역에서도 손꼽히는 청정한 환경 덕택에 장수 마을로 유명하며 현재 30여 가구가 오순도순 화합하며 살아가고 있다.

좌담회에는 유병재 마을이장, 강재석 노인회장, 서광순 부녀회장을 비롯한 주민 30여명이 참석했다.

유병재 마을이장은 "수맥이 좋고 물이 계속 흘러서 강(江) 자를 넣고 마을 형상이 전체적으로 정자(亭子) 모습 같아 강정(江亭)이라고 불린다"며 "먼 마을까지 이렇게 찾아와준 윤 시장을 주민 모두가 환영한다"고 환영 인사를 전했다.

윤병태 시장은 "마을 건의사항을 물론 평소 주민들께서 생각해오셨던 것들, 저를 나무라셔도 좋으니 주제, 분야 구분 없이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좌담회를 통해 주민들은 '시도 16호선 다도 간 진입도로 개설 및 나주호 둘레길 조성사업 진행 상황', '나주호 수변공원 수목 이식·잔디 평탄화', '마을 배수로·하수관 복개', '마을 안길 도로 개선', '폭우 대비 사방댐 조성', '산책로 휴식 의자 설치', '영농폐기물 야적·수거 공간 마련', '화재 대비 대나무 벌목' 등을 건의·요청했다.

특히 유병재 이장은 "귀촌 11년차인데 한 번도 아이 울음 소리를 듣지 못했지만 그간 열 한 분이 돌아가셨다"며 "앞으로 10년 후 마을 공동화에 대비한 나주시의 관심과 연구를 요청한다"고 호소했다.

윤병태 시장은 "다도면뿐만 아니라 농촌 마을 전체에 인구 소멸은 심각한 문제로 귀농·귀촌정책은 새로운 마을을 만드는 것이 아닌 기존에 있는 마을을 다시 살리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시장은 "귀농귀촌 시범마을 공모를 통해 선정된 마을을 집중 육성할 계획"이라며 "외지인을 흔쾌히 받아들일 수 있는 주민들의 수용적 자세, 귀농·귀촌에 적합한 마을 환경 조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건의하신 사항은 한 건도 빠짐없이 현장을 확인해서 최대한 해소해가도록 하겠다"며 "청정한 환경, 수려한 경관을 갖춘 마을을 잘 가꿔서 사람들이 모여드는 마을이 되길 응원한다"고 말했다.

김영안/기자

'뜨는' 골목상권 가꿀 영암인을 모십니다

전남 영암군이 이달 22일 영암군청소년수련관으로 '골목길 경제학자'로 이름 높은 모종린 교수를 초청해 '영암군민 아카데미'를 연다.

군민 초청 특별강연으로 기획된 이날 아카데미의 주제는 '머물고 싶은 동네가 뜬다'이다.

영암군종합사회복지관은 이번 아카데미로 영암군의 골목상권을 지역민뿐만 아니라 관광객이 머물고 싶은 명소로 바꿀 전기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전문가, 지역청년사업가, 지역민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영암 골목상권 특성을 공유,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로 아카데미가 꾸며진다.

먼저, 다른 지역 골목상권 성공사례가 소개된다. 여기에 더해 영암군 골목상권 활성화 계획 등도 제시된다.

이어 아카데미 주제와 같은 이름의 책을 낸 모 교수가 특강으로 청중과 만난다.

영암군종합사회복지관 관계자는 "영암의 골목상권 활성화는 상인과 전문가를 포함한 영암군민 전체가 나서서 함께 풀어나가야 할 사안이다."며 "많은 영암군민이 아카데미를 찾아 골목상권 활성화의 지혜를 모아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모종린 교수는 라이프스타일 변화에서 로컬과 지역발전의 기회를 찾는 연구자로 '머물고 싶은 동네가 뜬다' '골목길 자본론' 등의 저서를 냈다.

스타트업·예술가·소상공인이 커뮤니티를 통해 문화와 산업을 만들어내는 도시를 꿈꾸고 있다.

김성현/기자

신안군, 배로 가는 1004만 송이 수국축제 준비 한창

6월 16일부터 10일간 신안군 도초도에서 '섬 수국축제' 개최

신안군은 수국정원과 환상의 정원으로 유명해진 수국의 섬 도초도에서 '섬 수국축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배로 가는 1004만 송이 수국축제'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축제는 6월 16일부터 6월25일까지 10일간 신안군 도초도 일원에서 개최된다.

축제 기간 수국정원과 환상의 정원(명품 팽나무 10리길)에서 토양의 산도에 따라 다양한 색상을 연출하는 형형색색의 탐스러운 1004만 송이 수국을 감상할 수 있으며 올해 초 총면적 671m² 규모의 수국센터(2층)를 개관하여 방문객의 휴게공간을 제공하고 1층 전시실에 수국을 주제로 한 유명 작가의 작품을 전시할 계획이다.

2020년 전남도 도시숲 평가 대상, 2021년 산림청 가로수부분 우수상을 수상한 환상의 정원은 전국에서 기증받은 사연 많은 팽나무 716주가 장관을 이루고 있고 '자산어보' 촬영장도 수국정원 인근에 있어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신안군은 2022년 10월 한국기록원으로부터 지방자치단체 관내 단위 면적당 최다 수국 보유를 인증받았으며 기네스북 등재도 추진할 예정으로 명실상부 대한민국 수국의 섬으로 불려도 손색이 없을 정도이다.

김경한 추진위원장은 "수국정원을 찾아오신 모든 분들이 1004만 송이 아름다운 수국을 만끽하며 추억 할 수 있는 축제의 장이 되도록 사전 준비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신안군 관계자는 "섬에서 치러지는 행사인 만큼 관광객들이 차를 놓고 방문하셔도 불편함이 없도록 선박과 순환버스 운행을 대폭 증편하여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다양한 행사를 준비하여 섬 수국축제가 성황리에 개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영진/기자

노관규 순천시장, 습지보전 위해 람사르 습지도시 국제연대 제안

8~10일 프랑스에서 개최되는 제2회 람사르 습지도시 시장단 회의 참석

노관규 순천시장이 8일부터 10일까지 3일간 프랑스 아미엥시에서 개최되는 '제2회 람사르 습지도시 시장단 회의'에 참석했다.

람사르 습지도시 시장단 회의는 동아시아 람사르지역센터와 프랑스 아미엥시가 공동 주최하고 전 세계 10개국 24개 습지도시 시장단 200여 명이 참가했다.

제1회 람사르 습지도시 시장단 회의는 지난 2019년 대한민국 순천시에서 개최됐으며 2020년 차기 개최지로 프랑스 아미엥시가 선정됐으나, 코로나19로 회의가 연기되어 4년 만에 개최됐다.

람사르 습지도시 시장단 네트워크 초대 의장을 맡고 있는 노관규 시장은 습지도시 시장단 회의를 주도하며, 순천의 도심과 연결한 습지 보전 정책과 멸종위기종 생물 서식지 복원 과정 등 세계적으로 주목 받고 있는 순천의 습지정책을 발표했다.

노관규 시장은 시장단 회의에서 "습지 보전을 위해 일관된 정책집행과 홍보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국제연대가 필요하다"라며 "아무나 가지 않는 길을 가면서 두려워할 때 함께 하고, 어려운 문제에 봉착했을 때 외국의 유사사례를 들어 힘을 북돋우어 주는 역할을 람사르 습지도시가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치적인 이해관계로 일관된 정책이 무너지지 않도록 전문가들이 이론적인 뒷받침을 해주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덧붙였다.

2박 3일 동안 진행되는 이번 시장단 회의에서 24개 습지도시는 습지 보전 정책 및 도시 인프라로서 습지를 활용하는 사례 등을 공유하고 도시 간의 우호교류를 증대시켰다. 또한 우수한 습지도시의 습지보전 정책을 장려하고, 습지보전을 통한 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향도 논의했다.

한편, 람사르협약의 습지도시 인증제도는 2015년 제12차 람사르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우리나라와 튀니지가 공동 발의하여 결의문으로 채택되어 람사르협약에 도입된 제도이다.

이후 협약에서 정한 심사를 거쳐 2018년 제13차 람사르총회에서 순천을 포함한 7개국 18개 도시가 습지도시로 첫 인증을 받았고 2022년 제14차 총회에서 13개국 25개 도시가 추가 인증 받았다.

또한, 2019년 발족한 '습지도시 시장단 네트워크'는 람사르협약에서 습지도시 브랜드를 수여받는 것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습지도시가 함께 습지를 도시의 중요한 인프라로 보전하고 현명하게 이용하고자 하는 의지를 담은 네트워크이다.

이승준/기자

'남원사랑상품권' 행안부 지침에 맞춰 가맹점 등록 제안 추진

남원시가 오랜 고민 끝에 행정안전부 '2023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종합지침'에 맞춰 조례 개정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주요 내용은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인 경우에만 가맹점 등록을 허용하고 기존에 등록된 가맹점에 대해서도 '연 매출액 30억 원 초과' 시 가맹점에서 제외하게 된다.

이는 그간 법상 중소기업인 경우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가능하여 대형마트와 대형병원 등 소상공인으로 보기 어려운 곳에서도 상품권이 사용되는 문제가 있어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법령상 소상공인 기준 등을 고려하여 지역사랑상품권이 상대적으로 영세한 소상공인 매장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한 정부 방침을 반영한 것이다.

또한, 1인당 구매 한도는 월 70만 원 이하, 보유 한도는 최대 150만 원이하로 제한하고 할인율은 종전과 같인 10%를 유지할 계획이다.

시에서는 상품권을 이용하는 시민들과 소상공인들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언론, 읍면동 이통장 회의, 시 홈페이지, SNS를 통해 충분한 홍보를 시행할 계획이며,

이외 별도로 '연 매출액 30억 원 초과'로 가맹점 등록이 제외되는 농협 하나로마트, 대형 식자재 마트, 병원 등 100여 개 사업장에 대해서도 사전 안내와 충분한 설명으로 이해를 구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조례 일부개정은 6월경 2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과 조례규칙심의회, 남원시의회 의결을 거친 후 9월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가맹점 제한에 따른 시민의 불편함이 최소화되도록 사전에 적극 홍보할 계획이며 다양한 가맹점을 확보하여 남원사랑상품권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남출/기자

장흥군, '모령마을' 전라남도 유기농 생태마을 지정

마을 벽화 돌담, 흙벽, 우물 등 생태적 가치 인정 받아

장흥군 안양면 모령마을이 '2023년도 전라남도 유기농 생태마을'로 지정됐다.

유기농 생태마을은 10호 이상의 농가가 참여하는 친환경농업 실천 마을을 말한다.

친환경 인증면적 10ha이상, 유기농 인증면적 비율 30%이상으로 생태환경이 잘 보전되고 친환경 실천 의지가 강한 마을을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현재 장흥군은 관산읍 송촌마을 및 옥촌마을, 안양면 신촌마을 및 학송마을이 유기농생태마을로 선정됐다.

이번에 선정된 안양면 모령마을은 유기농 18.4ha, 무농약 4ha등 총 22.4ha의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상태다.

특히, 전문가 평가단으로부터 마을회관 앞 벽화와 마을 돌담 및 흙벽, 그리고 우물 등의 생태환경 가치를 인정 받았다.

앞으로는 유기농생태마을 육성사업 등을 통해 생태적 가치를 보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시설 개발 및 관광 체험프로그램 운영할 예정이다.

김성 장흥군수는 "농업환경이 잘 보전된 마을이 계속해서 유기농 생태마을로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유기농업 위주로 친환경농업을 확대하고 군민 소득 향상과 관광 활성화의 기회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박재원/기자

전남산 전복, 일본 현지 안정적 수출망 확보

수산물 유통 3개 기업과 1천만 달러 규모 협약

전라남도는 최근 나주에서 열린 '2023년 상반기 농수산식품 수출상담회'에서 전남산 전복 수출 5개 기업이 일본 수산물 유통 3개 기업과 3년간 1천만 달러 수출 업무협약을 했다고 밝혔다.

소비 부진과 가격 하락 등으로 어려운 전남산 전복 판로 확대와 일본 현지 안정적 유통망 구축을 통해 수출 활성화가 기대된다.

이번 업무협약엔 한국에선 누리영어조합법인, 완도수산영어조합법인, 영진수산, 해미원, 경영수산이 참여했으며 일본에선 ㈜일본활어, ㈜토센보, 그로로지스틱스㈜가 참여했다.

협약에 따라 일본 수입 2개 기업은 지속적인 주문과 현지 유통을 추진하며 도내 5개 수출기업은 싱싱한 전복의 안정적 공급에 협력한다. 그로로지스틱스는 수출용 활어차량을 통한 활전복의 안전한 수송을 담당한다.

'바다의 황제', '바다의 산삼'으로 불릴 정도로 맛과 영양이 풍부한 전복은 전남에서 국내 99.3%를 생산하는 지역 대표 수산물이다. 생선회를 즐겨 먹는 일본은 한국산 전복의 최대 수출국으로 2022년 전복 수출액 5천400만 달러 중 약 80%(4천300만 달러)를 차지하는 최대 수입국이다.

신현곤 전남도 국제협력관은 "이번 전복 수출 협약은 일본 현지의 안정적 유통망을 구축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전남 전복의 브랜드 마케팅과 다양한 현지 판촉 행사를 통해 김을 이은 대한민국 대표 수출 전략 품목으로 육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협약식에 참석한 일본 기업 관계자는 "일본에서는 자연산 다시마를 먹고 자란 전복이 향이 좋기 때문에 최상품으로 취급한다"며 "전남의 고품질 전복을 안정적으로 공급받게 돼 매우 뜻깊다"고 평가했다. 이어 "일본에서 전남산 전복에 대한 집중 마케팅으로 인지도 향상과 소비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박종배/기자

진도의 맛 알린다…향토 음식점 13곳 선정

홍보 지정판 제작, SNS 홍보 등 혜택

진도군이 향토성이 있고 맛있는 '향토 음식점' 13곳을 선정했다.

향토 음식점은 진도군에서 생산되는 농수특산물을 사용해 조리한 향토성 있는 음식을 판매하는 일반 음식점으로 올해 처음 선정했다.

진도군 향토 음식점은 심의위원회에서 관광객들에게 진도의 향토성 있고 맛있는 음식점을 홍보해 음식 관광과 함께 지역경제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선정하고 지난 8일 지정증 수여식을 개최했다.

군은 향토음식점으로 지정된 업소에 대해 지정판 제작, SNS 홍보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 맛과 위생, 친절서비스 등 식당의 사후관리도 함께 실시할 예정이다.

김희수 진도군수는 "진도군을 대표하는 향토 음식점 선정을 통해 지역 향토·특색 음식점을 발굴,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관광객들에게 서비스와 위생, 친절도 향상을 통한 업소 수준 향상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영진/기자

화순팜, 6월 풍성한 '제철제맛' 이벤트 실시

화순군은 화순팜에서 6월 '제철제맛' 이벤트를 6월 12일부터 6월 28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제철제맛' 이벤트는 화순팜에 신규 등록된 화순축협의 적벽한우(채끝, 등심, 안심 등 8종)와 미니파프리카 등 할인 이벤트, 초당옥수수, 자두의 사전 예약 판매로 진행된다.

하나(한우 먹고 힘내소!), 6월 12일부터 18일까지 7일간 화순축협의 적벽한우(채끝, 등심, 안심, 부채살 등 8종)를 최대 25% 할인 판매한다.

둘(미니파프리카 할인판매), 6월 20일부터 28일까지 9일간 가정용 미니파프리카에 한해 최대 33% 할인된 가격인 1.7kg 9,900원 3kg 19,900원에 판매한다.

셋(사전 예약 특가), 6월 12일부터 28일까지 17일간 초당옥수수 500개(16,000원/10개, 25,000원/20개), 자두(2.4kg/25,000원) 1,000박스를 사전 예약 특가로 판매한다.

배송 일정은 옥수수는 28일부터 순차 배송하고, 자두는 19일부터 순차 배송한다.

또한, 사전 예약으로 초당옥수수와 자두를 구매한 회원에게는 1인 1매 사전 예약 할인 쿠폰(2,000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화순군 관계자는 "우수한 화순 제철 농산물을 화순팜에서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이벤트를 준비했다며, 회원들의 많은 이용 바란다"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화순팜 누리집에서 확인하면 된다.

윤경호/기자

'수국 생산량 압도적 1위의 위엄' 강진에서 확인하세요

6월 30일부터 3일간 '수국길 축제' 개최

본격적인 여름꽃의 향연이 시작되는 6월, 강진에서 대규모 수국 축제가 열린다.

12일 강진군에 따르면 2023 강진 수국길 축제가 '물, 숲 강진의 여름속으로'를 슬로건으로, 6월 30일부터 7월 2일까지 3일간 보은산 V랜드 일원에서 개최된다.

현재 강진은 농가 20개소가 5만8,251㎡ 규모로 수국을 재배하고 있으며, 이는 전국 생산 면적의 32.7%에 달한다. 전남도 내에서도 전체 생산량의 91%를 차지하며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다른 지자체에서 조경용으로 재배하고 있는 수국의 상당수가 강진산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강진산 절화용 수국은 품질이 우수해 지난 2011년부터 일본 수출길에 오르고 있다. 지난 2017년부터는 일본 전체 수출량의 100%를 강진이 차지하고 있다. 2021년에는 싱가포르 시범 수출을 진행하면서 수출 누적 70만 본을 달성했다.

강진산 수국은 양액재배 등 우수한 기술력과 온난한 기후, 풍부한 일조량 덕분에 꽃 색이 선명하고 화려하다. 특히 모닝스타, 화이트아리, 핑크아리와 같은 국산 품종의 수국도 육성하고 있으며, 화훼 시장 선점을 이어가기 위해 농촌진흥청 등과 함께 재배 기술력을 키워가고 있다.

이번 수국길 축제 현장에서는 이처럼 '전국 제1의 화훼도시 강진'의 명성에 걸맞는 각양각색의 수국을 만나볼 수 있다. 수국을 활용한 전시, 체험행사부터 여름철 더위를 시원하게 날려버릴 물놀이까지 다채로운 콘텐츠가 초여름 축제를 장식할 예정이다. 스마트폰 활용 사진대회부터 숲속 음악회, 버스킹, 다양한 색감의 수국들로 구성된 감성 포토존까지 다양한 즐길거리가 마련돼있다. 1년 중 오직 이 시기에만 수국을 배경으로 인생사진을 남길 수 있는

만큼, 친구, 연인, 가족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축제장에서는 '리마인드 웨딩'이 큰 인기를 끌 것으로 기대된다. 미리 구비된 신랑·신부 드레스와 수국 부케를 활용해 연애 시절의 풋풋함과 결혼 당시의 설레임을 다시 한번 느껴볼 수 있는 시간이 마련된다.

보은산에 빼곡히 들어선 나무들과 햇살 아래 밝게 빛나는 수국을 배경으로 더 특별한 웨딩 촬영이 가능하고, 액자는 시중가보다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 또 압화 부채부터 수국 리스(화관), 압화 그립톡, 수국 화분까지 다양한 수국 관련 굿즈를 만들 수 있어 아이들에게도 잊지 못할 소중한 추억을 선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축제장 내 저수지에는 짜릿한 여름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20여 대 가량의 수상자전거를 비치할 계획이며, 여름 대표 수생식물 연꽃단지도 선보인다.

또한 아이를 동반한 가족 단위 관광객들이 대거 방문할 것을 고려해, V랜드 물놀이장을 축제 기간에 맞춰 한시 개장할 방침이다. 물놀이장에서는 시원한 물줄기의 바닥분수와 함께 신나는 물총 싸움을 즐길 수 있어 더욱 인기를 끌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강한 햇살에 대비해 50m 길이의 일명 '오로라 타프'도 갖췄다. 일반적인 그늘막 대신 빛과 바람에 따라 오로라나 파도가 일렁이는 듯한 형태를 띄기 때문에 이색 포토존 역할도 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강진군이 자체 개발한 하멜촌 커피와 맥주도 더위 사냥에 한몫할 것으로 예상된다.

강진원 군수는 "존재 자체가 킬러 콘텐츠인 강진 수국을 활용해 다른 곳에서는 체험하기 어려운 즐길거리와 볼거리를 다양하게 마련했다"면서 "가족, 연인, 친구와 함께 '꽃보다 아름다운 사람들의 고장' 강진에 오셔서 여름철 무더위를 마음껏 날려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강진은 꽃작약 역시 95%를 생산하며 수국과 함께 전남 1위를 기록 중이다. 장미도 34농가가 15.3ha 규모로 재배하면서 전남 재배 면적의 69%를 차지하고 있다.

추윤호/기자

영암군 덕진면 선암·송내외마을 유기농 생태마을 신규 지정

영암군, 친환경농업과 경관 좋은 '전남 유기농 생태마을' 5곳 보유

전남 영암군의 덕진면 선암마을과 송내외마을이 '전라남도 유기농 생태마을'로 신규 지정됐다.

전라남도는 유기농업 확산과 농촌 관광 명소 조성 등을 취지로 2026년까지 100개소의 유기농 생태마을을 지정·육성한다는 목표다.

△친환경농업 적합 △제초제 불사용 △생태환경 우수 △유기농 주민의식 뚜렷 △ 환경 친화적 건축물과 생활방식 등의 요건을 충족한 지역이 후보다.

농가 10호 이상, 친환경 농산물 인증면적 10ha, 유기농 비율 30% 이상의 조건도 갖춰야 한다.

두 마을의 지정으로 영암군은 총 5곳의 유기농 생태마을을 보유하게 됐다.

영암읍 망호정마을과 학산면 신안정마을은 2018년에, 군서면 성지천마을은 지난해 지정됐다.

선암마을과 송내외마을은 앞으로 지정서 교부와 함께 다양한 지원을 받는다.

▲유기농 확대 생산·가공·유통·체험 시설과 장비 우선권 ▲5억 원 규모 유기농 생태마을 육성사업 ▲4,000만 원 규모 유기농 생태마을 활성화 사업 신청 자격 등이다.

선암마을은 농가 15호, 유기농 면적 27.7ha, 유기농 100% 마을로 벼, 녹차, 콩 등에서 친환경 인증을 얻었다.

마을 중앙에는 1979년 '한국제다'에서 조성한 '덕진 녹차밭'이 있다.

이 유기농 녹차밭은 월출산국립공원의 풍광을 거느리고 있어 사진찍기 좋은 장소로 널리 알려져 있다.

송내외마을은 농가 18호, 유기농 면적 30ha이다.

조선시대 정자인 보물 2054호 영보정, 전남 문화재 247호 송양서원 등 역사문화 자원이 가깝다.

한옥 숙박시설인 용두레 도농교류센터도 있어서 유기농에서 관광까지 아우를 수 있는 마을이다.

영암군은 지난달 두 마을의 유기농 생태마을 지정을 위해 신청서를 제출했고, 서류 심사와 전문가 현장 평가를 거쳐 최종 선정이라는 결과를 얻었다.

영암군 관계자는 "친환경농업을 실천하고, 살기도 좋은 마을이 계속해서 유기농 생태마을로 지정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 영암군의 유기농 생태마을들이 소득도 높은 마을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김성현/기자

함평군, 양파 기계 수확 시연회 성료 "인력 • 비용 절감 기대"

2024년까지 32억 투입…양파 기계화 우수모델 육성 사업 추진

전남 함평군 농업기술센터가 해보면 대창리 일원에서 지난 8일 양파 기계화 우수모델 육성을 위한 양파 기계 수확 시연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양파 재배농가, 군청, 농협 등에서 관계자 50여 명이 참석해 양파 줄기 절단기 및 자주식 수집기를 이용한 톤백 수집 과정을 참관했다.

현재 농촌은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인력난이 심해지고 있으며, 양파의 경우 수확 시기가 6월 초에 집중돼 있어 인력 확보를 위한 인건비가 해마다 폭등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군은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오는 2024년까지 사업비 32억원(국비 16억)을 투입, 양파 전 과정 기계화 우수모델 육성 사업을 추진해 기계화 면적을 대폭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양파 재배 전 과정을 기계화할 경우 관행 대비 노동력은 68.8% 작업비는 46.7%가 절감될 것으로 군은 기대하고

있다.

박은하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양파 기계화 사업을 통해 농가의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해 농업인 소득 증대를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김영진/기자

목포시, 주요 간선도로변 가로수 꽃길 조성해 방문객 유혹

목포시가 9일 23개 행정복지센터별로 주요 간선도로변 가로수 꽃길 가꾸기 행사를 추진했다.

목포시는 목포가 주 개최지가 되어 열리는 제104회 전국체육대회((10월 13일~19일)와 제43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11월 3일~8일)를 앞두고, 대규모 목포 방문자를 맞이하기 위한 범 시민운동인 '2023년 희망찬 목포만들기'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이 범 시민운동은 질서·규범을 준수하는 안전한 도시 건설을 위한 약속지킴(Promise), 고유한 특색의 깨끗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마을가꿈(Image), 화합하고 소통하는 도시 구현을 위한 칭찬운동(Nice), 이웃과 함께하는 다정한 도시 만들기 사랑나눔(Kind)의 4대 과제를 설정하고 있다.

이날 행사는 양대체전 개최 등을 통한 1,000만 관광객 맞이를 위해 4대 중점 추진과제 중 '마을가꿈(Image)'세부 실천과제의 하나로 추진됐다.

시는 가로수 밑 공간에 사계패랭이 10,000본을 식재했다. 그 동안 잡초와 무단투기 쓰레기가 있던 공간에 사철 꽃을 볼 수 있는 소규모 꽃밭을 조성해 지역주민 및 관광객들에게 아름다운 볼거리를 제공한다는 취지이다.

사계패랭이는 석죽과의 여러해살이 풀로 추운 겨울에도 보랏빛 꽃을 피워 사철 내내 꽃이 핀다고 해 사계패랭이라 불린다.

또한 해를 거듭할수록 폭신하게 땅을 덮는 느낌으로 번지기 때문에 가로수 밑 잡초 제거에도 효과를 주고 있다.

시는 지속적인 꽃길 유지관리를 바탕으로 관광형 특화거리를 조성해 대규모 관광객 맞이에 최선을 다하고, 올해 사업 효과를 분석해 내년에는 조성 구간, 식재 수량을 늘려 고유의 특색을 갖춘 깨끗한 도시 만들기에 더욱 매진해 나갈 예정이다.

박홍률 목포시장은 "계속 찾고싶은 매력있는 관광도시, 살기좋은 행복도시, 청년이 찾는 큰 목포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 깨끗하고 아름답게 도시를 가꾸려는 노력이 중요하다"면서 "이번에 식재한 사계패랭이 꽃을 통해 방문객들이 화사하고 산뜻한 목포를 만나게 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종배/기자

세종시, 읍면 도시계획도로 확충으로 시민 삶의 질 향상

세종특별자치시가 조치원읍 침산리 소로3-14호를 비롯해 금남면 용포리 중로3-1호를 준공했다고 12일 밝혔다.

준공된 조치원읍 침산리와 금남면 용포리 도시계획도로는 실시계획인가 고시 후 토지 보상 협의, 수용재결을 거쳤다.

침산리 도시계획도로(소로3-14호)는 1977년 12월 31일 지정된 장기미집행 시설이다.

기존 도로 폭이 4m 이하이면서 담장과 건축물 밀집 등으로 소방차 진·출입이 곤란해 인근 거주민들이 통행 불편을 겪어왔다.

지난달 부분 준공한 용포리 도시계획도로도 1973년 6월 3일 지정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로, 기존 도로 폭이 협소한 탓에 인근 거주민들은 주차장소 부족을 호소해왔다.

또한 대평장이 서는 날이면 출입차량이 늘어나면서 도로 이용에 불편을 겪어왔는데, 시는 이번 일부 개통으로 시민들의 불편이 일부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시는 현재 진행 중인 용포리 도시계획도로 중로3-1호 2공구 도로개설 등 5곳도 연말까지 차질없이 준공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어려운 여건속에서 통행 불편을 감수하고 인내하며 협조해주신 시민들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라며 "앞으로도 주민생활과 밀접한 읍면지역 교통여건 개선을 위해서 도시계획도로를 확충해 지역 간 균형발전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최정근/기자

스포츠의 메카 단양, 인라인롤러스케이트장 건립 박차

스포츠의 메카 단양군이 다목적 인라인롤러스케이트장 건립을 위한 '충청북도 제2차 정기 재정투자심사위원회' 심사 결과 승인(조건부)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결과로 민선 8기 공약사업인 '다목적 인라인롤러경기장 건립' 사업이 가시화되며 주민들의 숙원에 물꼬가 트일 것으로 보인다.

총사업비 147억 원이 투입돼 조성하는 인라인롤러경기장은 단성면 상방리 30일원(29,006m²)에 지상 1층 건축면적 7,200m²로 조성되는 국내 유일 공인규격의 실내 경기장이다.

도내 24개교의 인라인롤러 운동부 학생들은 물론 충청북도, 청주시청을 비롯한 전국 실업팀 선수들의 기량 향상을 위한 사계절 훈련장이 될 것이다.

국제규격을 갖춘 경기장은 국내외 대회 유치와 내외국 선수들의 전지 훈련장으로 활용돼 인라인롤러스케이트 메카로서의 위상을 톡톡히 보여줄 것으로 군은 기대하고 있다.

또한, 평상시에는 경기장 내 탁구, 배드민턴, 족구 등 여러 종목의 운동 경기가 가능한 주민 맞춤형 생활체육시설로 활용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을 위해 군은 2018년도에 실내 인라인롤러경기장 건립 추진위원회 발족을 시작으로 세 차례 재정투자심사를 거치며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김문근 단양군수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부군수가 총괄하는 T/F 활동을 적극 지원해 경기장 운영 및 활용방안을 구체화하는 등 사업추진의 타당성을 확보하는 데 역점을 뒀다.

군 관계자는 "단양호의 계곡과 강이 만나는 지점에 국내 최초 실내 인라인롤러경기장을 건립하여 엘리트 체육 활성화는 물론 지역주민을 위한 다목적 생활체육시설로 활용할 것"이며, "국내외 각종 대회 및 전지훈련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역관광자원과 연계를 통한 스포츠관광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실현으로 스포츠메카 단양의 입지가 더욱 견고해질 것이다"고 말했다.

최만식/기자

태백시, 2024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태백시는 오는 15일부터 20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시행하는 2024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 공모사업에 참여할 희망자에 대해 수요조사를 진행한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은 주택, 건물에 신재생에너지원(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설치비 일부를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하는 주민 참여형 에너지 자립마을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주택에 태양광 설비(3kW)를 설치할 시 자부담은 78만 원, 태양열은 온수(6m²) 70만 원 난방(20m²) 설치시 220만 원, 지열 17.5kW 250여만 원의 자부담이 소요된다. 시는 이를 위해 지난 달 30일 제안서평가를 통해 ㈜부광이엔지 등 태양열, 태양광, 지열, 설계·감리, 모니터링 각 분야별 6개 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했다.

신청을 희망하는 시민은 각 동별 주민설명회 시(주소지와 상관없이 참여 가능) 방문신청 또는 참여기업인 ㈜부광이엔지에 수요조사 신청서를 접수 하면 된다. 단, 이번 사업은 수요조사 신청서를 제출한 희망자만 지원가능하며, 해당 공모사업이 미선정될 시 취소될 수 있다.

태백시 관계자는 "2018년 이후 처음으로 신청하는 만큼 2024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유상근/기자

'2023 양양 강변 전국 마라톤 대회' 접수 '시작'

양양군이 르네상스사업을 통해 새롭게 탈바꿈한 남대천과 동해 바다를 돌아 달리는 '2023 양양 강변 전국 마라톤 대회' 참가자 접수를 6월 12일부터 시작한다.

지난해에 이어 2회째를 맞이하는 '2023 양양 강변 전국 마라톤 대회'는 양양군과 대한육상연맹이 주최하고 강원도 육상연맹 주관하며, 남대천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통해 지역 문화와 청정 자연이 조화를 이룬 힐링 공간으로 재탄생한 남대천 일원의 아름다운 모습을 전국의 400만 마라톤 동호인을 통해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오는 10월 22일 열리는 이번 대회는, 남대천과 낙산, 동호 해변을 두루 체험하며 즐길 수 있는 코스로 추진된다. 일반부는 하프(Half), 10km, 5km로 나뉘어 열리며, 양양 웰컴 센터를 출발해 남대천 일출로와 낙산대교를 거쳐 동호해변을 반환점으로 한다.

동호인 가족 및 동반자를 위한 이벤트 행사로 남대천길 걷기 행사도 운영한다.

특히, 이번 대회는 2023 전국중고교 마라톤대회가 함께 열리며, 양양 웰컴센터에서 남대천 일출로를 지나 낙산대교, 가평 초소 입구를 반환하는 공인 코스에서 10km와 5km 대회를 치르게 된다.

참가자 전원에게는 각종 참가기념품이 제공될 예정이며 일반부와 엘리트부를 합쳐 4천만 원의 상금과 부상 등을 수여할 계획이다.

참가 방법은 '2023 양양 강변 전국 마라톤 대회'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참가비는 일반부 하프(Half) 40,000원, 10km 35,000원, 5km는 30,000원이다.

최만식/기자

박경귀 아산시장 "열정적인 봉사활동 감사...행정·재정적 지원에 앞장설 것"

11일, 아산시자율방범대 범죄예방결의 및 제19회 한마음체육대회 성료

박경귀 아산시장은 11일 아산시민체육관에서 열린 아산시자율방범대 범죄 예방 결의 및 제19회 한마음체육대회에 참석하여 자율방범대원들을 격려했다.

아산시 자율방범연합대가 주관한 이날 행사에는 박경귀 아산시장, 김희영 시의회 의장, 이명수 국회의원, 강훈식 국회의원, 도·시의원과 충남시군연합대장, 아산시 자율방범대원 가족 등 500여 명이 참석했으며 감사패와 표창 수여, 범죄 예방 결의문 낭독, 체육대회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행사는 아산시 자율방범대 소속 총 17개 지대가 참석했으며 각 지대 간 유대관계를 돈독히 하고 친목과 화합을 도모하여 더욱 발전하는 아산시 자율방범대가 되기를 위한 자리였다.

박경귀 아산시장은 "범죄 예방과 안전도시 조성을 위한 자율방범대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아트밸리 아산으로 변모하면서 크고 작은 다양한 문화예술 행사가 열리는 곳마다 열악한 환경에도 교통질서 등 봉사에 열정적으로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의 활동에 늘 마음속으로 죄송함을 느꼈다"며 소회를 밝혔다.

특히 "아트밸리 아산 제62회 성웅이순신 축제 때 여러분들의 열정적인 봉사활동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며 "여러분들이 있기에 아산이 문화예술의 도시로 거듭나고 있으며 자율방범대가 안심하고 활동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대원들 간에 우의를 다지고 범죄 예방을 위한 선제적 방범 활동과 봉사를 통해 지역사회가 안전하고 화합하며 발전하는 데 그 역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산시자율방범연합대는 1994년 설립돼 연합대를 포함한 18개 지대 500여 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청소년 선도 및 야간 방범 순찰, 자연보호 및 자연 재난 피해지역 복구작업 지원, 각종 행사 시 자원봉사 활동 등 전방위적으로 지역의 안전과 봉사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김원호/기자

동해시, 해수욕장 내달 12일 개장 관광객 맞이 '시동'

7월 12일 ~ 8월 20일까지 40일간 운영

동해시가 본격적인 여름 피서철이 다가옴에 따라 내달 12일 여름 해수욕장 개장을 앞두고, 편의시설 확충 및 정비, 안전시설 점검 등 관광객 수용태세 구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코로나19 방역조치 완화 등으로 지난해보다 해수욕장 피서객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피서객의 편의 증진을 최우선으로 해수욕장 운영 준비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오는 7월 12일부터 8월 20일까지 40일간 망상, 리조트, 노봉, 대진, 어달, 추암 등 총 6개 해수욕장을 개장·운영함에 따라 우선, 태일건널목 게이트 설치, 세족대 개선, 해변데크로드 설치(3개소), 화단 쉼터 조성, 백사장 투광등 및 가로등 정비를 비롯하여, 망상해수욕장 물놀이 구역 170m 연장, 시민프리존을 확대(망상, 추암 각 2개소)하고, 7월 28일부터 8월 6일까지 물놀이 시간을 19시까지 연장하는 등 물놀이 편의를 대폭 개선할 예정이다.

특히, 특화시책으로 어린이 물놀이 시설, 불꽃놀이 구역, 해변랜드 놀이시설 운영, 시민프리존 무료파라솔 대여, 망상 샤워장 요금 카드 단말기 도입 등을 통해 여름 피서객의 만족도를 높이는 한편, 안전하고 쾌적한 여름철 해수욕장 운영을 위해 안전 및 환경 관리 등 분야별 조치계획도 수립·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국내 해수욕장 최초로 관광객과 상점을 서로 연결하는 자율비행 드론을 활용한 드론 배송 서비스를 망상 해수욕장에 시범 도입하여 여름 무더위 및 교통혼잡과 안전사고의 발생 위험을 줄이면서 큰 호응을 얻었다.

이인섭 관광개발과장은 "올해 무더운 여름 날씨가 예보되면서 해수욕장을 찾는 관광객들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관광객들이 만족하고 다시 찾아올 수 있도록 해수욕장 운영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등원/기자

태백시보건소,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건강걷기 챌린지 시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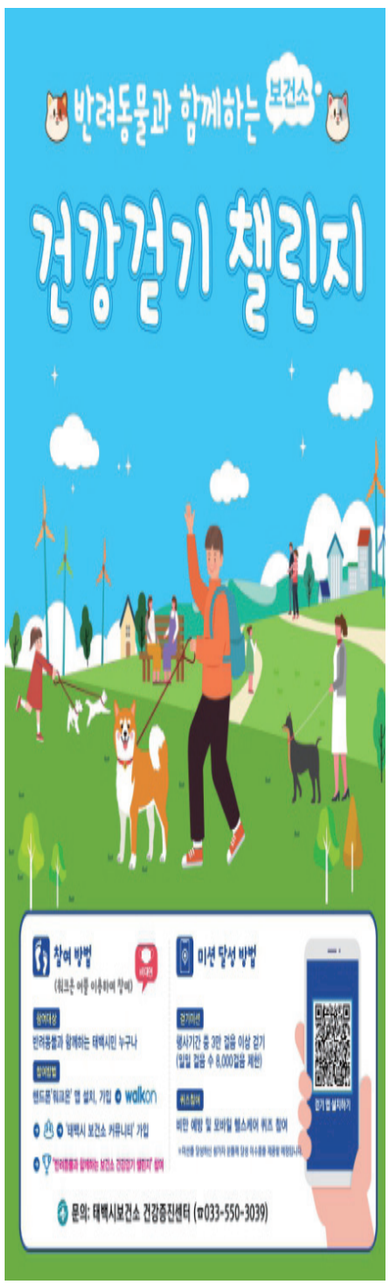
태백시는 건강생활 실천 분위기를 확산하고 생활 속 걷기 습관 형성 유도를 위해 오는 12일부터 23일까지 7일간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건강걷기 챌린지를 실시한다.

이번 챌린지는 모바일 걷기 플랫폼인 "워크온(WALK-ON)" 앱을 활용한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건강걷기 챌린지'로 완료 시 "소정의 상품"을 지급한다.

참여 대상은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태백시민이며, 참여 방법은 챌린지 기간 동안 반려동물과 함께 산책하며 7일간 3만 걸음 걷기 달성(반려동물 및 보호자 산책 사진 필수, 일일 걸음 8천보 제한) 및 비만 예방과 모바일 헬스케어 관련 내용의 퀴즈 미션을 달성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을 지급할 예정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반려동물과의 산책은 반려동물 문제행동 예방 및 건강증진뿐 아니라 같이 산책하는 보호자의 활동량과 행복지수를 늘려 정서적, 신체적 건강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다"라며 "반려동물과의 동반 산책을 통한 올바른 건강관리 습관 형성에 좋은 기회이므로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유상근/기자



원강수 원주시장 첨단산업과 깜짝 방문, 직원과의 격식 없는 소통 행보 강화

만두 사들고 첨단산업과 방문해 업무성과 격려

원강수 원주시장은 최근 실무부서 직원과 격의 없는 소통을 강화하는 동시에 업무 추진 성과를 격려하기 위해 첨단산업과를 방문했다.

원 시장은 지난 7일 직접 만두를 사들고 첨단산업과를 방문, 과기부 신규사업 선정에 대한 노고를 격려하는 한편, MZ세대 직원들의 고충도 청취했다.

첨단산업과는 첨단산업팀, 의료기기융합팀, ICT산업팀 등 3개팀과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파견 직원 등 총 14명으로 구성됐다.

국내 제1호 전문과학관 건립, 전기·수소차 등 미래차 산업 전환 생태계 지원 구축사업, 최첨단 드론 산업, 디지털 헬스케어 첨단의료산업, ICT융합 미래산업 등 원주시 산업 생태계를 미래산업으로 전환하는 데 필요한 기반을 구축하고 있다.

최근에는 2024년 과기부 신규사업 2건이 선정, 국·도비 488억 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민병인 첨단산업과장은 "그간 첨단산업과 직원들의 노력을 알아주셔서 힘이 나고 시장님의 깜짝 방문에 감사드린다."라며, "앞으로도 원주시 미래 먹거리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소회를 전했다.

원강수 원주시장은 "원주시 발전을 위해서는 공무원의 헌신적인 노력이 특히 중요하다."라며, "앞으로도 실무직원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김정환/기자

영동전통시장 봄봄봄 축제 마무리, 오는 14일 추억의 품바공연

영동군민들과 관광객, 시장상인들이 함께 어울려 즐겼던 '2023 영동전통 봄봄봄 축제'가 오는 14일 추억의 품바공연을 끝으로 상반기 행사를 마무리한다.

군은 지난 4월부터 전통시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문화공연과 체험, 할인 이벤트 등 이 어우러진 영동전통시장 봄봄봄 축제를 열었다.

이 '봄봄봄 축제'는 '전통시장에 가봄', '가수도 보고 사진도 찍어봄', '할인쿠폰 받고 어린이 공연도 봄'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지난 4월 '전통시장 봄나들이' 문화공연을 시작으로 5월에는 제62회 충북도민 체육대회의 성공개최를 기원하는 '왁자지껄 길거리 공연'이 진행돼 많은 군민과 관광객들의 호응을 이끌어 냈다.

특히, 남녀노소 구분없이 전통시장의 매력과 향수를 전하는 다양한 공연과 체험들이 마련돼 건강한 웃음과 특별한 즐거움을 전했다.

오는 14일에는 이러한 소통과 화합의 장을 마무리하는 두 차례의 품바공연이 열린다.

공연은 당일 11시 30분, 12시 30분에 영동읍 전통시장 내 신진청과와 영동새참 공간 앞에서 각각 진행될 예정이다.

군은 하반기에도 다양한 문화 공연을 열어 군민 화합은 물론 코로나19 이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의 상권 회복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세심한 관심을 기울일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전통시장을 살리고 지역상인들을 돕는 착한 소비에 적극 참여해 주신 군민과 관광객들에게 감사드리며, 마지막 남은 품바공연에도 군민들의 많은 관심과 관람을 당부드린다"라고 했다.

김원호/기자

경기도 특사경, 의약품 도매상 불법행위 7곳 적발

경기도 내 의약품 도매상 약사법 위반행위 등 위반업소 7곳 적발

의약품 도매상은 관리 약사를 두고 의약품의 입출고, 유효기간 등 품질관리의 도매 업무를 총괄해야 하는데도 이를 어긴 의약품 도매상들이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4월 12일부터 5월 12일까지 도내 의약품 도매상 55개소를 단속한 결과 약사법을 위반한 7곳(9건)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위반 내용은 ▲약사면허 대여 및 차용 행위 4건 ▲의약품 보관 전용 냉장고에 식품 혼합 보관 2건 ▲의약품 운반 차량 표지판 미부착 상태로 의약품 운반 2건 ▲유효기간이 지난 불량의약품을 일반의약품과 구분 없이 보관 1건이다.

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시흥시 소재 A 의약품 도매상은 형식적으로 약사를 의약품 도매업무관리자(약사)로 신고한 뒤, 관리해야 할 약사가 상시 출근하지 않은 채 의약품 출고 영업을 하여 약사면허 대여 및 차용 행위로 적발됐다.

용인시 소재 B 의약품 도매상은 의약품 보관 전용 냉장고 내 오염 가능성이 있는 식품을 혼합 보관했고, 시흥시 소재 C 의약품 도매상은 의약품 운반 차량 식별 표지판을 부착하지 않은 채 의약품을 운송하다 적발됐다.

수원시 소재 D 의약품 도매상은 유효기간이 지난 불량의약품을 일반의약품과 구분 없이 냉장 보관하고, 불량의약품 처리에 관한 기록을 작성하지 않아 적발됐다.

'약사법'에 따라 약사면허 대여 및 차용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의약품 등의 안전 및 품질 관련 유통관리 위반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홍은기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의약품 등의 안전 및 품질 관련 유통관리를 철저히 단속하지 않으면 도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어 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해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흥수/기자

경남도 특별사법경찰, 폐기물 불법처리 행위 집중 단속한다

6월 12일부터 시군 합동으로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 중점 단속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은 오는 6월 12일부터 8월 11일까지 2개월간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체, 폐기물 불법 매립 등 폐기물 불법처리 행위에 대한 기획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코로나19 여파로 일회용 플라스틱(합성수지) 발생량이 늘고, 폐기물 처리단가 인상으로 폐기물 무단 가공 등의 부당수익을 노린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이 증가하고 있어,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추진한다.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자는 낮은 처리단가로 폐기물 배출자를 현혹해 폐기물 처리를 수탁받은 후, 임차한 공장에 폐기물을 그대로 방치하거나 무단으로 재활용하는 등 불법 처리를 하고 있다. 이는 공장 소유자나 합법적으로 운영하는 처리업체에 피해를 주고 주변 환경까지 오염 시키고 있다.

이에 도 특사경은 시군과 합동으로 오는 6월 1일부터 무허가 플라스틱 처리업자를 중점 단속한다.

주요 위반사항에 따른 처벌 기준은 사업장 폐기물을 무단으로 투기하거나 매립하는 행위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 원 이하의 벌금,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 운영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한다.

위반사업장에 대하여는 도 특사경에서 직접 수사 및 송치할 계획이고, 수사 시 위반 사실을 은닉 및 부인하거나 위반규모를 축소한 경우 등에는 필요하면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병행한다.

김은남 경남도 사회재난과장은 "코로나19 이후 일회용 플라스틱 배출량이 증가해 이를 노린 무허가 플라스틱 처리업체가 난립할 것으로 우려된다"면서,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자를 선제적으로 단속하지 않으면 폐기물 무단 방치로 이어져 도민의 재산 피해뿐만 아니라 환경오염을 발생시킨다"며 "폐기물 적정 처리를 위하여 지속적인 단속과 감시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재현/기자

인천 특사경, 실뱀장어 불법 포획 어선 3척 적발

무등록어선, 허가구역 외 무허가 조업, 어구 규모 제한 등 불법행위

인천광역시는 실뱀장어 자원보호를 위해 봄철 무분별하게 싹쓸이 포획·채취되는 실뱀장어 불법조업 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벌여 무등록어선 및 무허가로 실뱀장어를 어획한 어선 3척(4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해양환경 변화 등 실뱀장어 남획으로 어획량 변동이 심해지면서 처벌(벌금, 어업정지) 대비 불법 어업 소득이 높아 무허가 불법조업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어, 실뱀장어 주 조업 시기인 4~5월에 관할 우점 항·포구를 선정해 집중단속 했다.

단속 결과 무등록어선을 이용해 실뱀장어를 포획·채취하거나, 허가구역을 벗어나 실뱀장어 조업한 무허가 조업, 허가받은 어구 통수(1~2통) 사용량을 몇 배 초과한 경우인 어구 규모 제한 위반 등 불법행위 3건이 적발됐다.

이와 함께 같은 기간 내 시 수산과와 옹진군에서는 실뱀장어를 제외한 무허가(타 시·도 조업구역) 통발 및 잠수기 어업, 어구실명제 위반 등 불법어업 행위 6건(6척)도 적발해 시 특사경에 고발했다.

시 특사경은 시 수산과와 옹진군에서 고발한 6건(6척)을 포함해 총 어선(9척) 및 어업인 10명은 수사를 통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또한, 실뱀장어 불법 포획 행위로 적발된 어선 2척(무등록어선 제외)은 관할 시·군·구로 통보해 행정처분 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안채명 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매년 불법어업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고질적 불법 어업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어업 질서 확립을 통한 수산자원 보호는 물론 시민 건강과 직결되는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해 올해 2월 신설된 농·축·수산물 원산지 수사팀의 역량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수산업법'에 따르면 어업허가를 받지 않거나(조업구역위반 포함) 등록을 하지 않고 수산업을 경영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어구의 규모 등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와 어구에 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또한, '어선법'에서는 등록하지 않은 어선을 사용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김종남/기자

부산시 특사경, 남은 음식 재사용한 음식점 8곳 등 위반업소 11곳 적발!

남은 음식 재사용 영업자는 식품위생법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처할 예정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식품접객업소 225곳을 대상으로 남은 음식 재사용 등 불법행위 특별 기획 수사를 실시한 결과, 총 11곳의 위반업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음식점에서의 은밀히 이뤄지고 있는 남은 음식 재사용 행위 등 위법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펼쳐 음식점의 기초위생 확립하고자 주·야간으로 이뤄졌다.

특히, 상대적으로 반찬이 많이 제공되고 1인 식사가 가능해 남은 음식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기사식당, 국밥집, 정식집 등 한식류 제공 식당을 위주로 진행됐다.

특사경이 이번 단속에서 적발한 위반업소는 총 11곳으로, 이 중 손님이 먹고 남은 음식을 재사용한 업소가 8곳, 중국산 고춧가루 또는 중국산 재첩국을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둔갑한 업소가 2곳, 신고 없이 일반음식점으로 영업한 업소가 1곳 등이다.

특사경은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업소 중 영업주와 종업원이 가족 단위로 종사해 주방 내에서 은밀하게 재사용 행위가 이뤄지는 곳이 있었으며, 단속 수사관이 음식점에서 식사하고 남은 반찬을 그대로 손님상에 제공하려다 적발된 곳도 있었다고 전했다.

이번 단속에 적발된 업소 중 손님이 먹고 남긴 음식물을 재사용한 영업자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무신고 음식점 영업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 원산지 거짓표시 영업자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부산시 특사경 관계자는 "최근 물가상승 등으로 어려움이 큰 것은 알고 있지만, 남은 음식물 재사용 등으로 시민들의 식품위생 안전이 저해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우리시는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건전한 외식문화 조성을 위해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도단속을 펼쳐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반찬 재사용 등 불법행위 신고 및 제보는 ▲ 식품의약품안전처 부정·불량식품신고센터 ▲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 ▲ 부산시 누리집 '위법행위 제보' 등을 통해 상시로 할 수 있다.

송종진/기자

보은군, 양귀비 및 대마 불법 재배 단속 추진

보은군은 오는 30일까지 양귀비 개화기와 대마 수확 전 시기에 맞춰 양귀비 및 대마 불법 재배 단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마약용 양귀비나 대마 등을 불법 재배하는 경우로 주민 제보 및 지난해 발견된 장소, 집주변, 폐가, 농가 비닐하우스, 텃밭, 정원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양귀비나 대마를 재배 또는 소유하다 적발되면 최대 5년의 징역형 또는 5,0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최근 청소년에게까지 마약이 쉽게 유통되는 등 전 연령층에 빠른 속도로 확산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 고의성으로 확인되면 짧은 기간 재배했다 하더라도 예외 없이 입건되는 등 단속 기준이 강화됐다.

일반적으로 마약용 양귀비는 검은 반점이 있는 붉은색이 주류를 이루며, 줄기가 매끈하고 잔털이 없고 열매는 둥글고 큰 게 특징이며, 관상용 개양귀비는 꽃봉오리와 줄기에 털이 많고 열매는 크기가 작고 도토리 모양을 띄는 것이 특징이다.

김기혜 보건소장은"철저한 양귀비·대마 단속을 통해 마약 없는 보은군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불법 재배 또는 자생하고 있는 양귀비나 대마를 발견할 경우 보은군보건소 의약보건팀이나 인근 경찰서로 신고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고정화/기자

중소벤처기업부, OpenAI와 K-스타트업 간 교류·협업을 위한 밋업 행사 개최

이영 장관 초청으로 샘 알트만 등 OpenAI 임원진 한국 방문

중소벤처기업부는 생성형 AI 서비스인 ChatGPT 출시로 전세계의 관심을 받고 있는 OpenAI의 대표 샘 알트만(Sam Altman)과 주요 임원진들을 한국으로 초청해 6.9(금), 63스퀘어 2층 그랜드볼룸에서 국내 스타트업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AI 관련 대담을 시작으로 스타트업 Q&A, 기자단 질문 등의 순서로 약 80분간 진행됐다.

OpenAI 측은 샘 알트만과 임원진들이 참석했고, 스타트업은 참여를 신청한 334개사 중 협업 방안 검토, 추첨 등을 통해 선정된 100여개사가 행사에 참석했다.

먼저, 대담 시간에서는 이영 장관과 샘 알트만 대표가 OpenAI 방한 목적과 K-스타트업과 협업 방안, 한국 사무소 설치 의향, 후배 창업자에 대한 조언 등과 관련하여 대담을 나눴다.

이어진 스타트업 질의시간에는 샘 알트만에게 OpenAI사의 서비스와 기업 및 개인정보 보호 정책, ChatGPT를 활용한 생산물의 저작권 관련 정책 등 AI 관련 기술적 내용과 향후 회사의 사업 방향에 대해 질의했다.

이영 장관은 "오늘 간담회는 우리가 AI와 OpenAI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것을 OpenAI 대표인 샘 알트만으로부터 직접 확인하고 협력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오늘 간담회를 시작으로 인공지능 관련 우리 스타트업이 세계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OpenAI와 지속적으로 교류하고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최광수/기자

경북도, '바이오산업엑스포' 본격 준비 의지 다져

2023 경북바이오산업엑스포 행사준비 보고회 개최

경북도는 '2023 경북 바이오산업엑스포'의 개막이 90여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9일 포항시 포스코 체인지업그라운드에서 행사 준비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엑스포 준비보고회는 2023 경북 바이오산업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개최지 현장에서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본격 준비에 착수하고자 마련됐다.

준비보고회는 경북도와 포항시를 비롯해 행사주관기관인 경북테크노파크와 포항테크노파크, 포스텍산학협력단 등 참여기관 관계자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바이오·신약 산업의 메카인 경북 포항에서 개최될 2023 경북 바이오산업엑스포는 지난해 안동에서 첫 행사를 열었으며, 올해 두 번째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바이오기술, 더 나은 내일로!'라는 슬로건과 '바이오시대, 산업의 미래를 열다'라는 주제로 오는 9월 7일부터 9일까지 3일간 포스텍 내 체인지업그라운드와 국제관에서 개최되며 박람회, 컨퍼런스, 기업상담회, 신제품발표회로 나눠 진행될 예정이다.

하버드 의과대학교 Luke Lee 교수의 기조연설과 경북테크노파크 메디컬융합소재실용화센터를 비롯한 도내 7개 전문연구기관에서 국내외 바이오산업 관련 강연자 60여명을 초청하는 컨퍼런스도 함께 진행된다.

이영석 경북도 경제산업국장은 "경북도는 대한민국 바이오산업의 중심으로 이번에 포항에서 선보일 바이오산업엑스포는 기업이 태동하고 성장할 기회를 제공하는 산·학·연·관 발전의 장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급격히 팽창하고 있는 바이오산업을 미래 성장 동력으로 만들어 경북을 글로벌 바이오산업의 중심지로 도약시키겠다"고 밝혔다.

윤근수/기자

부천 '문화'와 '산업' 맞손

부천문화재단, 6월 7일 부천산업진흥원과 업무협약

부천 문화와 산업 대표기관 2곳이 손을 잡았다.

부천문화재단은 6월 7일 부천산업진흥원과 올해 문화도시 부천의 시 승격 50주년을 맞아 지역 내 ESG 확산과 문화 산업화 기반 마련을 위한 업무협약을 진행했다. 이번 협약은 이달에 세계 환경의 날이 포함된 것을 고려해 서면으로 협약 절차를 간추려 진행했다.

협약 내용은 ▲ESG·청렴문화 확산과 문화 산업화 기반 마련을 위한 협력 ▲문화도시 사업 활성화와 지역 내 미래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 구축과 기관 홍보 지원 ▲두 기관의 전문 역량을 활용한 공동사업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의제 발굴 등을 담았다.

이번 맞손은 협약 내용의 구체적인 실천을 위해 빗물받이 배수구 막힘을 방지하는 공공디자인 캠페인 꾸러미 '물살이의 길'과 탄소 배출을 줄이는 친환경 재사용 문구류 등 재단의 문화도시 사업 결과물을 공유하며 지역사회 협력 기관의 적극적인 참여와 동행을 제안했다.

재단 김정환 대표이사는 "부천산업진흥원과의 협약은 시 승격 50주년을 맞은 시기에 문화와 산업의 융합이라는 과제와 미래 방향에 대해 고민해 볼 수 있는 좋은 계기"라며 "이번 협약을 통해 상호 긴밀한 협력으로 문화도시 부천의 '환경, 사회적 책임, 투명경영'(ESG) 실천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천산업진흥원 신동학 원장은 "우리 원은 부천시 기업들을 위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지원을 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ESG 경영과 청렴문화 확산을 강조하고 있고 이번 재단과의 협력이 새로운 시도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부천의 문화산업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또 하나의 지역 먹거리로 자리매김하고 재단이 더 높이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재단은 올 초 추진한 연간 사업설명회를 통해 ESG 경영의지를 밝히고, 시민과 지역 예술가 등 함께 'ESG 문화예술 파트너 선언'을 했다.

윤용민/기자

대전시 대기업-소상공인 상생으로 잇는다

12일 현대프리미엄아울렛 대전점 재개장 맞물려 대전행복상회 운영

대전시는 현대프리미엄아울렛 대전점 재개장과 맞물려 대기업과 지역 소상공인이 상생할 수 있는 경제 생태계를 조성한다.

대전시에 따르면 현대아울렛이 재개장하는 12일부터 7월 13일까지 지역 우수소상공인 18개 업체가 참여하는 '대전행복상회'가 현대아울렛 1층 대행사장에서 개최된다.

행복상회는 지역의 소상공인진흥공단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이수 업체와 백년소공인, 협동조합 등 우리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상표로 성장할 유망한 소상공인들로 구성돼 있다.

무엇보다 지역 상인들을 위해 현대아울렛 측에서 메인 행사장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대기업과 지역 소상공인들의 상생이 기대되는 대목이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지난 9일 현대아울렛 개장에 따른 안전 점검과 소상공인 간담회에서 "9개월 만에 현대아울렛이 재개장하게 됐다"라며 "현대아울렛 측의 협조로 판로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들의 우수 제품을 홍보 판매할 수 있는 대전행복상회를 운영하게 됐다. 한 달 동안 좋은 성과를 거둬 상설화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대전행복상회는 현장 판매뿐 아니라 격주로 매출 상위 3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간 방송 판매(라이브커머스)를 지원하고, 친환경 소비 충족을 위해 쓰레기 무배출(제로웨이스트) 이벤트도 진행할 예정이다.

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도 함께 참여하는 이번 행사는 지역혁신 소상공인 제품 판로개척은 물론 나아가 기업가형 차세대 지역 가치 창출가 리더 육성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장우 시장은 재개장에 앞서 9일 현대아울렛 대전점을 찾아 재개장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소상공인 대표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현대아울렛은 대전시의 제안에 따라 건축 분야 취약 부분을 개선했고, 소방시설 개선사항 반영, 임시주차장 공간 조성 마련 등을 이행했다.

이장우 시장은 "지난해 9월 불의의 화재로 현대아울렛은 물론이고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매우 컸다. 그동안 시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최대 2억 원의 소상공인특례보증과 유급병가 등을 지원해 왔다"라며 "재개장까지 현대아울렛과 소상공인들 모두 수고 많으셨다"고 말했다.

김원호/기자

강원디자인진흥원, 강원특별자치도 폐광지역 디자인 사업 추진

(재)강원디자인진흥원은 폐광지역 4개 시·군에 해당하는 정선군, 태백시, 영월군, 삼척시와 폐광지역 관광산업 활성화(3단계) 사업 진행을 위한 위수탁 협약을 체결했다.

올해 추진되는 450억원 규모의 폐광지역 관광산업 활성화(3단계) 사업은 강원특별자치도와 폐광지역 4개 시·군별 추진 방식에서 벗어나, 정부, 지역, 전문기관이 참여하여 각 기관이 가진 전문적 특성을 살린 사업으로 진행된다.

진흥원은 폐광지역 통합브랜드를 육성하기 위해 브랜드 응용 및 상품디자인 개발, 브랜드 관리체계 구축, 폐광지역 특화자원 브랜드 활용 고도화 사업 등의 사업을 시행한다.

브랜드 응용상품 디자인 개발사업은 2022년에 선행 개발된 폐광지역 특화브랜드와 연계하여 서체 및 응용상품을 개발하고, 폐광지역을 알리는 꾸러미를 개발하고 홍보할 계획이다.

브랜드 관리체계 구축 사업은 폐광지역 특화브랜드와 연계한 관광 루트의 공공안내사인 표준디자인을 제작하여 폐광지역의 정체성을 반영하고, 향후 관광루트에 설치하여 관광객에게 편의를 제공할 것이다.

폐광지역 특화자원 브랜드 활용 고도화 사업은 폐광지역 4개 시·군별 2개 기업(먹거리, 특산품 공예·제조품 등)을 선정, 최대 3,400만원의 디자인 지원을 통해 시장 경쟁력을 갖추고 관광 활성화 이미지 개선에 기여하고자 하며, 지원절차는 디자인전문회사가 지역디자인 통합플랫폼을 통해 예비 공급기업으로 신청, 진흥원이 홈페이지에 예비 공급기업 pool 공개, 예비 수혜기업이 pool에 있는 디자인전문회사와의 컨소시엄 진행을 통해 과제를 신청하면 된다.

진흥원의 이번 사업들은 이번 달 말부터 추진될 계획이며, 최인숙 원장은, "폐광지역의 관광산업이 지역 특성에 맞는 디자인을 통해 타지역과의 차별성을 구축하고 관광지의 위상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등원/기자

충남도, 고성능 전기차 부품 성능평가 기술 선점

도, 산업통상자원부 공모 최종 선정…보령시에 198억 투입해 기반 구축

충남도가 슈퍼카 등 고성능 전기차 부품 관련 기술을 선점하면서 역점사업으로 추진 중인 미래차 전환 기반 구축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도는 '고성능 전기차용 전동화시스템 성능평가 기반구축' 사업이 산업통상자원부의 '2023 산업혁신기반구축'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고 12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은 고성능 전기차의 부품 성능평가 검증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미래 전기차 관련 기술 선점 효과도 기대된다.

최근 전기차 시장은 중·소형차 중심에서 프리미엄 세단, 대형 스포츠 실용차(SUV), 슈퍼카 등 고성능 전기차로 수요가 확대되는 추세로, 고성능 전기차 부품 성능평가 검증 분야가 급격히 성장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도는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중소·중견기업이 구축하기 힘든 고가의 장비 등 공공 시험·평가 기반시설을 구축해 기술 개발, 사업화 지원 등 기술혁신 활동이 가능해짐에 따라 도내 자동차 부품업체의 미래차 전환 지원에 한층 더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기반시설은 보령시에 구축되며, 국비 100억 원과 지방비 98억 원 총 198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사업은 도와 보령시, 전담기관인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주관기관인 한국자동차연구원 간 협약체결 후 다음달부터 2027년 12월까지 5년간 진행한다.

세부 사업 내용은 △고성능 전기차 부품 분석 평가 장비 등 4종 구축 △기업수요 대응 공동 기술개발 지원 △전기차 부품 시험평가 지원 등이다.

도는 사업을 진행하면서 산학연 및 유관기관과 연계해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상호 기술협력 및 최신 정보 공유, 기술 세미나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2021년부터 추진중인 자동차 튜닝산업 생태계 조성사업과 연계해 미래 이동수단(모빌리티) 산업 집적화를 통해 도내 부품기업의 미래차 업종 전환 지원 및 미래 전기차 산업을 이끌어 갈 전문기업도 육성할 방침이다.

도는 사업이 본격화되면 전기차 관련 전후방산업 활성화는 물론 신규 시장 산업경쟁력 확보와 생산유발 201억 원, 부가가치유발 95억 원, 고용유발 124명 등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도 관계자는 "최근 빠르게 진행되는 자동차 산업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기반을 다져 미래차 전환 동력을 마련할 것"이라며 "도내 부품기업들의 신속하고 안정적인 미래차 전환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정근/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모두에게 열린 온라인 코딩파티에서 소프트웨어·인공지능 교육 체험해요!

과기정통부·교육부, '2023 온라인 코딩파티 시즌1' 개최 (6.12.~7.23.)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교육부, 한국과학창의재단(이사장 조율래)은 누구나 쉽고 재미있게 소프트웨어와 인공지능 교육을 체험할 수 있는 '2023 온라인 코딩파티 시즌1'을 6월 12일부터 7월 23일까지 총 6주간 개최한다고 밝혔다.

온라인 코딩파티는 2015년부터 매년 2회씩 온라인으로 개최해오고 있는 대국민 행사로, 소프트웨어와 인공지능의 원리를 쉽고 재미있게 체험할 수 있도록 매년 새롭고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첫 행사를 시작한 이래 참가 인원이 꾸준히 증가하는 등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번 '2023 온라인 코딩파티 시즌1'에는 코드닷오알지(Code.org), 한국교육방송공사(EBS), ㈜로지브라더스, ㈜마로마브, ㈜브랜치앤바운드, ㈜엘리스그룹, ㈜키워드랩, 하이코두주식회사 등 총 8개 기관이 참여하여 블록코딩, 텍스트코딩, 컴퓨팅 사고력(CT), 인공지능(AI), 디지털 문해력(리터러시) 총 5개 부문의 28개 프로그램을 선보일 예정이다.

특히, 한국과학창의재단과 업무협약을 맺고 있는 미국의 비영리 교육기관 코드닷오알지는 '2023 온라인 코딩파티 시즌1' 개최에 맞추어 '댄스 파티(Dance Party)' 프로그램에 방탄소년단(BTS)의 '다이너마이트(Dynamite)', '버터(Butter)' 2곡을 신규 공개한다.

이외에도 인기 캐릭터 등이 등장하는 '마인크래프트 히어로', '겨울왕국', '달려라! 인공지능(AI) 펭카'를 포함하여 '파이썬 데이터 분석 문제집', '인공지능(AI) 이미지 분류 놀이터', '매직 핑거' 등 9개의 프로그램이 새롭게 소개된다.

부문 별로 살펴보면, 블록코딩 부문은 문자로 코드를 직접 입력하지 않고도 블록을 조합해 코딩해볼 수 있으며, 모든 연령부터 체험 가능한 프로그램을 포함하여 15개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순차·반복 등 기초적인 코딩 개념을 임무(미션)를 해결하며 학습하는 프로그램부터 정보 올림피아드 유형의 코딩문제를 블록코딩으로 학습해볼 수 있는 프로그램, 교구 없이도 3디(3D) 모의 실험(시뮬레이션)으로 아두이노를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 등이 포함되어 있다.

텍스트코딩 부문은 중학생 이상 대상의 4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코딩 미션을 파이썬, 자바(JAVA), C, C++ 등의 프로그래밍 언어로 차근차근 풀어나가며 텍스트코딩의 기초 문법을 배워볼 수도 있고, 다양한 실제 데이터를 분석하고 시각화하는 과제(프로젝트)를 수행해볼 수도 있다.

디지털 문해력(리터러시) 부문은 디지털 문해력의 중요성이 강조되며 올해 새롭게 개설된 부문으로, 키보드 기능 연습부터 펫 키우기 등 아이들이 즐겁게 할 수 있는 3개 프로그램으로 마련됐다.

그 외에도 문제(퀴즈)를 풀고 게임을 하며 추론, 추상화, 문제해결력 등을 기를 수 있는 컴퓨팅 사고력(CT) 부문의 2개의 프로그램과 인공지능 데이터 학습, 이미지 분류 모델 만들기, 인공지능 모형화(모델링) 등을 경험해볼 수 있는 인공지능(AI) 부문의 4개 프로그램이 다양한 난이도와 주제로 제공된다.

아울러, 온라인 코딩파티 참가자 대상 이벤트로 '헬로우 코딩!'과 '스텝바이스텝!'을 진행한다. 각 프로그램의 스테이지를 완료한 뒤 발급되는 인증서를 업로드하거나 온라인 코딩파티 설문조사에 응답한 참가자 중 추첨을 통해 경품을 증정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오용수 소프트웨어정책관은 "최근 생성형 인공지능의 등장으로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온라인 코딩파티'에 참가하여 소프트웨어와 인공지능을 재미있게 체험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갖기 바란다"고 밝혔다.

성지아/기자

경북교육청, 주니어 ROTC 합동 창단식 가져!

2023년 문명고·석적고 창단으로 13개 학교 운영

경북교육청은 9일 문명고등학교에서'2023년 주니어 ROTC 합동 창단식'을 가졌다.

이날 창단식에는 문명고등학교와 석적고등학교 주니어 ROTC 학생 50여 명과 동창회, 학부모, 내빈 등 160여 명이 참석했으며, 주니어 ROTC 취지와 경과보고, 입단 선서, 행동강령 낭독에 이어 환영사와 격려사, 축사 순서로 진행됐다.

경북교육청은 민주시민교육 공동체 활동을 통해 올바른 국가관을 기르고 글로벌 리더를 양성하기 위해 지난 2018년 주니어 ROTC를 창단했다.

2018년 4교(구미고, 율곡고, 영주고, 영광고) 118명으로 출발해 2019년 2교(포항고, 선덕여고) 2020년에 2교(경산고, 영천여고), 2021년 2교(경안고, 문창고), 2022년 2교(경북일고, 상주고)를 창단했으며 올해도 2교(문명고, 석적고)를 추가 창단해 2023년 현재 13교에서 310여 명이 활동하고 있다.

주니어 ROTC는 통일 한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소년들이 바른 인성과 국가관을 확립하고 글로벌 리더십을 기를 수 있도록

학생자치 및 공동체 생활, 지역사회 참여 등의 민주시민교육, 나라사랑교육 활동을 하고 있다.

임종식 교육감은 "앞으로도 주니어 ROTC뿐만 아니라, 호국 및 평화통일 교육을 통해 우리 학생들이 나라사랑 정신을 기르고 올바른 국가관을 정립해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영덕교육지원청, 학생자치활성화를 위한 독도탐방 체험학습 실시

아름다운 섬 독도, 우리가 지킨다!

영덕교육지원청은 6월 7일부터 6월 10일까지 3박 4일동안 우리 땅 독도에 대한 사랑을 몸소 실천하기 위해 관내 초·중학생 21명과 인솔자 4명, 총 25명을 대상으로 '학생 자치 활성화를 위한 독도탐방 체험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교과서에서만 보던 울릉도의 문화와 자연생태를 탐방하고, 독도박물관을 견학하며 독도의 가치를 이해하는 등 독도 수호의 의지를 다졌다. 또한 독도에 입도하여 독도 수호 결의문 낭독, 독도경비대 위문품 전달, 독도체험 소감문 작성, 독도미션 수행 등을 통해 독도의 소중함을 깨닫는 값진 경험을 했다.

독도탐방 체험학습에 참여한 영덕중학

교 강준현 학생은 '독도를 직접 밟아 보니 가슴이 뭉클했고, 자랑스러운 우리 땅 독도를 더욱 사랑하고 지켜야겠다. 함께 간 친구들과 독도 UCC를 만들어 독도의 소중함을 널리 알리겠다.'고 다짐했다.

인솔단장인 이성호 교육지원과장은 독도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표현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탐방단 학생들에게 '독도 체험 탐방을 계기로 독도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확립하고 독도의 소중함을 인식하여 독도사랑에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장문화/기자

"우리 선생님이 안전요원!" 영양교육지원청 학교지원센터, 현장체험학습 안전과정 연수 운영

경상북도영양교육지원청 학교지원센터는 2023년 6월 9일(금)부터 10일(토) 이틀에 걸쳐 영양교육지원청 중회의실에서 관내 초·중·고등학교 교원 16명을 대상으로 2023학년도 현장체험학습 안전과정 연수를 진행하고 있다.

현장체험학습 안전과정 연수는 현장체험학습 운영 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 예방 및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응급처치로 학생의 안전을 책임질 수 있도록 현장체험학습 인솔 교사를 대상으로 15시간의 과정으로 진행된다.

본 연수는 현장체험학습 안전과정(기본)으로 대한적십자사 경북지사 소속 응급처치 강사의 안내에 따라 연수 대상자인 각 학교 안전 담당 교사들은 심폐소생술 AED, 상처 처치, 근골격계 손상, 열과 냉에 의한 손상, 재난 대응 등에 대한 교육을 받게 된다.

연수에 참가 중인 영양중 교사는"학생들이 참여하는 다양한 현장체험학습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 문제에 대해 경각심을 갖게 됐고, 위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안전요원으로서 역량을 강화할 수 있었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경상북도영양교육지원청 김유희 교육장은"학교 안팎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 문제 대처에 대한 학교 현장의 애로사항들을 경청하여 개선 방안을 찾아 안전한 교육환경을 마련하고,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현장체험학습 안전과정 연수 과정을 정기적으로 확대 실시하여 모든 교사들이 안전요원이 될 수 있도록 안내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2022회계연도 서울시 · 교육청 결산토론회 개최

서울특별시의회(의장 김현기, 국민의힘, 강남3)는 6월 12일 오후 3시 30분부터 의원회관 제2대회의실에서 한국지방재정학회와 공동으로'2022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결산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세출결산액 기준 68조 6,983억원의 2022회계연도 서울시 및 교육청 결산(서울시 53조 4,688억원, 교육청 14조 9,295억원)과 관련하여 서울시의회 결산 심사에 앞서 집행실태를 살펴보고, 향후 바람직한 예산 운용의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토론회는 시민 누구나 현장 방청이 가능하고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실시간으로 방영된다. 온라인 참여는 유튜브에서 "서울특별시의회 토론회 공청회 생중계"를 검색하면 시청이 가능하다.

토론회는 2시간 동안 진행되며, 김현기 의장, 이재원 한국지방재정학회 학회장, 김영철 예산정책연구위원회 위원장(국민의힘, 강동5), 이성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국민의힘, 송파4)의 축사에 이어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대표위원인 유만희 의원(국민의힘, 강남4)이 좌장을 맡아 토론이 진행된다.

발제자로는 한공식 결산검사위원과 한국지방세연구원 최원구 선임연구위원이 참여하며, 토론자로는 서울시의회 김영옥 의원(국민의힘, 광진3), 이준순 예산정책연구위원회 위원, 경기대 행정학과 조임곤 교수, 서울시립대 행정학과 김대진 교수, 서울시 권순기 재무과장, 서울시교육청 김영기 교육재정과장이 참여한다.

김현기 의장은 "금번 토론회는 서울시의회의 본격적인 결산 심사 전에 지난해 서울시와 교육청 예산의 현주소를 짚어보고 더 나은 예산 운용의 방향타를 찾는 소중한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하면서, "이번 결산은 ▲용도가 불요불급한 예산, ▲집행목적이 불분명한 예산, ▲사업효과가 불투명한 예산에 대해 3불(不) 원칙을 적용한 제11대 의회의 첫 결산인 만큼, 서울시의회는 금번 결산토론회를 시작으로 이번 정례회를 통해 비판과 견제의 시각으로 결산 심사에 만전을 기하고, 결산검사 결과를 집행기관인 서울시청과 서울시 교육청에 시정 등 처분 요구를 통해 반드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최광수/기자

'마을로 미래로 떠나는 오감 기행' 경기도교육청 평화교육원, 학생 미래 핵심역량 UP

의정부여중, '학교자율형 학생주도미래학교' 운영

경기도교육청평화교육원(원장 김형태)이 의정부여자중학교 1학년 학생 110명 등을 대상으로'학교자율형 학생주도미래학교'운영을 지원한다.

지난달 25일부터 26일, 6월 9일'마을로 미래로 떠나는 오감 기행'을 키워드로 의정부여중에서 열린 이번 학생주도미래학교는 코로나 이후 배움 자발성 회복과 학생들의 미래 핵심역량을 신장코자 마련됐다.

주요 프로그램은'꼬리에 꼬리를 무는 우리 이야기'를 주제로 ▲학생주도프로젝트(진로 인터뷰 기획 등) ▲지역체험 활동(의정부 관내직업체험) ▲공동체 활동(이웃과 마을의 의미 이해) 등이다.

이 외에도 운영 학교 교원을 대상으로 실천 역량 함양과 현장 적용성 강화를 위해 '실천가 직무연수(40시간)'등 교육을 실시했다.

김형태 경기도교육청평화교육원장은 "의정부여중을 시작으로 10개교에 학교와 지역 자원을 적극 활용해 지원해 나갈 예정"이라며 "학생주도성과 미래교육 역량 등이 성장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교육청평화교육원은'학교자율형 학생주도미래학교'이외에도'교육원협력형 학생주도미래학교'8교를 운영해 학생들의 미래 핵심역량 함양을 위해 힘쓰고 있다.

이흥수/기자

의성교육지원청, '꿈을 찾는 해양 과학길 도전' 현장체험학습 운영

바다로! 세계로! 미래로!

경상북도의성교육지원청은 2023년 6월 9일, 6월 28일, 7월 13일 총 3회에 거쳐 의성 관내 중학교 1학년 159명을 대상으로 국립해양과학관과 울진군 요트학교에서 해양레포츠 현장체험학습을 추진한다.

의성군은 경상북도의 내륙에 위치하여 학생들이 자유롭게 해양체험을 하기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경상북도의성교육지원청에서는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국립해양과학관과 울진군 요트학교 체험을 특색사업으로 계획했다.

6월 9일 1회 행사 때 의성여자중학교, 금성중학교, 탑리여자중학교 1학년 학생들은 국립해양과학관을 방문하여 산호초의 생물들, 갯벌, 조류의 광합성, 심해생물, 바다의 탄생, 극지, 미래식량 연구, 바다 위 쓰레기, 생명공학 연구 등 다양한 체험존을 통해 해양에 대한 학습과 체험, 무궁무진한 해양의 가치를 알아가는 좋은 기회가 됐다. 또한 울진군 요트학교에서는 승선체험과 RC요트 체험을 실시하여, 미래의 성장 동력인 요트산업의 체계적인 지원과 육성의 현장을 보면서 해양강국의 미래를 꿈꾸었다

의성교육지원청 김성완 교육장은"창의적인 인재육성을 위해서는 학생들에게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의성교육지원청에서는 앞으로도 학생들과 교사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다양한 교육활동 지원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정금자/기자

부산광역시 동구 ⇔ 부산광역시교육청 업무협약(MOU) 체결

부산 동구청은 지난 9일 동구청 대회의실에서 부산과학체험관 공원부지 지하에 저류조 및 펌프시설 축조를 위해 부산광역시교육청과의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2020년 7월 집중호우로 초량 제1지하차도를 포함한 초량동 저지대 일원의 침수피해에 대한 예방대책으로 마련됐다. 침수피해를 계기로 동구청은 해당 지역을 초량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했으며, 부산시교육청과 부지확보에 관한 협의를 진행 후 부산광역시의회 동의를 거쳐 저류조시설을 설치하게 됐다.

부산과학체험관 공원부지 지하에 설치되는 저류조시설은 집중호우시 저지대로 유입되는 빗물을 임시 저장하여 인접 해안으로 배출하는 기능을 하게 되며 침수피해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진홍 동구청장은 "지난 2020년 초량 제1지하차도에서 소중한 생명을 앗아간 사고를 계기로 재발 방지 목적으로 그동안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을 위해 노력해왔으며, 필수 시설인 저류조 설치 부지를 확보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나 부산광역시교육청의 대승적인 협조를 통해 재해예방공사를 신속히 추진하여 자연재해 없는 '안전도시 동구'를 만들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송종진/기자

경기도교육청,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시범 나선다

경기도교육청이 교육부의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시범교육청으로 선정되어 디지털 기반의 교수.학습 혁신을 추진하고 수업을 혁신하는 교원 양성에 한 발 더 나아간다.

도교육청은 ▲디지털 인프라 구축 ▲디지털 선도학교 운영 ▲교육용 콘텐츠 개발과 보급 ▲에듀테크 활용 수업 혁신 역량 강화 ▲디지털 교육 전환 성과 확산 ▲AI 기반 교수.학습 플랫폼 운영 ▲경기에듀테크소프트랩 모델 특화 ▲디지털 교육 선도지구 운영 등을 추진한다.

특히 7월부터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을 추동하고 디지털 교육 전환에 의지와 역량을 갖춘 디지털 선도학교 65교를 공모.선정한다.

또, 인공지능과 빅데이터에 기반해 학생 개인별 맞춤형 교육을 실현할 선도교원을 선도학교 안에서 교당 1명씩 선정해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모델을 개발하고 확산한다.

도교육청은 디지털 기반 교육 확산을 위해 지난 10일 남부신청사에서 '에듀테크 활용 교육 그림&드림 콘서트'를 개최했다.

지난 5월 20일 북부청사에 이어 두 번째 열린 것으로, 교원 250여 명이 참여해 AI 기반 교수.학습을 활용한 학생 맞춤형 교육 실천 사례를 나누었다.

콘서트에서는 초.중등 학교급과 5개 교과(국어, 수학, 사회, 과학, 영어) 총 10개 소그룹으로 나누어 에듀테크 활용 교육을 직접 경험했다.

교사들은 ▲Google Auto Draw 활용 독서 수업 ▲니어팟과 Free math app 활용 분수 수업 ▲디지털 교과서와 잼보드 활용 영어 수업 ▲북크리에이터, 구글 클래스룸 활용 문학과 표현 수업 등을 공유했다.

도교육청 조영민 미래교육담당관은 "디

지털 기반 교육혁신 시범교육청 선정으로 AI와 빅데이터에 기반한 학생 맞춤형 교육에 한 발 더 나아갈 것"이라며 "디지털 선도학교를 중심으로 미래 교수.학습 지원 체제를 구축하고, 교육혁신 모델을 개발·확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흥수/기자

광명시, '2023 KTX광명역 평화마라톤 대회' 성황리 개최… 역대 최다인 5,700여 명 한마음으로 달려

커플과 가족, 세대를 아우르며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전국적인 축제로 발돋움

광명시는 11일 KTX광명역 일원에서 역대 최다인원인 5,7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2023 KTX광명역 평화마라톤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제7회째를 맞은 KTX광명역 평화마라톤대회는 한반도 평화 통일시대에 KTX광명역이 남북 평화 철도의 출발역으로 지정되길 바라는 28만 광명시민의 염원이 담겨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환영사를 통해 "남북고속철도가 KTX광명역에서 출발한다는 먼 미래를 바라보며 광명시의 새로운 시대를 위해 인내를 가지고 시민과 단합된 힘을 바탕으로 희망과 평화를 품고 함께 달려나가겠다"고 밝혔다.

유상기 광명시체육회장은 "KTX광명역 평화마라톤대회가 지구상 유일한 분단국가인 대한민국에서 남북이 평화로 가는 길을 여는 의미 있는 대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대회는 하프, 10km, 5km 3개 코스로 나누어 진행됐다. 하프코스에서는 이종현(1시간12분32초)씨와 김주연(1시간23분28초)씨가 각각 남녀부 우승을 차지했으며, 10km 코스에서는 샌동(34분16초)씨와 노은희(39분49초)씨가 각각 남녀부 1위로 골인했다.

올해 KTX광명역 평화마라톤대회는 광명시 외 지역에서 3,600여 명이 함께했으며 처음 신설된 5km 가족과 커플 부분 참여자도 1,500명 넘게 참여해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전국적인 축제로 거듭났다.

또한, 광명시 13개 유관 단체 495명의 자원봉사자들도 한마음으로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지원했다.

윤용민/기자

▲ 광명시는 11일 KTX광명역 일원에서 역대 최다 인원인 5,7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2023 KTX광명역 평화마라톤 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2023 강원세계산림엑스포 성공기원 D-100일 숲길 걷기대회 개최

산악인 엄홍길 대장 & 방송인 안혜경과 솔방울전망대, 화암사 숲길 함께 걸어요

강원특별자치도는 6.17 산림엑스포 주행사장인 솔방울전망대 일원에서"2023 강원세계산림엑스포 성공기원 D-100일 숲길 걷기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산림엑스포 개막 100일을 앞둔 가운데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 출범(6. 11.)을 축하하고, 산림엑스포의 붐 조성 및 대국민 참여 등 엑스포 성공기원을 다짐하기 위하여 열리는 이번 행사에는 솔방울전망대 체험, 화암사 숲길 걷기를 비롯하여 숲 사랑 어린이 그림 그리기대회, 목공예 만들기 체험, 버섯 시음체험, 산림엑스포 VR체험 등 다양한 이벤트 행사를 개최하여 참가자에게 즐길거리를 선사할 계획이다.

특히, 대한민국 대표 산악인 엄홍길 대장과 방송인 안혜경씨가 참여하여 산림엑스포 랜드마크인 높이 45m의 솔방울전망대 체험과 화암사 숲길 걷기를 함께한다.

솔방울전망대는 산림엑스포 개막 전 일반 시민들에게 처음으로 공개하는 시설물로 최상층부인 10층(40m)에 올라가면 동해바다와 울산바위가 한눈에 들어온다.

또한, 화암사 숲길을 걸으면 먼 옛날 신선들이 하늘에서 내려와 노닐었던 성인대(신선대)를 비롯하여, 금강산 일만이천봉의 첫 봉우리인 성인봉과 울산바위, 달마봉, 고성.속초 시내와 푸르른 동해바다가 보인다.

행사 참여는 선착순 1,000여명 사전 모집으로 6월 15일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참가비 1만원을 내면 고성 상품권 5천원과 강원세계산림엑스포 입장권 5천원으로 다시 돌려준다.

김진태 강원세계산림엑스포조직위원장은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처음 개최하는 국제행사인 만큼 2023 강원세계산림엑스포의 성공개최를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민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의 관심과 동참이 필요하며, 9월에 개최하는 산림엑스포의 성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행사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과 함께 화암사 숲길을 걷겠다고 말했다.

한편, 2023 강원세계산림엑스포는 "세계 인류의 미래 산림에서 찾는다"라는 주제로 9월 22일부터 10월 22일까지 31일간 강원특별자치도세계잼버리수련장과 4개시군(고성군, 속초시, 인제군, 양양군) 일원에서 개최한다.

양시현/기자

볼거리 즐길거리 '가득'… 화성 뱃놀이 축제 '팡파르'

수도권 최대 해양 축제이자 화성시 대표 축제 '제13회 화성 뱃놀이 축제'가 9일 시민들의 귀와 눈을 즐길 수 있는 해양 문화 축제로 성대한 문을 연다.

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 서신면 전곡항과 제부도에서 열리는 '화성 뱃놀이 축제'는 '희망이 넘치는 화성, 함께 즐기는 바다'라는 슬로건으로 13회를 맞이하면서 낮과 밤을 모두 만족시킬 축제로 거듭나고 있다.

특히, 올해는 LED 요트 야간 승선 체험이 도입돼 밤바다의 낭만을 선사할 뿐만 아니라 10일 예정된 야간 공연에는 뮤지컬 갈라쇼를 포함한 DJ 쇼에 이어 총 500대의 드론이 시민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화성 바다의 밤바다 밝히는 500대 드론 쇼

'화성 뱃놀이 축제'는 5년 연속 경기관광축제로 선정될 만큼 매해 평소 체험하기 어려운 요트 체험 등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춘 새로운 변신을 거듭하고 있다.

이번 축제의 화룡점정은 10일 예정된 야간 공연으로 뮤지컬 갈라쇼를 시작으로 해군 군복풍을 활용한 화려한 레이저, 강렬한 비트의 'DJ 쇼', 화려한 LED 댄스 퍼포먼스, 마지막으로 밤바다 공연의 대미를 장식할 500대의 드론이 선사하는 '드론 쇼'그리고 불꽃놀이다.

이와 함께 화성시가 야심 차게 준비한 LED 장식 밤 배와 불꽃놀이가 시민들의 심장을 요동치게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밤바다에 울려 퍼지는 뮤지컬 명곡의 공연과 함께 뱃놀이 축제를 밝히는 비슬 무용단의 불의 춤과 깃발 무 공연도 눈길을 끌 예정이다.

◇9일 개막… 전곡항·제부도 일대 형형색색 요트 체험 등

학생들이 즐거운 모습으로 행사를 알리는 진행을 하고 있다

행사 기간 동안에는 전곡항 일대를 아우르는 형형색색의 요트 모습을 관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곡항과 제부도 등지에서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까지 주어진다.

범선과 유람선,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해적선까지 70여 척의 배들이 시민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다. 수상체험존에서 진행하는 문보트(2인승), 수상자전거(2인용), 펀보트(2인용)도 무료로 진행된다.

바닷속 친구들 워터데칼 체험과 고무동력배 만들기, 친환경 물주머니 오호만들기 등 체험 역시 무료다. 전곡항과 제부도 일대에서 진행하는 '독살체험'과 '갯벌체험'은 이번 행사에서도 인기를 끌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종합안내소에서 배부하는 플레킹 체험 역시 무료다.

9일 오후 6시 개막식에는 가수 장윤정, UJ CREW 등이 축하공연을 펼친다. 이와 함께 정명근 화성시장이 축제의 시작을 축하하고 화성호의 출항을 의미하는 돛을 펼치는 개막 퍼포먼스를 진행한다.

개막식 전 김동연 경기지사와 원희룡 국토부 장관과 정명근 화성시장을 포함한 경기도 시장·군수 협의회의 지자체장들이 3시간 이상 전곡항 클럽하우스와 해상퍼레이드 등에 함께 참여할 계획이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해양레저산업의 정책과 발전 방향을 논의하고 전곡항의 미래를 모색할 예정이다.

◇화성시민이 함께 참여한 '지속 가능한' 축제

시는 이번 화성 뱃놀이 축제를 추진하면서 행사의 의미를 넘어 침체한 지역 상권을 살리고, 주민들이 함께 직접 참여함으로써 '지속할 수 있는' 축제로 거듭나겠다는 포부를 밝힌 만큼 축제에 대한 시민들의 참여도도 높아지고 있다.

마을주민들은 자신의 터전을 축제의 장으로 애 놓았고, 화성 동부와 서부에 거주하고 있는 20여 개의 공연팀이 버스킹 공연을 펼치는 등 시민들의 참여가 눈길을 끈다.

화성시와 화성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시티투어가 함께 준비한 '화성 뱃놀이 축제 1일 여행 패키지 상품'은 7개의 프로그램 중 5개가 사전 예약을 진행하자마자 마감됐다.

어촌체험마을과 함께 하는 전통 방식의 독살 물고기 잡기와 갯벌 체험, 행사장 일대를 깨끗이 하기 위한 마린 플로킹도 시민들의 관심이 늘어나고 있다.

이와 함께 바람의 사신단 등 일반부 7팀과 학생 등 7팀 총 350여 명의 시민이 참여하는 거리 댄스 퍼레이드도 10일과 11일 각각 오후 1시와 4시에 전곡항 메인로드에서 펼쳐진다.

일반부는 118댄스프로젝트, 서울여자대학교 응원단 SWURS, 아라리응원단, 고구려, 모아나훌라, 좋아서 하는 치어리딩 등이 참여한다.

◇축제 찾은 시민 불편 최소화… 주차장 7580면 확보

화성시는 10만명의 방문객이 찾아올 것을 대비해 주차장 7580면을 확보하고 행사장으로 향하는 여러 곳에서 순환버스도 운영한다. 전곡항 주차장 16인승 5대를 신설하고 제부도 25인승 3대 신설, 전곡산단 5대도 운행한다.

사당역에서 출발하는 1002번 노선, 시내버스 1004번(수원역), 1000(동탄역), 330(금정역), 1004-1(수원역), 123(대부도-안산), 123-1번(대부도-안산) 시내버스도 운행한다. 마을버스 H50(제부도내부순환), H51(어촌전시관), H52(전곡산단-서신), H53(궁평항-서신)도 운행한다.

유모차, 휠체어 대여소를 확대 운영하고 임산부를 위해 수유 편의시설을 운영한다. 이동식 화장실 역시 10동에서 16동으로 확대한다.

◇ 국내 최장 길이를 갖춘 화성시 서해랑 제부도 해상케이블카

수도권 새로운 관광명소로 급부상하고 있는 서해랑 제부도 해상케이블카 역시 새로운 체험 거리로 시민들의 발길을 사로잡을 계획이다.

서해랑 제부도 해상케이블카는 자동 순환식 곤돌라로 전곡항 고렴산에서 제부도 입구까지 2.12km 해상 구간을 운행하는 국내 최장 길이를 갖추고 있다. 운행 시간도 10여 분 소요돼 바다의 아름다움을 오롯이 느낄 수 있다.

'서해랑'은 서쪽 바다와 함께 걷는 길을 의미하는 '서해랑길'에서 인용된 명칭으로 섬 서, 바다 해, 물결 랑을 조합해 만들어졌으며, 전곡항과 제부도 사이의 물결치는 바다를 이어주는 매개체로서의 의미를 담은 브랜드다.

한 번에 최대 10명이 탑승 가능한 캐빈 41대를 갖추고 있어 시간당 최대 1500명의 수송이 가능하다. 케이블카의 운행으로 밀물 때에는 접근할 수 없었던 제부도를 수시로 드나들 수 있게 됐다.

'서해랑'은 화성 뱃놀이 축제 이벤트로 지난달 28일부터 6월11일까지 서해랑 케이블카 홈페이지에서 티켓을 예매할 경우 1인당 2000원 할인 혜택이 주어진다.

뱃놀이 행사장에 '서해랑케이블카'부스를 운영해 솜사탕, 키다리광대 풍선증정, 풍선다트, 룰렛 이벤트를 진행 30%의 할인권, 일반 또는 크리스털 초대권 증정 행사도 진행한다.

양시현/기자

제9회 무안황토갯벌축제 성료!!!

쉼·멋·맛을 보여준 일석삼조의 무안황토갯벌축제

지난 9일 해제면 유월리 무안황토갯벌 랜드 일원에서 3일간 펼쳐진 제9회 무안황토갯벌축제가 갯벌 버스킹을 마지막으로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무안군에 따르면 4년만에 우리들 곁에 돌아온 무안황토갯벌축제는 첫날 무안군 9개 읍면민이 참여한'풍요깃벌퍼레이드'로 시작으로 3일동안 개막주제공연 및 축하공연, 무안글로벌 외국인가요제, 황토갯벌 블루카본 토크쇼, 슈퍼어싱 황토갯벌 맨발걷기, 드론 라이트쇼 등 다양한 부대행사와 체험프로그램으로 진행되어 많은 관광객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특히 야간관광콘텐츠를 통한 체류형 관광축제를 위해 올해 새롭게 선보인 드론라이트쇼는 개막식과 토요일 이틀 동안 검은 비단 갯벌의 밤하늘을 500대 별빛이 약 10분간 황토와 갯벌을 주제로 농게, 낙지잡는 어린이, 돌고래 등의 공연이 펼쳐지며 방문객들의 발길을 사로잡고 큰 호응과 탄성을 자아냈다

또한, 최근 대내외적으로"워커블 시티 무안"을 선포하고 건강한 걷기문화 조성에 힘쓰고 있는 가운데 펼쳐진'슈퍼어싱 무안 황토갯벌 맨발걷기'와 '전 국민 가족사랑 걷기'행사는 체험을 통해, '감성피크닉존', '치유명상 뻘멍챌린지'는 쉼을 통해 자연치유와 힐링을 얻어갈 수 있도록 함으로써 방문객들에게 큰 관심을 받아 무안황토와 갯벌에 대한 생태적 가치와 효능을 널리 알리는 효과를 얻었다.

아울러, 관광객들이 오로지 축제에서 바라는 재미와 흥미를 100% 충족시키기 위해 기획된 황토물싸움 WAR와 황토물놀이 운동회 등은 기존 주차장으로 활용된 중심광장을 무대로 재구성하여 DJ댄서와 함께 연일 시원한 물놀이장 파티로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들의 새로운 즐길거리로 인기를 끌었다.

올해에도 무안의 낙지와 양파를 활용한 낙지장어잡기, 농게잡기, 갯벌운동회와 황토 양파캐고 담아가기, 양파김치 만들기, 황토양파운동회 , 우리한돈 시식은 여전한 인기를 모았으며 우리 지역의 농수산물을 직접 체험하는 좋은 기회가 됐다.

무안군 축제추진위원회 박문재 위원장은 "축제기간 3일 동안 다양한 체험프로그램 확대로 인해 많은 방문객들이 찾아주셔서 무안양파와 한돈 등 지역 농특산물의 우수성을 알리는 홍보와 소비촉진의 기회가 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보탬이 됐다"면서 "앞으로도 가족단위 관광객이 많이 방문할 수 있도록 교육과 체험 중심 프로그램을 강화하여 무안황토갯벌축제가 전국 대표 갯벌축제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정광남/기자

GOOD AIR CITY 인증도시
대한민국의 吾, 울진
대한민국이 숨쉬고
모두가 함께 숨쉬는 땅, 울진
대한민국의 숨, 울진은
동해바다의 푸른공기와 금강송의 맑은공기로
대한민국에서 가장 깨끗한 공기를 마실 수 있는
맑은공기 모범도시(GOOD AIR CITY 인증도시)울진을 상징합니다.